
COURSE TITLE
THEOLOGY PROPER
SYSTEMATIC THEOLOGY II : DOCTRINE OF GOD
조직신학 II : 신론

Prepared by **임영호 교수**

Prof. Rev. Peter Y. Yim, Th.D

[Class Syllabus]

- ◆ Course Level: Bachelor and/or Masters
- ◆ Term: Fall Semester 2022 (9/15/2018-12/8/2022)
- ◆ Class Day/Time: On every Thursday, 1:10pm-2:40pm except observable holiday(s)
- ◆ Place: United Bible University & Seminary
- ◆ Professor: Rev. Peter Y. Yim, Th.D. (강의: 임영호 교수)
Phone: Cell) 714-466-0887; E-mail: cephas09@naver.com

◆ Course Descriptions/Objectives (학과 설명 및 목표):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or/and a higher level study of doctrine of God. Everything in Theology starts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eing, attributes and works of God. The reality that God is a personal being possessing Personality and attributes, and therefore can be known, is a constant revelation of Scripture. This course of study includes; the doctrines of the existence of God, the knowability of God, the being and attributes of God, the names of God, the holy trinity, and the works of God including predestination, creation and providence. The students will be motivated by this course of study to draw biblic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being and nature of God and to formulate a consistent doctrine of God.

본 과목은 기초 또는/또한 상위 수준의 신론(神論) 학습과정에 해당된다. 신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위격과 속성을 소유하신 인격적 존재(實有)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의 변함없는 계시이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교리들을 포함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속성들의 관계,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섭리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들이다. 본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사역에 관한 성경적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불변의 신론(神論)을 명확히 체계화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이다.

◆ Course Textbook(교과서):

1.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God and Creation*, Vol 2,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2,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 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3. *The Holy Bible; New American Standard Bible(NASB)*, The Lockman Foundation, 한·영 해설성경: 한글개역-최신미국표준영어, 국제성서출판사, 1997.

◆ Recommended Reading(참고도서):

* English Version(영어본)

1. Bavinck, Herman, *The Doctrine of God*, trans., edit. and outlined William Hendriksen,¹⁾ Carlisl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3.
2.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96.
3.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XX, ed. McNeill John T., trans. Battles, Ford Lew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4. Vos, Geerhardus Johannes, *Reformed Dogmatics; Theology Proper*, Vol. 1, trans. and ed. Gaffin, JR., Richard B.,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2.
5. Hodge, Archibald Alexander, *Outlines of Theology*,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2.
6.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1, Hendrickson Publishers, 2013.

* Translation(번역본)

1.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 상권, 신복윤 외 3인 공역, 생명의말씀사, 1991.
2. Hodge, Archibald Alexander, *outlines of Theology*, 하지조직신학(요약) 1권, 사론/신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Korean Version(한국어본)

1.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Course Assignments(과제):

1. Bachelors(학부과정): A final examination will be given on 11/27/2022. (11/27/2022 강의시간에 학기말고사를 실시하게 됨)
2. Masters(석사과정): One course paper in digital format will be due on (2/31/2022)as follows:
{다음을 참조하여, 학기말 페이지를 12/31/22까지 디지털포맷 방식(E-mail, CD 또는

1) William Hendriksen(1900-1982: 네덜란드 출생, 미국 이주: 1911년)은 개혁주의 신약학자로서, 신약성경 주석가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학자로 불린다. 그는 Calvin College 와 Calvin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Princeton Seminary에서 박사학위(Th.D.)를 취득했다. 그의 신약성경 주석은 명불허전의 명저로 평가받는다. 그가 암 수술 후 세상을 떠남으로써 완성하지 못한 나머지 약 1/2 부분을 F.F. Bruce, Charles Hodge, John Brown 등 여러 개혁주의 학자들의 노력으로 주석의 전질이 완성되었다. 그가 쓴 로마서 주석으로 사후에 <Gold Medallion Book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USB drive)으로 제출할 것}

1) The subject of this paper will be chosen by student and approved by Instructor from the one of the following(페이퍼의 표제는 다음 표제들 가운데서 하나를 학생이 선택하고, 교수가 승인함으로써 결정함):

- (1) <The In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
- (2) <The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
- (3) <The Divine Decrees in General and Predestination>(하나님의 일반적 작정과 예정)
- (4) <Creation and Providence>(창조와 섭리)

2) Expectation: Length of paper: 6-8pages(Letter size); Font size: 한글-11; Word-12; Line spacing: 한글-160, Word-1.5; Computer typed(페이퍼 분량: 6-8쪽(레터사이즈); 글꼴 크기: 한글-11, 워드-12; 줄 간격: 한글-160, Word-1.5; 컴퓨터로 작성할 것)}

◆ Ethical Responsibilities for Written Work(과제물 작성 시의 윤리적 책임):

1. Conforming to rules and standards in A Manual of Style by Kate L. Turabian (공인된 리포트/논문작성 서식집의 양식을 따를 것)
2. Must be Your Own Original Work(제출자 자신이 연구하고 작성한 글이어야 함)
3. Reference books and footnotes (참고서적, 인용한 내용 등을 반드시 각주에 밝힐 것)

◆ Course Grading (성적 평가)

1.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in class(출석 및 참여도): 55%
2. Final Examination: Bachelors (학기말고사: 학부과정): 45%
3. Course Paper: Masters (학기말 페이퍼: 석사과정): 45%

◆ Grade Point Rate (학점 산출 기준)

The instructor may use Plus (+) or Minus (-) and such notations will result in a final GPA as follows:

(교수는 '+' 또는 '-'의 기호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학점에 반영할 수 있음)

<u>Grade</u>	<u>Percent</u>	<u>Grade Point</u>
A(+ not applicable)	93-100%	4.00
A-	90-92%	3.75
B+	87-89%	3.50
B	83-86%	3.00
B-	80-82%	2.75
C+	77-79%	2.50
C	73-76%	2.00

C-	70-72%	1.75
D+	67-69%	1.50
D	63-66%	1.00
D-	60-62%	0.75
F	Below 60%	0.00

◆ Class Schedule (강의계획)

Class Orientation in first class 첫 강의 시간에 교수방침/교과내용 소개

[제1장] 하나님의 존재하심	5
I. 신학연구와 신론	5
1. 교의신학의 핵심 내용	5
2. 교의신학과 신론의 관계	6
II.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6
1. 성경적 증거	7
2. 성경적 증거의 특성	7
3.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들	8
4.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 증명들(證明; proofs)	10
5. 합리적 증명들과 믿음	14
[제2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	15
I. 하나님에 대한 이해	15
II. 하나님에 대한 지식	16
1. 알 수 있는 하나님	16
2. 인간의 부패성	17
3.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18
4.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	20
[제3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21
I. 하나님의 성경적 이름 개관	21
1. 하나님 이름의 본질	21
2. 하나님 이름의 특성	22
3.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	23
4. 구약성경의 하나님 이름들	23
5. 신약성경의 하나님 이름들	25
[제4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	27
I. 하나님의 속성 개관	27

2. 정의 및 용어 사용	27
3. 하나님 속성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28
4. 하나님의 속성 분류	29
III.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30
1. 하나님의 자존성	30
2. 하나님의 불변성	32
3. 하나님의 무한성	33
4. 하나님의 유일성	36
IV.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38
1. 하나님의 영성(영적 본성)	38
2.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	40
3.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44
4.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48
[제5장] 기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53
1. 삼위일체의 정의	54
2.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54
3.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 발전	56
4.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	59
5.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	62
6. 삼위의 개별적 설명	66
[제6장] 하나님의 사역	74
I. 하나님의 작정	74
1. 작정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들	75
2. 신적 작정의 특성	75
II. 하나님의 예정	79
1. 하나님의 예정 교리의 역사적 조명	79
2. 하나님의 예정의 성경적 용어들	82
3. 하나님의 예정의 주체와 대상	83
4. 예정의 두 가지 요소	84
5. 선택설(타락전 선택설)과 후택설(타락후 선택설)	89
III. 창조	94
1. 창조 개관	94
2. 성경적 증거 및 용어 설명	94
3. 창조 교리의 역사성	95

4. 창조 개념	96
5. 창조의 목적	98
6. 창조 교리에 관한 여러 이론들	99
7. 영적 세계-하늘	99
8. 물질적 세계-땅	102
9. 창조 교리와 진화론	104
IV. 섭리	105
1. 섭리의 정의	105
2. 섭리의 구분	106
3. 섭리의 대상과 특성	106
4. 섭리의 3요소	106
5. 이적과 비상섭리	110
[제7장] Conclusion and Evaluation 결론 및 평가	
1. Overall Review & Conclusion of Systematic Theology II (조직신학 II 전체 복습 및 결론)	
2. Class Evaluations/Suggestions 학습평가/제안	
3. Final Examination 학기말고사	

[제1장] 하나님의 존재하심

I. 신학연구와 신론

1. 교의/조직신학의 핵심 내용

신학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대전제(大前提; presuppositions)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다.²⁾

첫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함으로써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의/조직신학은 시종일관 유한한 피조물들을 다루지 않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의신학이 그 작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만물이 하나님(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주)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주)에게로 돌아가기’³⁾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피조물들을 생각한다. 이것은 교의신학이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교의신학 전체의 유일한 교리가 되고, 독점적인 내용이 된다. 교의신학에서 다루는 모든 교리들, 즉 우주, 사람, 그리스도 등에 관한 교리들은 단 하나의 중심적 교리인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교의신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교의신학은 이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그저 메마른 이론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신학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낼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로 나아가게 된다.

신학은 단지 표현에 치중하지 않고, 메마른 학문적 지식이나 수사적인 신학(theology of rhetoric)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적인 신학(theology of fact)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교의신학은 하나님 지식에 관해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또한 삶의 결

2) ‘전제’란 논리에서 추리를 할 때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서,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을 의미한다. 신학연구에 있어서의 이 전제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명칭하게 될 만한 어떤 관념이나, 이상이나, 능력이거나, 목적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근원이시며, 만유를 초월하시되, 내재(內在)하시는 자존재(自存在)이시며, 자의식(自意識)적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靈; the Spirit)이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박형룡, *교의신학-신론*, 편집 박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p. 30.

3) 롬 11:36

4)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God and Creation*, Vol 2, edit.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p. 29.

실이 풍부한 학문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⁵⁾

2. 교의신학과 신론의 관계

교의신학을 연구할 때,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는 신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Schleiermacher가 새로운 방식을 소개했는데, 신학의 과학적인 특성을 안전하게 추구하려고 시도한 영향 때문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신학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을 신학의 원천으로 바꾸어버렸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적인 계시로 믿는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적 감정, 이성적 이해에 바탕을 둔 판단을 종교적 사상의 표준으로 삼았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단순한 감정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말씀에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던 것을 멈추고,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긍지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계시’라고 부르기까지 했다.⁶⁾ 리츨주의 신학(Ritschlian theology) 역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신적으로 영감된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⁷⁾

그러나 그들이 주관주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정통신학자들이 신학을 신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전통적 순서를 지향하고 있다.

II.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

5) 시 89:16; 사 11:9; 렘 31:34; 요 17:3 참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영혼 알기를 소망한다. 더 이상은 없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고,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시작 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칼빈(1509-1564)의 제네바 교리문답서(1521,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John Calvin)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자녀들과 새신자의 성경 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교리문답서이다.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고전10:31, 롬11:36, 시73:24~26, 요17:22~24)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시작하여 1163회에 걸쳐 회의를 거친 후 1647년에, 소요리문답 역시 1647년에, 대요리문답은 1648년에 각각 의회에 보고되었다.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 에딘버러의 영국교회 총회에서, 1649년 영국 의회에서 각각 인준을 받았다.

6) Schleiermacher의 영향을 받아 교의신학을 인간론으로부터 전개시켜나간 그의 추종자들은 The Mediating theologians(중재파 신학자들), The Christian Faith의 저자인 O. A. Curtis 등이다.

7) Albrecht Ritschl(1822-1889)은 독일 신학자요 역사학자로, 당시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학자였다. 그의 신학은 ‘도덕적 가치,’ 즉 윤리적 관계를 중요시했다. 여기에 속한 신학자들은 Wilhelm Herrmann, Haering, Kaftan 등이며, Adolf von Harnack도 주의를 끌었다.

나눔께서 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에 자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계시 하셨기 때문이다.

1. 성경적 증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creation)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있으나,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거울에 하나님 자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 그러나 일목요연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더 우둔한 어리석음 때문에 보지 못한다. 동시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manifestation)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그토록 많은 등불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주속의 작품가운데 빛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

본 교안의 서두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신학연구를 할 때, 확실하고 변함없는 대전제(大前提; presuppositions)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⁸⁾ 이 믿음은 분별없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며, 이 증거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일반적인 증거들(common proofs)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이며 교사로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이나 시력이 흐린 사람이 안경을 쓰면 책을 성명하게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은 혼돈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한데 모아 정연하게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내고, 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반적 증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백하고, 더 정확한 표준이 된다.⁹⁾

2. 성경적 증거의 특성

성경의 특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논리적인 주장(logical argument)을 취하지 않고, 명백한 선언(explicit declaration)의 형식을 취한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지 않는다¹⁰⁾ 다만 묘사(description)의 형식을 취할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8) 히 11:3 참조

9) John Calvin, pp. 69-70. *Inst.* II. I-v 참조.

10) Louis Berkhof, p. 21.

히브리서 기자는 히 11:6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성경은 가장 첫 번째 구절(창 1:1)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창조물들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역사하시며, 구속의 위대한 목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시는 것에 대해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¹¹⁾ 환언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두 가지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파악하는 지식이 먼저 온다. 다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내적 지식이 더해지게 되었다.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유일하신 원래의 조성자이시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게 된다. 동시에 중보자 위격으로서의 구속주로도 알게 된다.

신약성경의 모든 증거의 목적은 성경에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데 있고, 우리가 정도를 벗어난 길에서 불확실한 신(神)을 추구하지 않도록, 마땅히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있다.¹²⁾ 그러므로 성경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각종 오류에 기우는 경향이 있으며, 새롭고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어보려는 크나큰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뵈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바른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땅히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¹³⁾

다음 항목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견해들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역사적 합리적 논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3.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들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함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온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특히 미개한 종족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도

11) Louis Berkhof, p. 21.

12) John Calvin, pp. 70-71.

13) Ibid., p. 73.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형태들은 다음과 같다.¹⁴⁾

1)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절대적 부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며, 그들의 핵심적인 이론은 바로 무신론이다.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practical atheists)과 이론적 무신론자들(theoretical atheists)로 구분된다.¹⁵⁾ 전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한다(시 10:4; 14:1; 엡 2:12). 후자는 보다 지성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을 이론의 과정에 기초하여 주장한다. 그들은 결론적인 이성적 논증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으려 한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지성적인 사람들로서, 합리적인 논증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한다.

Flint 교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독단적 무신론(하나님의 실제적 존재를 단호히 부인함),
- 2) 회의적 무신론(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사람의 마음을 의문시함)
- 3) 비평적 무신론(하나님존재에 대한 확증이 없다고 주장함)

2)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현대의 대표적 개념들

(1) 내재적이며 비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범신론(Pantheism)의 영향을 받은 이 개념은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1834)를 통해 신학에 정착되었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경험에 의한 하나님만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주 하나님을 “우주(universum)” 또는 “세계전체(Welt-All)”라 호칭하며 하나님의 인격성을 반대한다. 그의 사상은 지난 세기동안 현대신학을 지배했다.

(2) 인격적이며 유한한 하나님

이 개념은 다원론(Pluralism)과 일치한다. 19세기는 형이상학을 배척함으로써, 신학의 하나님을 철학의 절대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상례로 된 시대였다. 이를 지지하는 Bradley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절대자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James는 무한하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더 조화를

14) Louis Berkhof, pp. 22, 23.

15) 미국에 있는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theism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촉진회로 잘 알려져 있다.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등의 형이상학적 속성들을 제거하고, 도덕적 속성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Bergson은 James의 개념에 싸우며 성장해 가는, 자신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개념을 추가했다. Hobhouse, Schiller, James Ward, Rashdall, H. G. Wells 등이 유한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3) 추상적 관념으로 의인화된 하나님

현대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지 어떤 우주적인 과정이나, 보편적인 의지나 능력으로 여긴다. 또한 높고 포괄적인 이상을 위해 서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성명을 반복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론적 견해를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상상의 하나님에 불과하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에 응답하지도 않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현대 자유주의신학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유행하고 있는바, 하나님의 유일신적인 개념을 부인하는 잘못된 개념들이다.

4.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 증명들(證明; proofs)

이 항목에서 다룰 소위 합리적 증명이라 불리는 본 증명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발전된 유신증명(유신논증)이라 부른다. 유신증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적인 논리적 증명¹⁶⁾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주론적 증명(the Cosmological Proof)과 목적론적 증명(the Teleological Proof)은 우주의 기원과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연역(演繹)한다.

둘째로, 존재론적 증명(the Ontological Proof)과 도덕적 증명(the Moral Proof)은 사람의 이성과 도덕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류의 역사에 기초하여 인류의 일치된 증거와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

16)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 참고로 개혁주의 변증가들은 기독교 유신론의 진리를 변호함에 있어서 전제(Presupposition)에 근거한 변증 방법을 수용한다. 여기서 ‘전제적 변증방법’이란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전제주의자들이다. Van Til은 “성경은 전제하지도 증명하지도 않는다”라고 피력했다. 참고로 창 1:1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묘사(설명)하고 있다.

론하여 증명하는데,¹⁷⁾ 그 증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⁸⁾

1) 우주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the Cosmological Proof)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따른다. 이에 따라, 결과에 해당되는 우주의 존재를 낳게 하고, 그 우주를 일정하게 운행시키는 최초의 원인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임을 증명하려 시도한다. 이 증명에는 언제나 지지와 반대가 있다.¹⁹⁾

이 증명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적절한 원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주도 적절한 원인을 가져야 하는데, 그 원인은 무한하며 위대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 증명은 보편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증명은 자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다양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세상의 특정한 사물들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역시 우연적이며, 유한하며,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 적절한 원인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되어, 끝없는 사슬의 굴레에 빠지게 한다.²⁰⁾ 더욱이 이 증명은 우주가 하나의 원인, 즉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²¹⁾ 동시에 이 증명은 만물로 구성된 우주전체도 역시 만물처럼 반드시 한 가지 원인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증명은 거기서 멈출 뿐, 그 궁극적 원인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증명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2) 목적론적 증명

이 목적론적 증명(the Teleological Proof)은 우주론적 증명이 다루지 못한 핵심 내용을 증명한다.

이 증명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증거이며, 실질적으로 앞의 우주론적 증명의 확대에 해당된다.

이 증명은 우주 전체나, 별이 총총한 밤하늘, 구성 요소들, 지구, 사람, 동물, 식물, 땅, 손, 눈 등의 각 피조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질서와 아름다움, 조화와 목적에서 출발하여 지성적 원인을 추론하는 증명이다. 목적론적 우주관은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에 의해 환영받고 있으나,²²⁾ 근세에

17) 이 외에도 심미학적 증명, 인론적 증명, 역사적 증명, 종교적 증명 등이 있다.

18) Herman Bavinck, pp. 68-78. paraphrased.

19) Thomas Aquinas, 로크, 라이프니치 등이 이 논증을 주장하는 반면, 원인의 보편성이 David Hume과 Immanuel Kant 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 David Hume (1711-1776)과 Immanuel Kant (1724-1804)의 지적이다.

21) Louis Berkhof, p. 26.

22) 이 증명을 보존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신 유일신론자들(New Theists)이 여기에 포함되며, 많은 철학자들, 즉 Anaxagoras, Plato, Aristotle, Socrates, Cicero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이 증명을 부인한다. 한편 신 유일신론자들은 전통적 유일신론자들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을 통해 그들의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New Theist is a knower, not a believer; as a

들어 반대의 개념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증명에 반론을 제기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1) 유물론(materialism)은 우주에 목적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한다.
- (2) 범신론(pantheism)은 의식적인(conscious) 목적을 부인한다.
- (3) Immanuel Kant는 우주에 의식적인 목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상 건축가에게만 주어질 뿐, 세상의 창조주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증명은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건축가에게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반론에 대한 타당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1) 범신론의 반론에 대한 답변: 무의식적인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동은 의식하고 계시며 의도하는 바를 행하시는 분을 가리켜준다.
- (2) Kant의 반론에 대한 답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건축가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 (3)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과연 우주 안에 참으로 목적이 있는가의 답변여하에 달려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²³⁾ 이 목적은 우주전체에서, 또한 구체적인 현상들 가운데서 입증되고 있다.

모든 원자들은 하나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글자들을 아무렇게나 던져서 “일리아드(Illiad)”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우리가 때때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특정한 사실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목적이 증명하고 있음을 정확히 관찰하게 된다.

3)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the Ontological Proof)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²⁴⁾

존재론적 증명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 관념과 규례들로부터, 즉 우리 개개인과 세상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으로부터 절대적 이성, 즉 이 모든 관념들과 규례들의 총괄, 절대적 진선미, 즉 하나님을 결론짓는다.²⁵⁾

둘째는, 인간의 사고(thought) 안의 필연적인 관념의 현존으로부터 최상의, 절대적 관념 즉 하

new breed of theist, we are religious naturalists: Reality is our God, evidence is our Scripture, integrity is our religion, and contributing toward a healthy future is our mission.”

23) 창 1장: 잠 8장: 고전 3:21-23: 롬 8:28 등을 참조할 것

24) Anselm, Samuel Clark, Descartes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었다.

25) 여기 해당하는 학자: Plato, Augustine, Boethius, Anselm<Monologium>

나님의 실제적 존재를 이끌어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관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관념은 실제로 존재함이 없는 관념보다 더 위대하고 상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⁶⁾

셋째는, 하나님의 관념의 선천적(innate) 특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²⁷⁾

형태는 다르지만, 증명은 단 하나, 즉 인간 사고의 존재로부터 실제적 존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증명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사고와 존재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전혀 다른 것들이다. 존재란 사고의 산물이 될 수 없다.

이 증명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거될 수 없으며, 추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참된 존재를 결론지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도덕적 증명

이 증명은 먼저 인간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도덕적 존재가 영위하는 도덕적 질서와 상벌 규정을 통해서 도덕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이를 보존해 나가는 도덕적 존재, 하나님을 증명하는 논증이다.

이 증명은 언제나 인간 세계의 도덕적 현상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의 도덕적 존재에 도달한다.²⁸⁾

이 증명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진화론: 사람의 도덕적 의식은 동물의 세계에서조차 발견되는 성향의 산물이다. 도덕은 사회의 산물이며, 환경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준다.

둘째로, 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 칸트파의 독일 철학자)와 그 이후의 독립적 도덕론 옹호자들: 사람의 도덕적 의식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 세계질서만을 증명한다.

셋째로, 악이 언제나 벌을 받지 않고, 미덕이 언제나 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덕적 세계질서의 부재를 가리킨다.

넷째로, 자연과 도덕적 세계질서는 병존하고 있으며, 더 높은 다른 능력들을 돌이켜 가리킨다.

이상의 반론들에 대한 타당한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진화론은 현재 인간의 도덕적 의식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할 수 없으며, 선한 것을 유쾌하고 유익한 것과 혼동하고 있다.

둘째로, 도덕적 세계질서는 인격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다.

셋째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악과 형벌, 그리고 선과 축복 사이에 분명하게 보여준 불균형은 도덕적 세계질서의 존재를 비실재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26) 해당학자: Anselm<Prologium>(담화)

27) 해당학자: Descartes

28) Immanuel Kant, Hamilton, John Newman 등이 주장한다. 롬 1:32; 2:14,15 참조

넷째로, 네 번째 반론은 심각하게 고려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증명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게 하는 증명의 범주에는 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잔인한 자연의 힘이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한다(testify).

5) 보편적 동의에 의한 증명

이 보편적 동의에 의한 증명(the Argument from Universal Consent)은 종교의 보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한다.

보편적 동의가 사실과 부합한 것이든지,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든지, 아니면, 인간 마음의 병리상의 조건의 일이다.

만약 후자일 경우, 사람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신뢰할만한 것이 못된다.

Cicero가 이 증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종교의 연구 또한 이 증명의 힘을 강화시켰다.

모든 권위 있는 종교학자들은 오늘날 종교가 없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교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물론 이 증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교가 사람의 정신 병리학에 있어서 한 장을 구성한다는 반론을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종교를 과학적 계몽에 의해 결국엔 사라지게 될 오류, 일시적 망상과 환상처럼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정교한 논법에도 이러한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동의에 의한 증명’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란 개인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6) 역사적 신학적 증명

역사적 신학적 증명(the Historico-Theological Proof)은 직전의 증명과 매우 가깝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계획이 실현되고,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지혜롭고 전능한 세계 통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 증명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비록 지적인 발달과 물질적 문화의 발달이 의문시 될 수는 없으나, “인류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을 결정할 통계가 없다. 따라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역사적 사실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과 현실, 원리적으로는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정신이 아니라, 마음이다.

5. 합리적 증명들과 믿음

이상의 6가지 합리적 논증을 통한 증명들은 ‘증명들’ (proofs)이라고 부르기에는 빈약하지만, ‘증언들’ (testimonies)이라 부르기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 증명들이 주는 유익은 참조할 만하다. 증명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비록 실존하시는 분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보다 더 선명함과 명료함을 제공해 준다.

덧붙여서 소위 하나님 존재의 증명은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적 의식과 윤리적 의식을 설명해 준다.

동시에 숙고해야 할 점은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전 우주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세상의 가장 작은 곳조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비추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안팎 모든 것으로부터 다가온다. 하나님의 증거는 매우 강력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대한 인류의 응답이다.

소위 증명들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는 결코 아니다.

이 확신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수립된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확증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의식의 자발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진정한 증명들로서의 증명들은 믿음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산물이다. 사람은 증명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반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파선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²⁹⁾

만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리적 증거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믿음 지탱하기를 선호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 수납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신앙인들의 확신은 이러한 논리적인 증명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³⁰⁾

29) Herman Bavinck, p. 78-80.

30) Louis Berkhof, p. 27.

[제2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

I.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지식은, 사람의 상상력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 교의신학은 그 작업의 시작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the incomprehensible One)을 만나게 된다.³¹⁾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knowable)?”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다고 가르친다.³²⁾

Geerhardus Vos(1862-1949)는 범신론³³⁾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神)은 인식되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즉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범신론 사상의 근간은 전적으로 철학적 견해로부터 온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곧 일체의 우주(일체의 자연)인 것처럼 주장한다.

이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일체의 우주가 아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는 동일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적인 설명으로 창작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고 이해력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피조물들에 관한 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부분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한도 내에서만, 즉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드러내신 만큼 하나님을 알 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하심으로서 만물에 충만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자신과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가장 머나먼 시간적 간극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자신의 흔적대로 창조하신 사실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이요, 마음, 의지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31)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rans. and edit. William Hendriksen, Carlisl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3, p. 18.

32) 요일 5:20 참조

33) 범신론(pantheism)은 자연과 신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하는 종교관 또는 철학관이다. 이는 우주 및 자연과 그의 법칙을 신이라 간주하여, 초월하는 인격신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말한다. 범신론에 의하면, 세계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신과 세계는 하나이며, 그 신은 제한적이다. 민중국어사전 및 Wiki. Encyclopedia.

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실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³⁴⁾

아울러 우리 지식의 제한적인 특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³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incomprehensive*)는 견해를 견지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단지 불완전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오직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John Calvin은 하나님 존재의 심오한 깊이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즉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신성은 모든 인류의 지각을 완전히 벗어난다”³⁶⁾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계시하신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다.

II. 하나님에 대한 지식

1. 알 수 있는 하나님

소위 ‘불가지론자들’ (*agnostics*)³⁷⁾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 근거로 부인되어왔

34) Geerhardus Johannes Vos, *Reformed Dogmatics: Theology Proper*, Vol. 1, trans. and ed. Richard B. Gaffin, Jr., Bellingham: Lexham Press, 2012, PP. 1, 2.

35) 마 11:25 참조

36) 여기에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William Hendriksen, p. 25, Geerhardus Vos, p. 1, Berkhof, p. 30 등을 참조할 것. Zwingli(1484-1531)에 따르면 “풍덩이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한다”라고 피력했다. “하나님은 정의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포괄할 수 없다”는 설명들은 모든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며, 그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상상, 언어를 무한히 초월한다고 가르쳤다.

37) ‘불가지론’(agnosticism)은 사람이 갖는 인식능력의 가정된 한계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적 현상의 범위 밖과 배후에 놓인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초감각적이고 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자’(agnostic)라 부르며, 이 명칭은 자신이 불가지론자였던 Huxley에 의해 최초로 붙여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한 불가지론자들은 다음과 같다. 불가지론의 아버지로 불린 Hume, Scotland의 철학자 William Hamilton 경, 실증주의(Positivism; 형이상학을 배격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정하려는 견해)의 아버지였던 Comte, 현대 과학적 불가지론의 대표적 인물인 Herbert Spencer 등이며, 그의 영향을 받았던 Huxley, Fiske, Clifford 등이 있다. 또한 현대 인본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가지론을 만나게 된다. 한 편 불가지론적인 논증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포함한다. 첫째로, 사람은 유추(類推, analogy;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것)에 의해서만 안다. 둘째로, 사람은 오직 전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진정으로 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서술들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넷째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알고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로 Karl Barth의 입장에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왔다. 즉 Zerbe는 실질적인 불가지론이 Barth의 사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하고, 그를 칸트적 불가지성의 희생자로 표현한다(*the Karl Barth Theology*, p. 82. 여기서 그는 “로마서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이다. ... 계시가 있는 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전보다 더 멀리 떠나가신다.”라는 Barth의 말을 인용한다.) Dickie는 말하기를, “Barth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알려질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또한 고백한다.³⁸⁾

이 두 개념은 교회에서 언제나 나란히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그 무한하심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해의 교제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지식은 진실하고 참된 지식이다.

먼저 John Calvin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다” 라고 말한다.

이 천부적인 재질(natural endowment)의 특성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상 타고난 본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특정한 지각을 심어 놓으셨다.³⁹⁾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내릴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 야만적인 민족은 없는 법이다.

또한 삶의 다른 국면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종교의 씨앗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사실 우상숭배가 이런 개념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보다는, 우상숭배, 즉 나무 조각이나 돌조각에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하는 사실이 신적 존재에 대한 가장 생생한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증거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⁴⁰⁾

2. 인간의 부패성

사람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각은 부분적으로 무지나 악의에 의해 질식하거나 부패되었다.

그의 설명에서 불가지론적인 냄새가 난다.” 고 말했다. 한편 Louis Berkhof는 “Barth가 ‘하나님께서 자기 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머물러계신다.’라고 말할 때, Barth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라고 언급한다. Louis Berkhof, pp. 30-34 참조

38) 이에 관한 중요한 성구들은 욥 11:7; 사 40:18; 요 17:3; 요일 5:20를 참조할 것.

39) John Calvin, p. 43. 여기서 Calvin의 말은 온전하고 선명한 신(神)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사용된 “Divinitatis sensum”와 “종교의 씨앗”(I. iv. 1 참조)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각을 의미하는데 적용되며, 양심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반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nst.* I. I. 3 및 요한복음 주해 1:5,9을 참조할 것. Calvin은 요 1:5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패한 인간 본성에 아직도 남겨진 빛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다음으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선천적 지각을 의미하는데, 이 지각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했을 때, 즉시 자발적으로 그 인식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성숙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달하는 씨앗이다.

40) *Ibid.*, p. 44.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은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으나, 이 씨앗을 소중히 키우거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되 한 사람도 없다.⁴¹⁾

이 세상에 참된 경건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부패의 구체적인 증거들로는:

첫째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⁴²⁾ 미신(superstition)을 섬기는 일,

둘째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오만하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격렬하게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등을 돌림(turning away from God)으로써,⁴³⁾ 자신의 변덕스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일(fashioning God),

셋째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들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위엄을 떨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장(hypocrisy)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괴하며, 방종에 빠지는 일 등이다.

어느 경우에도 뿌리째 뽑힐 수 없는 종교의 씨앗, 즉 신성에 관한 얼마간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스스로는 최악의 열매를 맺을 만큼 심히 부패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⁴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천적 지식(Cognitio Insta)과 계시를 통한 후천적 지식(Acquista), 즉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이 논리적이 구분인 아닌 이유는 엄격히 말하여 사람의 모든 지식은 후천적이기 때문이다.

3.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1) 선천적 지식

선천적/생득적 신지식에 관한 교리(the Doctrine of Innate Ideas)에 대한 기독교신학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신학은 선천적 신지식에 대한 개념을 거부한다.

첫째로, 이 개념은 신학적이거나보다는 철학적이다.

41) 시 1:3 참조

42) 롬 1:21하-23

43) 시 14:1, 53:1 참조

44) John Calvin, pp. 47-51, paraphrased.

이 개념의 근원은 Plato의 Ideas에서 발견되었고, Cicero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De Natura Deorum)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Descartes에 의해 최초로 가르쳐졌다.

둘째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하나님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히 말하고 있다.

사람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이러한 관념에 도달하게 되지만, 출생 시에 그 온전히 선명하고 확실한 신지식이 영혼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어거스틴의 입장에 의하면, 그는 이전 교부들의 견해에 본질적으로 동의한다.

넷째로,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도 선천적/생득적 신지식 관념을 거부한다.

다섯째로, 루터 역시 이 관념에서 진리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 후 루터파 신학자들도 이 극단적인 관념을 배격한다.

여섯째로, 칼빈과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관찰 능력으로 사람에게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된다.

따라서 선천적/생득적 신지식의 관념에 관한 교리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⁵⁾

기독교신학이 한목소리로 선천적/생득적 신지식 교리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신적 계시의 존재로 만듦으로써 합리주의/이성주의로 유도한다.

둘째로, 그것은 사람을 가시적인 세계의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 신비주의로 빠지게 한다.

셋째로, 그것은 육체와 물질적 우주의 중요성을 축소시켜버림으로써 성경과 충돌한다.

넷째로, 그것은 심리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영혼은 사실상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하지만, 자연과 성경에서 신지식을 얻는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⁴⁶⁾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⁴⁷⁾

다섯째로, 그것은 또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 역사는 도덕적, 종교적, 미(美)적 개념이 개인과 종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만일 이것이 선천적 신지식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후천적 지식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후천적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음과 동시에, 성령하나님 조명하심의 영향아래, 특별계시에서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45) Herman Bavinck, p. 48.

46) 롬 1:20a

47) 고전 13:12a

종교의 객관적인 요소인 계시와, 주관적인 요소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경에 계시된 만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부분적이지만, 그 지식은 참되고 진실한 지식이 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 파악하는 지식이 먼저 오게 되었다.

둘째로, 다른 내적 지식이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자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이신 구속주로서도 알 수 있게 된 지식이 그것이다.⁴⁸⁾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오직 신적 자기계시(divine self-revelation)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하는 사람에게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종교(기독교)는 이러한 지식을 필수적인 전제로 삼는다.⁴⁹⁾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마음가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⁵⁰⁾

둘째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며,⁵¹⁾

셋째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알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⁵²⁾

따라서 참된 지식을 얻고자 애쓰는 신앙은 결국 신학의 수준에 이르고, 선천적 지식은 후천적 신(神)지식 안에서 완성된다.⁵³⁾

4.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

John Calvin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대해 언급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마음에 갖는 사람은 단지 한가로운 사변으로 우롱하는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며, 그 본성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라고 역설한다.⁵⁴⁾

여기서 Calvin은 하나님의 지식을 단지 사변적으로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경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신뢰와 경외함, 즉 경건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을 옹계 지적하고 있다.

48) Ibid., pp. 70-71.

49) Louis Berkhof, p. 29. 스콜라주의 학자들(the Scholastics)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사람의 이성에게 의해서 일반계시로부터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50) 창 1:1

51) 히 11:6

52) 요 3:3

53) Herman Bavinck, p. 61.

54) John Calvin, *Institute*, vol. I, ch. II, art. 2, pp. 41. 여기서 Calvin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I. x. 2; III. ii. 6. 참조.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다.

‘경건’ (pietas; piety)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며, 이 경건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전제조건임을 John Calvin은 즐거이 강조한다.⁵⁵⁾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종교(기독교)를 탄생시키는 경건의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고, 그가 안내자요 보호자임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또한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님이자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적합하고 옳다고 여긴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의 사람이 죄로부터 자신을 억제하려 애쓰는 것은 비단 형벌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순수하고 참된 종교가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연합된 믿음이다. 이 두려움이 경외심을 포함하고, 율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행하도록 한다.⁵⁷⁾

[제3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I. 하나님의 성경적 이름 개관

1. 하나님 이름의 본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다. 이름이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표시로서,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나타내고, 또한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속성에 따른 호칭이다.

55) Ibid., p. 39. 또한 *Inst.* I. iv. 4를 참조할 것.

참고로 Calvin이 1537년 경건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기꺼이 도망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죄짓는 일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정에 있다.”

56) Ibid., p. 41.

57) Ibid., pp. 42-43.

그리고 이름과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는 특정한 관련이 있으며, 이 관련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이름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연관성도 임의대로 수립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수립되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이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뛰어나심과 일치한다.⁵⁸⁾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안에 계셨던 로고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그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므로, 오직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소유하며,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⁵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과 관련된 모든 유익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들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예수이며,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하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⁶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수놓아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얻는다.⁶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받는다.⁶²⁾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표요 인증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다 더 위대한 계시가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바, 그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때이다.⁶³⁾

2. 하나님 이름의 특성

하나님의 이름들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으며, 그 이름들이 모두 사

58) 그의 영광(시 8:1; 72:19), 그의 영예(레 18:21; 시 86:11; 102:15), 그의 구원의 능력(출 15:3; 사 47:4), 그를 섬김(사 56:6; 렘 33:22) 등이다.

59) 요 1:18; 요 17:6, 26; 마 11:27; 요일 2:23; 요 14:9

60) 마 1:21; 행 4:12

61) 행 4:7; 2:38; 요 1:12; 요일 5:13

62) 마 18:20; 요 14:13

63) 행 2:21; 계 3:12; 22:4, Herman Bavinck, pp. 84-85

람의 언어로부터 빌려왔고, 인간적이며 지상적인 관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름들은 의인화/인격화(anthropomorphic,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적이며, 사람을 향하
신 하나님의 정중한 접근의 표시이다.⁶⁴⁾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게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언어
는 사람의 언어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 또한 인간적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양은 인간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성경에는 단지 몇 개의 신인동형론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이와는 반대로 성경 전체가 신인동형론적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증
거한다. 하나님의 계시 전체는 육체가 되신 로고스에 집중되었는데, 이 계시는 단 하나의 사람,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창조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신 은혜 안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름들을 부르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이름들은 지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의 특성은 성경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적용된다.⁶⁵⁾

3.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계시
와, 피조물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이름은 임의대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예, 영광, 탁월하심, 계시, 신적 본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이름의 계시를 받은 사람마다 특권과 아울러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그 이름들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님께서 하나 또는 다른 관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이다.⁶⁶⁾

64) Louis Berkhof, p. 47.

65) 한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하여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료하
게 적용되어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속한 것과 연관된 것이면 무
엇이든지 하나님께 적용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적 감정은 결코 갖지 않으시나, 그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도 있다고 표현된다. 셋째로, 사람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 적용된다. 넷째로, 하나님은 자주 사람
들 사이의 어떤 직업, 직분, 신분, 관계를 알려주는 이름들로 묘사된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의 형상들이 피조물로부터 빌려온 명칭들과 비교되어 사용된다. 이상의
5개 항목들의 내용을 지원하는 약 140개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Herman Bavinck, pp. 86-89를 참조할
것.

66) 레 24:11, 16; 신 12:58 참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이름은 크고(겔 36:23), 거룩하며(겔 36:20), 지
존하며(시 111:9), 높은 산성이시며(시 20:2), 견고한 망대(잠 18:10)

그러므로 이스라엘, 즉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더럽히거나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⁶⁷⁾ 그와는 반대로, 택한 백성에 의해 그 이름이 불려지고, 전파되고, 창대하게 되고, 알려지고, 고백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기대되고, 찾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⁶⁸⁾

4. 구약성경의 하나님 이름들

☞ 다음 이름들은 지존하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탁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⁶⁹⁾

1) ‘엘’ (אֱל; El), ‘엘로힘’ (אֱלֹהִים; Elohim), ‘엘론’ (אֵלֹן; Elyon)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은 ‘엘’ (אֱל; El)이다.

이 단어는 아마도 ‘최초의, 주(主)’ 또는 ‘강하고 능력있음’ 을 의미하는 ‘울’ (אֱל; ul)에서 온 것 같다.

‘엘로힘’ (אֱלֹהִים; Elohim, 단수는 ‘엘로하’ (אֱלֹהָ; Eloah)은 아마도 같은 어근, ‘울’ (אֱל; ul) 또는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다’ 를 뜻하는 ‘알라’ (אֱלָה; alah)로부터 온 것 같다.

따라서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또는 두려움(경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엘론’ (אֵלֹן; Elyon)이라는 이름은 ‘올라가다,’ ‘높아지다’ 의 뜻을 가진 ‘알라’ (אֱלָה; alah)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숭고하고 존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나타낸다.⁷⁰⁾

이 이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특수한 고유의 이름들(nomina propria)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이름들이 우상들(시 95:3; 96:5), 사람들(창 33:10; 출 7:1), 통치자들/상전들(삿 5:8; 출 12:12; 21:5,6; 22:8-10; 레 19:32; 민 33:4; 시 58:1; 82:1)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은 썬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호칭된 이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점을 알려준다.⁷¹⁾

3) ‘아도나이’ (אֲדֹנָי; Adonai)

‘주(主, Lord)’ 라고 번역되는 이름, ‘아도나이’ (Adonai)는 “재판하다,” “지배하다” 를 뜻하는 ‘둔’ (דּוּן; dun), ‘딘’ (דִּין; din) 또는 ‘아단’ (אָדָן; adan)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통치자, 즉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사람을 종의 관계로 섬기게 하시는

67) 출 20:7; 레 18:21; 19:12, 24:11

68) 창 4:26; 12:8; 출 9:16; 신 28:58; 왕상 8:33; 시 5:12; 34:3; 52:9; 83:16; 122:4; 사 26:8; 마 6:9; 요 12:28 등, Herman Bavinck, pp. 83-84.

69) Louis Berkhof, p. 48.

70) 창 14:19,20; 민 24:16; 사 14:14

71) Herman Bavinck, pp. 99, 100.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이름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으나, 후기에는 ‘여호와’ (야웨)라는 이름으로 널리 바뀌게 되었다.

☞ 다음 이름들은 높임을 받으실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으로 임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사실을 가리킨다.⁷²⁾

1) ‘샤다이’ (שָׁדַי; Shadai) 또는 ‘엘 샤다이’ (אֱלֹהֵי שָׁדַי; El-Shadai)

‘שָׁדַי’ (Shadai)는 ‘능력이 있다’ 는 뜻을 가진 ‘שָׁדָד’ (Shadad)에서 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킨다.

또한 이 이름은 ‘주’ 를 의미하는 ‘שָׁדַד’ (Shad)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이름이 창조와 자연의 하나님을 뜻하는 ‘אֱלֹהִים’ (Elohim)과 중요한 점에서 다른 점은, 이 이름이 하나님을 모든 자연세력들을 굴복시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신적 은혜의 사역을 따르게 하시는 분으로 숙고한다는 점이다.

‘שָׁדַי’ (Shadai)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복과 위로의 근원으로 나타낸다.⁷³⁾

2) ‘야웨’ (יְהוָה; Yahweh)/ ‘야웨 처바오트’ (יְהוָה צְבָאוֹת; Yahweh Tsebhaoth)

(가) ‘야웨’ (יְהוָה; Yahweh):

이 특별한 이름은 초기의 이름들을 점진적으로 밀어내게 된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언제나 가장 신성하고, 가장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름, 즉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름으로 간주되어왔다.

유대인들은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⁷⁴⁾하면 정녕 죽일지니라.” 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녕 죽일지니라” 로 잘못 이해한 이후, 이 이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신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72) Louis Berkhof, p. 48.

73) Ibid., pp. 48-49. 이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름이다. 출 6:2 참조

74) 한글개역개정은 ‘모독하다.’ NASB는 ‘blasphemes.’ 맛소라 본문(Masoretic Text)을 바탕으로 한 Jewish Bible, <The Holy Scriptures> 또한 ‘blasphemeth’로 번역되었다. 한편 본문의 ‘훼방하면’에 해당하는 ‘כָּבַד’의 기본형: כָּבַד(naw-kab)는 ‘찌르다’, 문자적으로(‘구멍을 내다’, 다소 거세게), 또는 상징적으로(‘상술하다’, ‘지정하다’, ‘중상하다’):- 지명하다, 모독하다, 뚫다, 저주하다, 표현하다, 구멍뚫다, 명명하다, 찌르다, 꿰뚫다 등의 뜻을 갖는다. Strong’s References #5344 참조

82) 맛소라 학자들(the Masoretes)은 이 이름의 본래 자음들을 그대로 두었으나, 이 이름들, 즉 ‘아도나이’, ‘엘로힘’ 중의 한 모음들, 주로 ‘아도나이’의 모음들을 붙였다. 따라서 여호와(יְהוָה)가 된 듯하다. Louis Berkhof, p. 49.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야웨’ (Yahweh) 대신에 ‘אֲדֹנָי’ (Adonai) 또는 ‘אֱלֹהִים’ (Elohim)으로 읽었다.⁷⁵⁾

‘야웨’ (יהוה; Yahweh)의 의미는 출애굽기 3:14에 설명된 바와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e I am) 또는 “나는 스스로 있을 자” (I shall be what I shall be)가 된다.

따라서 이 이름은 해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불변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변성을 말한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고유한 이름이며,⁷⁶⁾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다.

(나) ‘처바오트’ (צְבָאוֹת; Tsebhaoth)

‘야웨’의 이름은 때때로 ‘처바오트’ (צְבָאוֹת; Tsebhaoth; 만군)가 덧붙여짐으로써 강화된다. 이 단어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는 3가지의 특별한 견해들이 있다. 즉

첫째로, 이스라엘의 군대들(the armies of Israel),

둘째로, 별들(the stars),

셋째로, 천사들(the angeles)의 개념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으로 선호되는 견해는 천사들의 개념이다. ‘

야웨 처바오트’ (צְבָאוֹת יְהוָה; Yahweh Tsebhaoth)라는 이름은 천사들이 언급되는 곳과 연관되어 발견된다.⁷⁷⁾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큰 군대로 반복하여 표시된다.⁷⁸⁾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천사 군대의 호위를 받으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천지를 다스리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다.⁷⁹⁾

5. 신약성경의 하나님 이름들

구약성경의 모든 이름들은 신약성경에 보존되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가장 충만한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이시다.

1) ‘데오스(Θ ε ος; 하나님)

‘엘’ (אֱל; El), ‘엘로힘’ (אֱלֹהִים; Elohim)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공통된 이름인 ‘데오스’ (Θ

76) 출 15:3; 시 83:19; 호 12:6; 사 42:8

77) 삼상 4:4; 삼하 6:2; 사 37:16; 호 12:4,5; 시 80:1,1f; 89:6-8

78) 창 28:12; 32:2; 수 5:14; 왕상 22:19; 시 68:17; 103:21; 148:2; 사 6:2

79) Louis Berkhof., pp. 49-50.

εός; Theos), 즉 ‘하나님’으로 표현되었다.

‘엘론’(עלון; Elyon)은 ‘웁시스토스 테오스’(ὕψιστος θεός),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the Most High)으로 번역되었다.⁸⁰⁾

‘샤다이’(שַׁדַּי; Shadai) 또는 ‘엘 샤다이’(אל שַׁדַּי; El-Shadai)는 ‘판트로크라토르(παντοκράτορ; Pantokrator) 또는 ‘θεός παντοκράτορ’(Theos Pantokrator;’⁸¹⁾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칭호역시 신약성경에 되풀이 되었다.⁸²⁾

2) ‘큐리오스(Kυριός; 主)

‘야웨’(יהוה; Yahweh)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수차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 설명되었다.⁸³⁾

그 외에 이 이름은 ‘아도나이’로 이미 해석한 70인경(LXX)을 따라, ‘κυριός’(kyrios; 권세, 능력)에서 파생된 ‘κυριός’(kyrios; 主)로 번역되었다. ‘

큐리오스’는, 실질적으로 권능을 소유하신 분, ‘δεσποτης’(데스포테스)와는 구별되게, 능하신 분, 주님, 소유주, 법적인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⁸⁴⁾

3) ‘파테르’(Πατήρ; Father)

이 이름은 신약성경에 새롭게 소개된 이름이며, 구약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⁸⁵⁾

또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⁸⁶⁾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드시는 특별한 신정(神政)적 관계(special theocratic relation)를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형성하셨다.

80) 막 5:7; 눅 1:32,35,76; 8:28; 행 7:48; 16:17; 히 7:1; cf. 눅 2:14(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81) the Almighty; All-Powerful; Omnipotent (One) only of God,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고후 6:18; 계 1:8; 4:8; 11:17; 15:3; 16:7,14; 19:6,15; 21:22 참조. F. Wilbur Gingrich, rev. Frederick W. Danker, *Lexicon of the Greek 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47.

82) Herman Bavinck, p. 109. 마 15:31; 22:32; 막 12:26; 눅 1:68; 20:37; 행 3:13; 7:32; 46; 22:14; 히 11:16

83) 계 1:4,8,17; 2:8; 21:6; 22:13

84) Herman Bavinck, p. 109.

85) 신 32:6; 시 103:13; 사 63:16; 64:8; 렘 3:4,19; 31:9; 말 1:6; 2:10

86) 출 4:22; 신 14:1; 32:19; 사 1:2; 렘 31:20; 호 1:10; 11:1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발생의 기원과 창조주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⁸⁷⁾

이제 신약에서의 ‘아버지’ 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 되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최상의 계시인데,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 전능자, 신실하신 분, 왕이시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그 백성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관계는 아버지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요, 사랑받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 현실화되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에서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⁸⁸⁾

따라서 ‘아버지’ 라는 이름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또는 중보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제1위라는 특별한 관계를 설명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들로서의 모든 믿는 자들과 윤리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⁸⁹⁾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엘로힘’ 안에 있었던 충만함이 점진적으로 드러나, 그 충만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제4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

I. 하나님의 속성 개관

1. 정의 및 용어 사용

하나님의 속성들을 정의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 본체에 대해 설명되었거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 섭리, 구속의 사역에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완전성’ 이라 말할 수 있다.⁹⁰⁾

‘하나님의 속성’ 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Louis Berkhof는 다음과 같이 옳게 지적하고 있다.⁹¹⁾

‘속성’ (attribute)이라는 용어가 이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 용어가 어떤 하나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부여한다는 개념을 갖게 되므로, 신적 존재하심에 무엇인가가 첨가된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87) 고전 8:6; 엘 3:15; 히 12:9; 약 1:18

88) Herman Bavinck, pp. 109, 110.

89) Louis Berkhof, 51.

90) Archibald Alexander Hodge, *Outlines of Theology*,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2. p. 150.

91) Louis Berkhof, p. 52.

의심할 나위 없이, ‘특성’ (property) 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나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속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명칭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무엇인가 덧붙여졌다는 관념을 엄격하게 배제해야한다는 뚜렷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할 때, 우리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심(perfection), 덕(virtues)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로, 성경의 용법을 따르며,⁹²⁾

셋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무엇인가 덧붙여졌다는 연상을 피한다. 하나님의 덕(virtue)은 그의 존재하심에 무엇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덕의 충만함이며,⁹³⁾ 그 가운데 그 자체를 계시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 속성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식을 얻는 적절한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적으로 이성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려고 시도한 가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⁴⁾

1) 스콜라주의자들 (the Scholastics)의 견해

그들은 자연신학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속성들을 결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했다.

이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의 일환으로서, 인과관계의 방법(via causalitatis; way of causality), 부정의 방법(via negationis; way of negation), 탁월성의 방법(via eminentiae; way of eminence)들이 그것이다.⁹⁵⁾

92) Ibid., 성경에 사용된 용어는 ‘ἀρετή’(arete)로서, 1) ‘탁월함’(moral excellence), ‘덕’(virtue) (벧전 2:9, 빌 4:8; 벧후 1:5), 2) 신적 능력의 찬양 또는 그에 대한 표현이다. 후자, 즉 신적 능력의 표현은 벧후 1:3이 해당된다. F. Wilbur Gingrich.

93) Ibid., ‘충만’(πλήρωμα; pleroma): 1) 내용물(들)을 채움 또는 무엇을 가득 채워지게 함 또는 완성함, 2) 무엇으로 충만함, 3) 충만함, 완전함, 풍요로움을 초래함, 4) 성취함 또는 성취, 5) 충만함의 상태 또는 충만한 시간의 상태 등을 의미한다.

94) Ibid., pp. 52, 53.

95) Ibid., p. 53. <인과관계의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제1원인으로, 도덕적인 사고에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관념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이다. <부정의 방법>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부정되며, 불완전함에 반대되는 완전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한다. <탁월함의 방법>은 피조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완성들을 가장 우수한 양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들은 또한 현대 경험신학(modern representative of experimental

이 방법의 특징은 알려진 사람, 즉 피조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분,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한 것인데, 자연신학에서는 추구되었지만, 계시신학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성경을 도외시한 이 방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정설로 채택할 수는 없다.

2) Ritschl의 견해

Ritschl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개념을 갖고 출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사상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관념에는 사랑이 인격적이므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상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성을 긍정하게 된다.

이 방법들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의 방법들은 그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이성적 사고와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일부러 성경에 나타난 명료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무시하고, 사람이 시도하는 하나님 발견 사상을 드높인다. 그런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시인하는 ‘과학적 방법들’에 따라 귀납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과장된 생각에 젖어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눈을 감아버린다.

3) 성경적 방법

신적 속성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바른 길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지혜와 선하심의 얼마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속성들까지의 충분한 개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시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존재의 속성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 즉 사람이 오로지 받아들여 전유하게 되는 지식을 사람에게 전해주신다.⁹⁶⁾

3. 하나님의 속성 분류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류하는 일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을 끌어왔으며, 그 결과 몇 개의 분류법이 제안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두 종류로 구분되며, 모든 분류법들에는 이의들 (objections)이 있음을 유의할 일이다.⁹⁷⁾

theology)의 대표주자들 가운데 하나인 Macintosh의 저서 *Theology as an Empirical Science*, p. 159ff에서도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96) Ibid., pp. 53, 54.

1)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전자는 자존성, 단순성, 무한성과 같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구별된 타고난 본성에 속한다.

후자는 진리, 선, 공흠, 정의, 거룩 등과 같이 하나님을 도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 분류법에 대한 이의로는 소위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자연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이 분류에 있어서의 전자는 하나님 자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과 같은 속성들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된 신적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편재성, 전지성 등의 속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분류법은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한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으며, 따라서 올바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은 상대적이며, 하나님은 세계와 관계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3) 내재적 속성과 자동적 속성, 그리고 유출적 속성과 타동적 속성

전자는 신적 본질의 외적인 것에 작용하지 않고 내재적으로 남아있는 무한성, 단순성, 영원성들과 같은 것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외적인 것들을 산출하는 전능하심, 공흠하심, 하나님의 공의 등과 같은 것이다. 이 분류법에 대한 이의로는, 만약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순수하게 내재적이라면, 그들에 대한 모든 지식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4)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분류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자존성, 단순성, 무한성 등과 같이 피조물과는 전혀 유사한(analogous) 것이 없는 속성들이며, 후자는 인간 영혼의 특성들과 어떤 유사점을 갖는 권능, 선하심, 공흠하심, 의로우심과 같은 속성들이다. 이 분류는 개혁주의 계통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왔다.⁹⁸⁾

97) Ibid., p. 55.

98) Ibid., 여기에 속한 개혁신학자들로는 Vos, Kuyper, Bavinck, Shedd, Dick, Berkhof 등이다. 한편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Hodges(Charles and A.A.), H.B. Smith, Thronwell 등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제시된 분류를 따르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소요리문답 제4문이 이에 해당되리라고 본다. 그 문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요 4:24, 시 90:2, 말 3:6, 약 1:17, 왕상 8:27, 렘 23:24, 사 40:22, 시

비공유적 속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실유)를 강조하는 반면, 공유적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과 더불어 여러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사실을 강조한다.⁹⁹⁾

III.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논의하지 않는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신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기독교신앙에 의해 고백되고,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리에서 다루어지게 된다.¹⁰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또는 불가전달적 속성)이라고도 부른다. 이 속성은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며, 사람에게에는 없는 속성을 말한다.

‘절대자’¹⁰¹⁾라는 용어는 원래 순수철학(형이상학)적 용어이며,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거에 대한 명칭이다.

절대자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하시는 분(the Unconditioned or Self-existent),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하시는 분(the Unrelated),

모든 불완전으로부터 자유하시는 분(the Perfect),

모든 물질과 정신, 존재(실유)와 속성, 주체와 대상, 외관과 실제 등과 같은 모든 현상적 차이 또는 구별로부터 자유하시는 분(the Real or Ultimate Reality)으로 인정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스스로 충족(self-sufficient)하시기¹⁰²⁾ 때문에, 어떤 필수적인 관계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여러 관계를 맺으실 수 있다.¹⁰³⁾

1. 하나님의 자존성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립적(independent)인 존재와 생명을 소유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자유하신 고유의 존재이시며, 고유하신 ‘본성, 본체, 본질’을 가지시되, 자신의 덕(virtues)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덕과 완전함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147:5, 롬 16:27, 창 17:1, 계 19:6, 사 57:15, 요 17:11, 계 4:8, 신 32:4, 시 100:5, 롬 2:4, 출 34:6, 시 117:2, 출 3:14, 시 145:3)

99) Berkhof, P. 58.

100) Herman Bavinck, p. 113.

101) ‘절대자’는 라틴어, ab(~로부터)와 solvere(늦추다, 풀다)의 합성어 absolutus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조건에 대한 자유나 제한,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102) 욥 22:2; 시 50:19ff; 행 17:25

103) Louis Berkhof, P. 57, 58.

신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고유한 이름들을 소유하신다.

이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여호와’ (야웨; 나는 스스로 있는자)¹⁰⁴⁾라는 이름이다. 교부들은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로 ‘여호와’ 라는 이름에서 출발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탁월한 본질적 이름이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한 분으로, 자신의 백성과 관련하여 영원히 동일하게 계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확신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신학자들이 주로 ‘여호와’ 라는 이름에서 출발한 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독립성(independence)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내게 되었다.¹⁰⁵⁾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¹⁰⁶⁾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며, 그의 존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말씀은 덕과 행위, 사상, 의지, 능력, 계획 등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¹⁰⁷⁾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그 안에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독립적¹⁰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신다.¹⁰⁹⁾

자존성(aseity)은 하나님의 실재하시는 자율성을 표현하는데 반하여, 독립성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모든 것, 즉 존재하심, 덕, 작정, 사역들에 있어서 독자적이라는 사실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존성을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을 절대적 존재, 즉 절대적 의미에서의 존재로 알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며, 처음이자 나중이시며,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시자, 궁극적 목적이 되신다.¹¹⁰⁾

104) 출 3:14,15

105) Herman Bavinck, p. 142.

106) 출 3:14

107) 이와 비교하여 사람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108)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스스로 시작하는’(self-originated)을 뜻하는 ‘자존성’(aseitas, 참고로 ‘aseitat’는 ‘자신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에 메이지 않는’ 등을 의미함; Gerhard Schwing, *Theological Dictionary: German: Latin*)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나중에 이 단어를 ‘독립성’(independentia; independence)으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Being; 실유)에서 독립적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모든 점(하나님의 덕, 작정, 사역 등)에서도 독립적이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Louis Berkhof, p. 58.

109)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보다 확장된 설명은 시 33:11; 94:8; 115:3; 사 40:18; 단 4:35; 요 5:26; 행 7:25; 롬 9:19; 11:33,34; 엡 1:5; 계 4:11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10) Herman Bavinck, pp. 144, 45.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자존성’이라는 용어가 ‘독립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더욱 강력하게 표면에 부각되었다.

2.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자존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불변성(immutability)을 포함한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불변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후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미 수납되었다.¹¹¹⁾

1) 이 진리의 반론에 대한 평가

이 진리는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 소시누스주의(Socinianism), 아르미니안주의(Reonstrantism; Arminianism)와 합리주의(rationalism)에 의해 부분적으로 부인된 것이 발견된다.

그들은 특히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의 불변성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에게 종속시키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변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영지주의와 범신론(Gnostic & Pantheism)¹¹²⁾에 의해 전면적으로 거부당했다. 그러한 반대의 공통점은 생성의 관념이 하나님에게 적용되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점이다. 그들의 근본 사상은 단 한 가지,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생성된다는 것이다(God is not, but eternally becomes.)

그러나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¹¹³⁾

첫째로, 성경은 이 불변성 교리를 극히 명료하게 가르친다.¹¹⁴⁾

둘째로, 하나님의 위격(Godhead)이라는 특별한 관념에는 ‘변화’라는 여지가 전무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되실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변적이시라면, 그는 영원하시거나, 전지하실 수 없다.

2) 존재와 생성의 대비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는 최상의 기독교적 의미를 갖는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점은 존재(being)와 생성(becoming)의 대비(對比; contrast)에 놓여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피조물은 생성되어가는 중에 있다. 피조물은 가변적이며, 끊임없이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는데, 오직 생성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이신 창조주 안에서만 그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

111) Ibid., p. 146, 47.

112) Fichte, Hegel, Schleiermacher, Schopenhauer, Von Hartmann 등이 이에 해당된다.

113) Herman Bavinck, p. 147.

114) 신 32:4,15,18,30,31,37; 삼상 2:2; 삼하 22:3,32; 시 19:14; 31:2; 62:2,6; 73:26; 약 1:17하 등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반석이라 불린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나 지식이나 의지에서 변화하지 않으신다.

한편 성경은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적(anthropomorphic, 의인화적) 어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비록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¹¹⁵⁾이 계속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위에 변화가 있고, 사람에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결코 변화가 없다.¹¹⁶⁾

3) 불변성과 부동성의 차이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변적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비활동적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적 불변성(immutability)을 부동성(immobility) 또는 비활동성(inactivity)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변화하는 활동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Charles Hodges는 옳게 지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과, 완성하시는 것들과, 목적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불변적이심을 알고 있으며, 또한 영속적으로 활동적이심을 알고 있다. 따라서 활동성과 불변성은 반드시 서로 함께 하되, 전자(불변성)와 일치하지 않는 후자(활동성)의 설명은 인정받지 못한다.”¹¹⁷⁾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본질과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 사이에는 크나큰 격차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의 수준에 내려오실 수 있으며, 비록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모든 피조물 안에 내주하실 수 있으며,¹¹⁸⁾ 자신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주실 수 있다.¹¹⁹⁾

또한 자신의 불변성을 절대적으로 유지하시면서도, 자신의 피조물들과의 무한대의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속적인 활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적 위대함이다.¹²⁰⁾

3.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영원성과(eternity) 편재성(omnipresence; immensity)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불변성이 시간에 적용될 때 영원성, 공간에 적용될 때 편재성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명칭으로 요약된다.¹²¹⁾

115)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에 대해서는 본 교재 각주 74의 설명을 참조할 것

116) Herman Bavinck, p. 149.

117)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p. 391.

118) 제3위 성령하나님의 내주하심

119) 제2위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 대표적인 예다.

120) Herman Bavinck, p. 147, 151.

121) Ibid., p. 152. 하나님의 무한성에 있어서, “무한한”(infinite)이라는 용어의 의미들을 은 다음과 같다.

이 신적 속성인 무한성 역시 하나님의 자존성에 포함된 속성으로서,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이다. 이 속성을 하나님께 적용하여 돌릴 때, 우리는 신적 존재(실유)나 속성에 어떤 제한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한다. 하나님은 우주나, 시공적 세계(time-space world)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거나, 우주에 국한되지 않으신다.¹²²⁾

하나님의 무한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Absolute perfection)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유한한 피조물의 제한을 뛰어넘어 높임을 받는’ 의 뜻이다.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 하시다, 즉 시간의 제한을 뛰어 넘으신다.

둘째로, ‘편재’ 하신다, 즉 공간의 제한을 뛰어 넘으신다.¹²³⁾

James Orr¹²⁴⁾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성이란 궁극적으로, (a) 내면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모든 제한과 결함이 없는 것이며, (b)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⁵⁾

따라서 신적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의 무한성과 일치함을 말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를 의미한다.¹²⁶⁾

2)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에 적용된 하나님의 무한성이 하나님의 영원성(eternity)이다. 성경은 영원성을 시작과 끝이 없는 기간(duration), 즉 끝이 없는 세대들의 연속을 통한 기간으로 설명한다.¹²⁷⁾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앞과 뒤로 무한히 연장된 기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은 실제로 시간을 초월한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성은 모든 시간적

(1) ‘해방된,’ ‘무한의,’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제한의’의 뜻이라는 견해(Neo-Platonism, Spinoza), (2) ‘어떤 것 또는 모든 것이 될 역량이 있는’의 뜻이라는 견해(Hegel) 그러나 이 견해들은 잘못된 견해들이다. 하나님의 무한성(infinitude)은 절대적이지 완전하게 모든 덕(virtue)을 소유하시며, 양적이지 아니라 질적(qualitative)이며, 광대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intensive)이며, 소극적이지 아니라 적극적(positive)이다.

122) 시 145:3; 왕상 8:27

123) Herman Bavinck, p. 152,

124) James Orr(1844-1913) 박사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로서, Glasgow에 있는 The United Free Church College에서 변증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매우 존경받는 복음주의적 대학 강사로서 가르쳤다. Orr 박사는 그의 주요 변증학 작업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더불어, 근본주의(1909-1915)를 위해 그가 공헌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기독교 교리의 전성기에 역사적 정통교리의 용맹스러운 옹호자로 활동했다.

125) James Orr, *Sidelights on Christian Doctrine*, P. 26 quot. in Louis Berkhof, p. 60.

126) 욥 11:7-10; 시 145:3; 마 5:48 등의 성경적 증거를 참조할 것

127) Herman Bavinck, 154. 시 90:2; 102:12; 엡 3:21 참조

제한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들의 존재는 일, 주, 월, 년에 의해 표시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애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지만, 하나님의 생애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신다(I am).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제한들과, 모든 순간들의 연속보다 높여지시거나, 그의 존재 전부를 분할할 수 없는 현재에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다.

한편 Louis Berkhof는 영원성의 난해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함으로써 옳게 지적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영원성의 관계는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며,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아마도 풀 수 없는 난제에 해당될 것이다.¹²⁸⁾

3) 하나님의 무량성 및 편재성

하나님의 무량성(immensity)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적인 제한들을 초월하시며, 자신의 존재(실유) 전체로 공간의 각 부분에 임재하시는 신적 존재의 완전성’ 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신적 존재에 대한 모든 공간의 제한을 부인하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간보다 위에 계시며, 공간의 각 부분을 하나님의 존재 전체로 채우시는 것이다.¹²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실재하는 것들은 절대적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며,¹³⁰⁾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로 하늘과 땅을 채우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해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심과 동시에 멀리 초월하여 계신다.¹³¹⁾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적용된 용어, ‘무량성’(immensity)과 ‘편재성’(omnipresence)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동의어로 간주된다.

128) Louis Berkhof, p. 60.

129) Ibid., PP. 60,61.

130) 창 14:19,22; 신 10:14

131)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다른 관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다신론, 영지주의, 마니교(3세기에 번영한 페르시아의 이방종교) 등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인한다. (2) 초대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의지(will)의 편재성만을 수납했다. (3) 알미니안주의는 통상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 보이기를 거절한다. (4) 이신론(Deism)은 하나님을 하늘에만 국한시킨다. (5) 어거스틴과 다른 사람들은 공간이란 피조물들에 속한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초월하심과 더불어, 공간 안에서의 내재성, 즉 빛이 공간에 발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모든 공간을 자신의 전 존재(whole of His being)로 채우신다고 가르친다. (6) 후기 신학자들, 즉 로마가톨릭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에 공감하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주의 깊게 유의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1) 무량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 모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2)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로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신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에 내주(indwelling)하시지만, 그들에 의해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¹³²⁾ 하나님의 편재성은 성경에 명료하게 계시되어 있다. 즉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채우시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¹³³⁾

4.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The Unity of God)은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혼성된 분이 아니시며, 분할할 수 없는 한 분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삼위 또한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수적인 유일성인 단수성(the unity of singularity; unitas singularitatis)과, 질적 유일성인 단순성(the unity of simplicity; unitas simpliciteris)으로 나뉜다.

1) 단수성

하나님의 단수성(the unity of singularity; unitas singularitatis)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의 신적 본질이 있을 뿐이며, 그 본질로 인하여 복수의 신적 존재가 있을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에게서(of) 나오고, 그를 통하여(through), 그에게로(to)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¹³⁴⁾ 하나님의 이 단수성의 속성은 성경에서 거듭하여 선포되었다.¹³⁵⁾ 구약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신론적(一神論的; monotheistic)이다. 일신론은 구약성경의 후기에 기록된 부분뿐만 아니라, 초기 기록부분에서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¹³⁶⁾ 온 땅의 소유주요 심판자이시며,¹³⁷⁾ 유일한 주님으로서 자신의 앞에 있는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¹³⁸⁾

132)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성격은 피조물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 같이 땅에, 또는 사람 안에 내주하심같이 동물 안에, 또는 경건한 사람 안에 계심 같이 악한 자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심같이 교회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중에 내주하시는 방식이나,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량에는 끝없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편재성 교리는 죄악이 공간적(spatially)으로서가 아닌, 영적으로(spiritually),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133) 왕상 8:27; 사 66:1; 행 7:48,49; 시 139:7-10; 렘 23:23,24; 행 17:27,28을 볼 것

134) Herman Bavinck, p. 165.

135) 출 15:11; 왕상 8:6; 속 14:9; 고전 8:6; 딤후 1:5; 신 6:4

136) 창 1,2장

137) 창 14:9,22; 18:25

138) 신 6:4; 출 20:3

자신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¹³⁹⁾ 이방신들은 우상이요 신이 아니며, 죽은 신이요, 거짓과 속임수이며, 하나님(Elohim)이 아니라 가치 없는 우상들(Elilim¹⁴⁰⁾)이며, 우상으로 숭배되는 악하고 유해한 존재로 간주되었다.¹⁴¹⁾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단수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더 명료하게 계시되었다.¹⁴²⁾

기독교회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이방세계에 등장한 이래, 지식인들, 다신론자들, 철학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심각한 투쟁을 벌였다.

교회의 대변자들은 교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다신론과 그 외의 모든 것들¹⁴³⁾을 공격했다. 그들은 신앙고백을 강력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단수성을 증명하고, 성경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선포된 진리에 대한 논증을 세상으로부터 도출해냈다. 수세기에 걸친 힘겨운 투쟁에서 결국 다신론은 정복되었다. 그러나 다신론적 사상들과 관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거듭 새롭게 수용되고 있으며, 근세에 들어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약화되고 약화된다면 온갖 형태의 미신과 우상숭배로 되돌아 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하나님의 단수성에 대한 고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¹⁴⁴⁾

2) 단순성

하나님의 단수성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반면, 하나님의 단순성(the unity of simplicity; unitas simlicitatis)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내면적인 품질적 유일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 말할 때는 단순한 상태, 품질, 즉 나눌 수 없으므로 복합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순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삼위가 신적본질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성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속성은 그의 본질에 첨가된 것이 아니라 점, 즉 본질과 속성은 하나라는 점을 말해준다.¹⁴⁵⁾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어떤 것도 합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은 자신의 존재(실유; being)와 동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단순성은 단순한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다.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¹⁴⁶⁾

139) 신 4:35; 32:39; 시 18:31; 83:18; 사 43:10; 44:6; 45:5 등

140) 신 32:21; 시 96:5; 사 41:29; 44:9,20; 렘 2:5,11; 10:15; 16:19; 51:17,18; 단 5:23; 합 2:19 등

141) 시 106:37; 고전 10:20

142) 요 17:3; 행 17:24; 롬 3:30; 고전 8:5,6; 엡 4:5,6; 딤후 2:5

143) 다신론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은 귀신숭배, 미신, 점술, 마술, 인간의 신격화, 황제숭배, 극장들과 게임 등이다. Bavinck, p. 167.

144) Herman Bavinck, pp. 166-67

145) Louis Berkhof, p. 62.

146) 렘 10:10; 23:6; 요 1:4,5,9; 14:6; 도전 1:30; 요일 1:5; 4:8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 생명, 사랑 등으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신적 관념 속에서 다른 속성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단순성은 합성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함유하지 않은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처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로 합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완전성, 단일성, 자존성, 불변성은 지켜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 되실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속성들도 그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aseity; 자존성), 하나님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보존해야한다.

따라서 지혜, 은혜, 사랑 등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¹⁴⁷⁾

IV.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강조하는데 비해서, 공유적 속성들(the Communicable Attributes)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인간의 속성들과 유사점을 갖고 있는 속성들이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속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완전하심과 비교하면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

언어의 가장 최고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식적이며(conscious), 지성적이며(intelligent), 자주적이며(free), 도덕적인(moral) 존재, 즉 인격적인 존재이심이 공유적 속성에서 잘 드러난다.

성경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입증한다. 신구약성경의 기자들에 의해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인 임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고난에서 돌보시고, 구원과 승리의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되어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인격적인 계시이다.¹⁴⁸⁾

1. 하나님의 영성(영적 본성)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으며, 다만 묘사할(describe; 설명) 뿐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정의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¹⁴⁹⁾라는 그리스도

147) Herman Bavinck, p. 170.

148)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는 참으로 완전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요 14:9).

149) 요 4:24

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 한 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어떤 영(a spirit)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Hi is Spirit)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며,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은 물질이 아니며, 무형, 비합성, 불멸의 비물질적 실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 감각기관으로 의식하여 깨달을 수 없으며, 물질적 요소들 또는 신체적 부분들로 구성되지 않았고, 물질적 존재의 제한을 받거나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성은 성경의 선언과 증거, 유신논증 등을 통해 입증된다.¹⁵⁰⁾

1) 하나님의 불가견성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불가견성(invisibility; invisibilitas)이 뒤따른다.

성경은 하나님의 불가견성을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다.¹⁵¹⁾ 따라서 기독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가르쳤다.¹⁵²⁾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피조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God’s essence)을 통해 자신의 실체, 또는 본질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¹⁵³⁾ 그와 같은 본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¹⁵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족장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하나님 뵈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구름이나, 기적들, 어떤 특정한 모습 등의 수단을 통해서만 일어났다고 했다. 교부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신자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자주 말했으나, 본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성경을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고전 13:12).

루터와 신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¹⁵⁵⁾ ‘본질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

150) 박형룡,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p. 124.

151) Ibid., p. 126.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때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외면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사람에게 보여주심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불가견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다음을 참조할 것. 딤후 6:16; 요 1:18; 5:37; 6:46; 골 1:15; 요일 4:12, 출 33:20,23; 출 24:9,10; 신 4:12,15; 단 7:9,13; 계 4:3; 5:7.

152) 많은 학자들 가운데 Irenaeus, *Adversus haereses*, II, 6; IV, 20. Origenes, *Contra Celsum*, VII, 33ff. Augustine, *De civitate Dei*, XXII, 29.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 qu. 12, art. 3, ad 3. 등이 포함된다.

153) 이 질문은 Scholastics(스콜라주의자들)이 제기한 질문이었다.

154) 이러한 특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오직 잠시 동안만, 모세(출 34장), 이사야(사 6장), 바울(고후 12장)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다. Augustine, *Epistolae*, 112.

는 것' 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영광의 상태(the state of glory; status gloriae)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불가해성(God's incomprehensibility)교리와 충돌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을 신격화(deification of man)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¹⁵⁶⁾

2.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의식(consciousness)과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들은 하나님 지식(全知; omniscience), 지혜(wisdom), 진실성(veracity)으로 나뉜다.

1) 하나님의 지식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과, 가능적(possible)이며 실제적(actual)인 모든 사물들을 아시되, 하나의 영원하고 가장 단순한 행동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다.”¹⁵⁷⁾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순전한 빛이시며,¹⁵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¹⁵⁹⁾ 자연과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다.¹⁶⁰⁾ 이 ‘빛’이라는 명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의식하시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보시고, 그 존재 안에서 그의 의식이 알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¹⁶¹⁾

155) 예를 들면, Irenaeus, *Adversus haereses*, IV, 20. Clemens Alexandrinus, *Stromata*, V, c. 1. Augustine, *De civitate Dei*, XXII, 29 등이다.

156) Herman Bavinck, p. 180-81. 로마 가톨릭 신학에 의하면, 사람은 초자연적 은사에 의해, 자신의 공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초월하여 더 높은 단계로 높여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사실상 다른 존재, 즉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의 상태가 얼마나 높던 간에, 사람은 거기서도 여전히 사람으로 머문다. 사람이 자기 본성의 등급을 뛰어넘어 높아질지라도 자신 또는 비슷한 대상을 초월하지는 못한다. 마 11:27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다.

157) Louis Berkhof, p. 66.

158) 요일 1:5

159) 딤후 6:16

160) 시 4:6; 27:1; 36:9; 43:3; 요 1:4,9; 8:12; 약 1:17

161) 하나님의 지식은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적인 지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사물에 대해 가지시는 지식, 즉 그의 전능성의 의식에 근거하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신적 의지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인 지식(necessary knowledge)이라 불린다. 또한 어떤 신적 의지에 수반된 행동(concurrent action)이 없는 순전한 신적 지성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성의 지식(the knowledge of simple intelligence)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자유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1) 하나님 지식의 특성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이 갖는 지식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이다(archetypal; original; example).

이 지식은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아시며, 모든 사물들을 아시는 완전성을 말하고, 외부로부터가 아닌 하나님 안에 고유하게 있는 지식을 말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논증적이거나 추론적이지 않고 직관적(intuitive)이다.

즉 관찰이나 추리의 과정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본유적이며(innate)적이며 직접적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지기 때문에, 동시적이며 연속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물들을 그들의 전체(totality)로 보시며, 차례대로 살피시지 않는다.¹⁶²⁾

넷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의식하시고 아신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인간적으로 묘사될지라도,¹⁶³⁾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철저히 거부된다.¹⁶⁴⁾

(2) 하나님 지식의 전지성(全知性)

하나님의 지식은 그 방식의 여러 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면에서 완전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포괄적(全包括的; all-comprehensive)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지성(全知性; omniscience)이라 부른다.¹⁶⁵⁾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⁶⁾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내적 지식)

둘째로, 하나님은 만물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며, 그들의 실제 관계를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모든 사물들, 즉 과거에 존재했고(existed), 지금도 존재하며(exist), 앞으로도 존재할(will exist) 사물들에 대해 갖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포괄적이며 불변적인 영원한 목적의 무한한 지식에 근거하고, 신적 의지의 수반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유적 지식이라 불리며, 이 지식은 통찰의 지식(scientia visionis)이라고 불린다. Louis Berkhof, pp. 67-68.

162) 이에 반하여 사람의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이며, 때로는 분명하지 않으며, 의식적(conscious)이지 못할 때도 있다.

163) 창 3:9ff; 11:5; 18:21

164) Herman Bavinck, p. 183

165)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성경은, 삼상 2:3; 욥 12:13; 시 94:9; 147:4; 사 29:15; 40:27,28 등을 참조할 것

166) Louis Berkhof, pp. 67-68.

하나님의 전지성에 관한 성경은 욥 37:16; 삼상 16:7; 대상 28:9,17; 시 139:14; 렘 17:10; 신 2:7; 욥 23:10; 24:23; 31:4; 시 1:6; 33:13; 37:18; 119:168 등을 참조할 것

하나님은 생명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만을 관찰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의 지식이 꿰뚫을 수 없는 사물들의 숨겨진 본질을 아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가능한 것들까지 다 아신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여, 하나님께 있어서 예지(豫知; foreknowledge; praescientia)란 언급될 수가 없다.¹⁶⁷⁾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고,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보신다.

Augustine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미래의 일들에 관한 지식 외에 무엇이 예지인가? 그러나 모든 시간의 측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미래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의 지식이 이 모든 일들을 안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해야 한다.”¹⁶⁸⁾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현재의 일들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든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예지 (foreknowledge), 통찰의 지식(knowledge of vision; 예를 들면 현재의), 기억 (reminiscence)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에 불과하다.¹⁶⁹⁾

2)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갖게 되는 명칭이다. 지식과 지혜는 같지 않으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언제나 서로 함께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의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어떤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¹⁷⁰⁾ 한편 Berkhof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적용시키는 그의 완전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식과 지혜는 각각 다른 능력에 기초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¹⁷¹⁾

(1)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으나, 지혜는 통찰을 통해 얻는다.

(2) 지식은 추론을 통한 것이며, 지혜는 직관을 통한 것이다.

(3) 지식은 이론적이며, 올바른 삶의 기술인데 반해, 지혜는 실천적이며, 목적론적이다.

167) Herman Bavinck, p. 189

168) Ibid., quot from Augustine, *De diversis quaestionibus ad Simplicianum*, II, 2.

169) Ibid.

170) Ibid., p. 195.

171) Ibid.

(4) 지식은 의지와는 상관없는 마음의 일이며, 지혜는 의지를 도와주는 마음의 일이다.

(5) 지식은 서양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고, 지혜는 동양에서 탁월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은 인간의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지혜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서 뚜렷이 나타나며, 지혜서, 즉 잠언에서 표현된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지혜는 다음의 사역에 나타난다.¹⁷²⁾ 즉

(1) 창조

(2) 구속 (십자가의 미련함)

(3) 이스라엘과 이방인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제2차적 목적들이 종속되는 궁극적인 목적들을 모두 포함하며, 성경에 의하면,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¹⁷³⁾

3)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성’ (veracity)은 ‘진리’ (truth), ‘신실함’ (faithfulness), ‘신뢰’ (trustworthiness)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⁴⁾

성경은 ‘진실’을 하나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며, 즉 ‘본체, 즉 자체에서의 진실,’ ‘표현, 즉, 말에서의 진실,’ ‘지식, 즉 지성에서의 진실,’ 즉,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적 진실’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3중의미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¹⁷⁵⁾

(1) 형이상학적 의미

하나님은 그 안에 신격이 관념이 완전히 나타나 있으므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의미에서 진실하시다. 진실한 사람은 그 안에 인격의 요소가 충분히 실현된 사람임과 같이, 하나님은 그 안에 신격이 포함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며,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공허하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신다.¹⁷⁶⁾

(2) 윤리적 의미

하나님은 윤리적(ethical)의미에서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시니,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신의 속성들을 외적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성품에 조화롭게 하신다.¹⁷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은 우리의 지식이 향상되어도 불신임될 수 없다. 사람의 지식은 폐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폐하지 않는다.¹⁷⁸⁾

172) 하나님 지혜의 증명은 (1) 인격화: 잠 8장, (2) 창조: 시 19:1-7; 104:1-34; (3) 섭리: 시 33:10,11; 롬 8:28; (4) 구속: 롬 11:33; 고전 2:7; 엡 3:10 등을 참조할 것

173) Louis Berkhof, p. 69.

174) 출 34:6; 민 23:19; 신 32:4; 시 25:10; 31:6; 렘 10:8,10,11; 요 14:6; 17:3; 딤후 1:2; 히 6:18; 요일 5:20,21

175) 박형룡, p. 143-45.

176) 시 96:5; 97:7; 115:4-8; 사 44:9,10

177) 민 23:19; 롬 3:4; 히 6:18

(3) 논리적 의미

하나님은 사물을 그 실상대로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실 때, 사람이 사물의 외적 모양뿐만 아니라 그 실상까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논리적(logical) 진실성은:

첫째, 우리의 마음의 능력은 정상상태에서 우리를 속이지 않으며,

둘째, 사상의 법칙들은 또한 사물의 법칙이며,

셋째, 동일한 원인들은 동일한 결과들을 산출하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성은 모든 지식의 기초이다.

‘진실(진리)’에 대한 위의 세 가지 의미가 다를지라도, 그 의미들은 동일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진실의 서로 다른 면들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속성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거짓 신들 위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며, 윤리적 속성을 하나님께 돌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자신의 존재에 부합함을 의미하며, 논리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실제 그대로 알고 계심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제일의 진실, 본래의 진리, 모든 진리의 근원,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토대가 되시고, 모든 규정과 법률의 이상이시며, 원형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아는 근원과 기원이 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며, 모든 영혼의 태양이시다.¹⁷⁹⁾ 그러므로, “오 진리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진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하여만 참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르짖게 된다.¹⁸⁰⁾

3.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은 선하심(goodness)과, 거룩하심(holiness)과, 의로우심(righteousness)의 3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영광스런 신적 완전성으로 간주되며, 사람에게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 하나님의 선(善)하심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때, 그 선은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에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되셔야만 할 모든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완전한 선(goodness)이 되신다.¹⁸¹⁾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은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되고, 여러 다양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generic)개념의 속성이다.

178) 사 40:8; 마 5:18

179) Herman Bavinck, p. 201-02

180) Ibid., quot from Augustine, *Soliloquies*, I, 1.

18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젊은 관원에게, “하나님 한 분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막 10:18).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백성을 향하여 인자하심(lovingkindness; steadfast love)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자비하심(mercy; compassion; 또는 긍휼)이라 부른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참고 용서하심으로 나타나는 선하심은 오래 참으심(longsuffering; 또는 관용)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직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grace; 또는 은총)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한 사랑(love)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동일하며, 하나님 자신처럼 독립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자신의 기원을 갖고 있으며, 피조물들을 거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고선(至高善; the highest good; summum bonum)이 되신다.

2) 하나님의 거룩(聖)하심

(1) 거룩하심의 의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무한한 위엄으로 그들을 초월하시는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קדש’ (qadash)는 ‘자르다,’를 뜻하는 어근 ‘קד’ (qad)에서 나왔다. 이 어근의 원래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또는 ‘분리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로써, 신약에서는 ἁγιαζω(hagiazō) ἅγιος(hagios)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또는 사물)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나 관계에 관한 개념이다.¹⁸²⁾

(2) 거룩하심의 성경적 개념과 특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이중적이다.

첫째는, 본래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에 있어서 그들보다 높으시다는 개념을 갖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장 중심적이고 최상의 완전함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불린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며,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차이는 거룩함의 개념에 의해 설명된다.

이에 대한 매우 명료한 성경구절은 사무엘상 2:2이다. 즉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이다.¹⁸³⁾

182) Louis Berkhof, p. 73.

183) 동시에 출 15:11; 삼상 6:20을 참조할 것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합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의 최상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자신을 아시며, 추구하시며, 사랑하신다. 또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에 따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따르는 피조물을 구별시키신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되다” 라는 뜻이다.¹⁸⁴⁾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성별”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동의어인 것처럼 쓰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이나 민족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성별)하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별에 은혜가 뒤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복(至福)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고선(至高善)으로 추구하시고 사랑하시며,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에게 성별되게 하심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 합당한 선(善; goodness)과 온전한 섬김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라 설명할 수 있다.¹⁸⁵⁾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에게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실에서 그 절정(絶頂)이 명료하게 드러난다.¹⁸⁶⁾

3) 하나님의 의로우심(義)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거룩하심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속성이며, 엄격히 율법과 밀착되어 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

(1) 의로우심의 개념

‘의로움’에 해당되는 구약의 단어들은 ‘צדק’ (chedeq; 의로움), ‘חַדִּיק’ (chudaqha; 공의), ‘חַדִּיק’ (chadiq; 의로운)이며, 신약에서는 ‘δικαίος’ (dikaios)와 ‘δικαιοσύνη’ (dikaiosune)를 사용한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어떤 표준에 들어맞는다는 일치(conformity)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 용어들은 원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올바른 상태를 가리키며, 일차적으로 법정적인 개념을 갖는다. 특히 ‘חַדִּיק’ (chadiq; 의로운)는 재판소송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석방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184) Geerhardus Vos, p. 26.

185) Ibid., pp. 26-27. 이에 관하여 Louis Berkhof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의도(will)하시고 유지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도덕적 피조물들에게서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한다. p. 74.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의 두 가지 개념을 위엄적(威嚴的) 거룩하심과 윤리적 거룩하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시 22:4; 33:21; 103; 호 11:8; 사 43:14 등과 비교할 것

186) Herman Bavinck, p. 221.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재판소송으로 법정에 서지 않아도 옳은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 사람은 정당성을 갖고, 의롭고 선하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 용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적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초월하여 존재하는 법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 법이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곧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한 법이 있으니, 이 법이 다른 모든 법들이 판단을 받아야 할 최고의 실현가능한 표준(possible standard)이 된다.¹⁸⁷⁾

(2) 의로우심의 두 가지 면

이 속성은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로 구분된다.

첫째로, 절대적인 의는 내면적 의(justitia interna)라 불린다.

하나님 존재하심의 자연적 성질에 비추어,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무한히 의로우신 신적 본성의 정직하신(rectitude) 의를 가리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배자로 나타나신다.

둘째로, 상대적인 의는 외면적 의(justitia externa)라 불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모든 불경스러움에 대해 자신을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킨다.¹⁸⁸⁾ ‘하나님의 공의’ (公義;(the Justice of God))라는 용어는 후자의 의(義)에 특별히 더 적용된다.

공의는 각 사람을 선악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다루시는 데서, 즉 사람의 공과(功過; deserts)에 따라 다루시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루시며 계시하시는 의의 기초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 라 불리는 후자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3)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구분

하나님의 상대적 의, 즉 공의에는 정직의 공의(rectoral justice)와 분배적 공의(distributive justice)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주님으로서는 정직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세계의 심판의 주님으로서는 분배적 공의를 나타내신다.

(a) 정직의 공의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배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정직성(rectitude)이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효력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에 도덕적인 정치를 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율법을 명령하시되 권선징악¹⁸⁹⁾의 조건으로 하셨다.

187)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하나님의 이 완전성에 관한 성경은 스 9:15; 느 9:8; 시 119:137; 145:17; 행 12:1; 애 1:18; 단 9:14; 요 17:25; 담후 4:8; 요일 2:29; 3:7; 계 16:5를 참조할 것. 아울러 창 30:33; 38:26; 삼상 24:18; 시 15:2를 참조할 것

188) 시 7:12; 행 17:31 참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약속하시고, 범죄자에게는 형벌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의 공의로운 법을 제정하셨다.¹⁹⁰⁾ 하나님의 정직의 공의는 분배적 공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배적 공의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상과 형벌의 분배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¹⁹¹⁾

(b) 분배적 공의

(ㄱ) 보상적 공의

이 보상적 공의(remunerative justice) 공의는 그 대상이 사람과 천사이며, 보상을 분배해 주는 데서 나타나는 공의이다.¹⁹²⁾ 이 공의는 절대적 공로가 아닌,¹⁹³⁾ 약속과 언약에 기초하여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¹⁹⁴⁾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약관계에서부터 나오며, 은혜롭다.

(ㄴ) 보복적 공의

보복적 공의(retributive justice)는 형벌(penalties)을 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신적 진노(divine wrath)의 표현이다. 죄가 없는 세계에서는 이 공의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죄가 가득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필수적으로 매우 뛰어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악한 자의 형벌보다는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의인의 보상 못지않게, 악인의 형벌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⁹⁵⁾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사람은 받고 있는 상급에 대해 받을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에게 미치는 형벌은 마땅히 받을 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적 공의는 본래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악(wickedness)을 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선(goodness)을 필연적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한다.¹⁹⁶⁾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시는 원래 목적은 의(right)와 공의(justice)를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는데 있다.¹⁹⁷⁾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사법적 공의(judicial justice)를 포함해야 하며, 한 편으로는 보상적 공의(remunerative)와 다른 면으로는 보복적 공의(retributive)가 되어야 한다.

189) 상선벌악(賞善罰惡)으로도 말하며,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며,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190) 이에 대한 성경구절은 신 4:8; 시 99:4; 사 33:22; 롬 1:32; 약 4:12을 볼 것

191) 사 3:10,11; 롬 2:6; 뱀전 1:17

192) 신 7:9,12,13; 대하 6:15; 시 58:11, 미 7:20; 마 25:21,34; 롬 2:7; 히 11:26

193)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절대적인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194) 눅 17:10; 고전 4:7

195) 롬 1:32; 2:9; 12:19; 살후 1:8 등

196) 눅 17:10; 고전 4:7; 욥 41:11

197) Louis Berkhof, pp. 75-76. 하나님께서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은 그를 개심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방지하는 것은 부차적, 또는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피조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세우신 공의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공의를 실현하라.” (Let justice be done though the world perish.) 라는 표어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이 구원받도록 공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¹⁹⁸⁾

4.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이 항목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들, 즉 주권적 속성들(the Attributes of Sovereignty)을 고려하는 항목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만물의 주인이시오, 소유주이시며,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다. 하나님의 의지(will)가 항상 어디서나 결정을 내린다. 성경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¹⁹⁹⁾ 아울러 신구약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의지(will)가 영원하고, 불변하며, 독립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끔 언급된 것이 아니라, 성경전체가 이를 증거한다.²⁰⁰⁾

A. A. Hodge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배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이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거하고 있다.” 라고 정의한다.²⁰¹⁾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나뉜다.

1)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1) 성경적 개념

198) Herman Bavinck, p. 223, quot. from Irenaeus, *Adversus haereses*, III, 25, IV, 39ff, Tertullianus, *Adversus Marcionem*, passim. Origenes, *De Principiis*, II, 5, 3, etc..

199)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 가운데 다음을 참조할 것. 창 14:19; 출 18:11; 신 10:14,17; 대상 29:11,12; 대하 20:6; 느 9:6; 시 22:23; 47:2,3,7,8; 50:10-12; 95:3-5; 115:3; 135:5,6; 145:11-13; 렘 27:5; 눅 1:53; 행 17:24-26; 계 19:6

200) 예를 들면, 시 33:11; 115:3; 단 4:25,35; 사 46:10; 마 11:26; 롬 9:18; 엡 1:4; 계 4:11 등이다.

201) 이 권리는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다. 단 4:25,35; 롬 9:15-23; 딤후 6:15; 계 4:11 참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 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구약의 단어는 ‘הפז׳ (hapez), ‘כ׳ (cheb), ‘רצון׳ (rachon)이며, 신약에서는 ‘βουλή (boule), ‘θέλημα (delema)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들의 궁극적 원인으로 표시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래되었다.²⁰²⁾

한편 하나님께 적용된 ‘의지’ (will)가 뜻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즉 사랑, 거룩, 의 등이다.

둘째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능력, 즉 자아결정(self-determination)의 기능이다.

셋째로, 이 의지에 의한 결과, 즉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목적이다.

넷째로, 이 계획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능력

다섯째로, 이성적 피조물(사람)을 위해 제정된 삶의 규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결정 기능으로서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2) 정의

하나님의 의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행동으로 지고선이신 자신을 가장 기뻐하시며, 자신의 이름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나아가시며, 피조물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존재의 완전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과 관련하여 인과관계(causation)의 넓은 개념을 담고 있다.²⁰³⁾

(3) 하나님 의지의 구분

하나님의 의지는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²⁰⁴⁾

(a) 작정적(decretive) 의지, 교훈적(preceptive) 의지

첫째로, 작정적 의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거나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언제나 성취된다.

둘째로, 교훈적 의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덕적 피조물들)을 위해 제정하신 생활의 규범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신 의무들이다.

202)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래된 것들은 창조하심과 보존하심(시 135:6; 렘 18:6; 계 4:11) 다스리심(잠 21:1, 단 4:35), 선택과 유기(reprobation: 롬 9:15,16; 엡 1:11), 그리스도의 고난(눅 22:42; 행 2:23), 중생(약 1:18), 성화(빌 2:13), 신자들의 고난(벧전 3:17), 사람의 삶과 운명(행 18:21; 롬 15:32; 약 4:15), 생명의 가장 작은 것(마 10:29)들을 포함한다.

203) Ibid.

204) Ibid., pp. 76-78.

(b) 하시려는(eudokia) 의지, 하계하시려는(eurestia) 의지

전자는 무엇을 스스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 구분은 무엇을 행하는(to do) 목적과 관련된 것보다는, 행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즐거움이나, 행해진 어떤 것을 보려는 지극한 마음과 관련이 있다. 하시려는 의지는 앞의 걱정적 의지와 같이 확실히 행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하계하시려는 의지는 교훈적 의지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는 것을 포함한다.

(C) 숨겨진 의지, 나타난 의지

이 구분도 걱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의 구분과 일치한다. 전자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나 사건 자체에 의해서 그의 의지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계시된 의지는 어떤 것이든 나타난 의지가 되는 것이다.

(D) 은밀한 의지, 계시된 의지

이 구분은 가장 통상적인 구분이다. 전자는 대부분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의 작정의 의지이며, 후자는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교훈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는 하나님이 실행하시거나 허락하시려는 모든 만물들과 관계되어 있으며,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한편 계시된 의지는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복들을 즐거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²⁰⁵⁾

(4)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인 의지(necessary will; voluntas necessaria)와 자유적인 의지(free will; voluntas libera)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은 필연적인 의지의 대상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거룩하신 본성, 신격 안에 있는 인격적인 구분들을 필연적으로 의지하신다(意志; will).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완전성을 숙고(contemplation)하시며 매우 기뻐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하시지 않고(under no compulsion),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의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최고의 자유이다.

205) 이 구별은 신 29:29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는 시 115:3; 단 4:17,25,32,35; 롬 9:18,19; 11:33,34; 엡 1:5,9,11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된 의지는 신 30:14; 마 7:21; 12:50; 요 4:34; 7:17; 롬 10:8; 12:2에 기록되어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대상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의적으로 창조하실 사물, 그리고 사람과 그들의 삶의 시간 및 장소들, 또한 환경들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지정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신다.²⁰⁶⁾

한편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자유가 절대적 무분별(absolute indifference)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는 이성적인 하나님의 자아결정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의지에 대해 두드러진 이유와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와 동기를 알 수 없다.²⁰⁷⁾

(5) 하나님의 의지와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지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난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개혁주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⁰⁸⁾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decretive will)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 모순된다고 의문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문제를 알미니안주의자들(Arminians)은 죄를 허용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예지에 의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Reformed Theologians)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는 사람의 죄악도 포함되지만,²⁰⁹⁾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는 다만 죄를 허용하실 뿐, 죄를 수행하시는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환언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항상 밝히 비쥬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righteousness)은 변함없이 높이 드러난다.²¹⁰⁾

206)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관한 성구: 욥 11:10; 33:13; 시 115:3; 잠 21:1; 사 10:15; 29:16; 45:9; 마 20:15; 롬 9:15-18,20,21; 고전 12:11; 계 4:11

207) Berkhof, p. 78. quot. from Bavinck, p. 241. Bavinck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일을 다른 일보다 더 의도하셨는가를 거의 분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깊은 어떤 일들의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렇게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피조물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찾게 되고, 비본질적인 특성을 훔치고, 그것을 필수적이며, 영원적이며, 신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208) Ibid., pp. 78-79.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Herman Bavinck, pp. 238-42를 참조할 것.

209) 행 2:23; 3:18 등에 근거함

210) 고전 1:18-25 Bavinck, p. 241.

2)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1) 주권적 능력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will)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omnipotence)과,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시는 능력(power)²¹¹⁾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가르치며,²¹²⁾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외부로 유효하게 나타내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²¹³⁾

(2) 하나님의 능력의 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 능력(absolute power of God; potentia Dei absoluta)과 질서적 능력(ordered power of God; potentia Dei ordinata)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능력은 제2의 원인들(second causes)의 간섭(intervention)이 없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능력이며, 질서적 능력은 제2의 원인들이 질서 있는 작용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능력이다.²¹⁴⁾

또한 달리 표현하면,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려고 의도하시지는 않지만, 능히 행해질 수 있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즉 그가 실행되도록 정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들은 구분된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이며 동일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질서적 능력은 거의 절대적 능력의 한 부분이다.”²¹⁵⁾

211) Berkhof, p. 79. Berkhof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은 하나님 성품의 효과적인 능력으로 불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최고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성이라 불릴 수 있다.”고 피력한다.

212) 출 33:20; 신 7:21ff; 사 1:24; 렘 32:18; 엡 9:4; 36:5; 시 24:8; 주: 마 11:25; 계 1:8; 22:5; 통치의 왕: 출 15:18; 왕하 19:15; 시 29:10; 93-99편; 렘 10:7,10,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왕: 민 23:21; 신 33:5; 삿 8:23; 삼상 8:7; 시 10:16; 24:7; 48:2; 74:12; 사 33:22; 41:21; 43:15, 신약에서 큰 임금: 마 5:33; 딤후 1:17;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딤후 8:15; 계 19:16, 전능자: 고후 6:18; 계 1:8; 4:8; 11:17, 홀로 한 분이신 능한 분: 딤후 6:15,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 마 28:18; 롬 9:21; 마 6:13; 롬 1:20 등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난 전능하심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다.

213) Geerhardus Vos, p. 36.

214) Ibid., p. 80, quot. Hodge, *Sys. Theo.* I, p. 410f, Shedd, *Dogm. Theo.*, I p. 362f.

215) Ibid., quot. Charnock, *Existence and Attribute of God*, II, p. 12. cf. Herman Bavinck, *Gerf. Dogm. II - the Doctrine of God*, p. 243, Abraham Kuyper, *Dict. Dorm., De Deo* I. p. 412f.

(2)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

첫째로, 하나님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power)은 하나님의 본질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Augustin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소유와 존재하심은 동일한 실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수행하실 수 있는 방식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심과 그 능력을 동시에 가지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지와 행위를 동시에 갖으시기 때문이다. 216)

둘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²¹⁷⁾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Augustine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¹⁸⁾

정의(righteousness)는 불의(unjust)한 것을 원할 수 없고, 지혜(wisdom)는 어리석은(foolish) 것을 원할 수 없고, 진리(truth)는 거짓(false)을 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도가 기록한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속으실 수 없고, 피조되실 수 없고, 정복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참되고 완전한 전능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미 발생한 일을 취소하실 수 없다. Augustine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이 표현은 발생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발생한 사실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않고, 취소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이 표현은 발생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 가운데서 취소함으로써, 이 사실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참되지 않은 것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이다.

216) Quot. Augustine, 'Tractatus 20,' in *in Evangelium Ioanis*, n. 4, Idem, *Confessiones*, XI, 10:XII, 15.

217) 딤후 2:13 참조

218) Herman Bavinck, p. 244. quot. Augustine, *Sermones*, 214.

[제5장] 기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the doctrine of the trinity)는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전체의 심장이다.²¹⁹⁾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의 독특한 계시의 진리이다. 이 교리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자연종교에 기초한 세계의 모든 이방종교들과, 철학적 사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차별화된 표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신·구약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이다. 하나님의 내면적 본질에 관한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벽히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 알 수 있을 뿐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유한한 사람마음의 이해 건너편에 있는 신비에 해당된다. 인간 이성중심의 종교적 신념과 철학적 사상 가운데서는 이 교리의 참된 설명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자인 Philip Melancth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외하는 것이 낫다.”²²⁰⁾

1. 삼위일체의 정의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삼위일체(the Trin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삼위로 계신다.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2) 소요리문답 6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2.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기독교 신학과 학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삶 전체와 연관시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 모든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도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기독교의 사고와 사유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²²¹⁾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성들을 일깨워준다.²²²⁾

219) Ibid., p. 333.

220) 박형룡, p. 186.

Philip Melancthon(1497-1560)은 Philipp Schwartzertdt에서 태어난 독일의 신학자였다.

Martin Luther와 동역자였고, 종교개혁자로서 최초의 조직신학자였다. 그는 루터파 종교개혁의 지도자였고, 교육 시스템의 영향력 있는 창안자였다. 그는 종교개혁자요, 신학자로서 Luther와 Calvin 다음에 위치한 인물로 간주된다.

221) 롬 11:36

1)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일깨워준다.

교부들은 이미 삼위일체가 이신론(deism),²²³⁾ 범신론(pantheism), 일원론(一元論; monism),²²⁴⁾ 다신론에 포함된 오류를 배격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고, 서로의 연관성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추상적 존재로 격하시킨 종교의 죽음에 해당된다.

범신론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하게 만들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하심을 부인하여 종교를 훼손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아울러, 그의 본질의 영광스런 풍성함을 유지시킨다.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하심, ‘본질의 대양(大洋)’이 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존재이시며, 분명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시다. 단순히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산출하시는(Ever-Living-Producing)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존재의 충만함이 되시며, 참된 생명이시며,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심을 알려준다.

2) 창조에 있어서의 교리의 중요성

삼위일체 교리는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창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서만 주장될 수 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 이신론에 맞서서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연관성을, 다른 면으로는 범신론과 맞서서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구별을 주장할 수 있다.

우주는 단순한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창조가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자기발전의 사역도 아니다. 창조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어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내적 생성과정의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 진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성자의 발생(generation)과 성령의 발출(procession)을 가르친다. 분명하게 말하여, 이 두 가지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내재적 관계들이며, 후자의 창조는 외적 사역이다. 전자는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심이며, 하나님은 후자인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비록 우주를 떠나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며, 복이 되시며, 영광이시다.

222) Herman Bavinck, pp. 330-34.

223) 섭리하시는 인격적 신을 부인하는 종교적 사상으로 기적, 계시 등을 믿지 않는다.

224) 오직 한 가지 종(一種)의 실체(물질 또는 정신)를 인정하는 철학이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경우, 정신과 신체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론(二元論)인데 반하여,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를 실체의 표리(表裏)로 생각했으므로 일원론에 해당된다. 이 단어는 볼프에게서 처음으로 나왔다. Wikipedia: Merriam-Webster

3) 기독교 진리의 핵심교리

삼위일체 교리(the doctrine of the trinity)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파괴하고, 특별계시의 모든 것을 제거하게 되고 만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요 실질적 내용이며, 모든 교리의 뿌리이며, 새언약의 진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이고 종교적인 필요로부터 교회적 삼위일체 진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관심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이나,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닌,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기독교의 모든 고백과 교의학에서의 가장 심오한 질문은 이것이다. 즉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한 셋이 가능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지는가에 따라, 다른 진리들의 순수함의 진가가 제시될 수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본 항목의 초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전체의 심장이다. 장차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 구약에 어렴풋이 준비된 이 교리의 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간구원의 재창조 사역은 특성상 삼위일체적이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구원 사역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며, 3중적으로 구분된다. 즉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에 의해 성취된다.²²⁵⁾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과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 특히 우리 내부에서 깨닫는 것으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²²⁶⁾

우리는 성장에 의해 구속되고, 성령을 통한 두 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²²⁷⁾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은 우리 신앙고백의 요약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교리의 중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삼위일체 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조명이다.
- (2) 삼위일체 교리는 인본주의 신학과 비교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구성한다.
- (3)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전반²²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4) 삼위일체 교리는 특별계시의 교리로서, 독특한 계시의 진리이다.
- (5)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다른 표지이다

225) 고후 15:13

226) 벨직 신앙고백서 9조(1561)의 고백

227) 롬 8:16

228) 신학전반이란, 조직신학을 포함하여,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모든 신학분야를 가리킨다.

- (6)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으며, 인간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계시이다.
- (7) 삼위일체 교리는 구속적 진리의 열쇠가 된다.
- (8) 삼위일체 교리는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다.
- (9)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진리의 핵심교리이다.

3.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 발전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 넘기에, 학자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실례를 들어 밝히거나 추론을 통해서 논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1) 종교개혁 이전시대

(1) 4세기 이전시대

4세기 이전에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 회로 계승되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후 4세기 전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었고, 교리상의 발전을 거듭하는 상태였다. 당시 비록 형식은 불충분했으나, “삼위일체 (Trinity)”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형식화 한 최초의 신학자는 Tertullian²²⁹⁾이었다.

4세기 이전에 삼위일체(the Trinity) 교리를 난관에 부딪치게 한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교리사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종속설(從屬說)

Origen²³⁰⁾은 성자가 성부에게 본질적으로 종속되고(subordinated), 성령은 성자에게도 종속된다고 가르쳤다. 그의 이 가르침은 신격의 신성의 의의(意義)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b) 아리우스의 주장

Arians(아리우스파)²³¹⁾는 성자가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이라 주장하여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229) Tertullian(AD 155?~230?; 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은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이다.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라틴어 문체는 중세교회 라틴어의 표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Tertullian은 교회사상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했고, 라틴어 신학 용어 982개를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의 제일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이다.

230) Origen(Origenes; Ὀριγενες, 185? - 254?) 은 Alexandria파를 대표하는 교부이다. 오리겐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변증적 기독교 사상가에 해당된다. 신학 체계가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이단과 논쟁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회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231) Arians(아리우스파)는 이집트 Alexandria 출신의 Arius(256?-336)가 주장한 이단적 기독교 신학 학파이다. 그는 성자(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며,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삼위일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삼위가 동등하다는 동질성(consubstantiality)을 희생시키게 되었고, 삼위가 등급으로 구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Arians(아리우스파)는 일위신론(Monarchianism)을 주장했다. 즉 다음과 같이 동력적(Dynamic) 일위신론과 형태적(Modalistic) 일위신론이 그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력적(Dynamic) 일위신론은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에 불과한 존재로 보며, 성령을 신적인 감화(a divine influence)로만 보는 견해이다.

둘째로, 형태적(Modalistic) 일위신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신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세 가지 형태의 표현방식(modes)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c) 삼신론

어떤 사람들은 일위신론을 지나쳐 삼신론(三神論; Tritheism)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삼신론은 세 인격의 세 하나님이라는 이론을 말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통일성(단일성; unity)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²³²⁾

(2) 4세기 이후시대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에 의해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4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니케아 회의

니케아공의회(the Council of Nicea; 381 A.D.)에서는 성자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일체(co-essential)임을 선언했다.

(2) 콘스탄티노플 회의

콘스탄티노플회의(the Council of Constantinople; 381 A.D.)에서는 동일하게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삼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한다는 것이 공적으로 언급되었다.

체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의 신학적 흐름을 Arianism(아리우스주의)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이단으로 배격되었고, 아리우스파에게 공식적인 파문을 선언한 니케아신경이 채택되었다.

232) 일성론자(단성론자; Monophysite)들 가운데 John Ascanages와 John Philoponus, 그리고 중세기의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을 신봉한 Roselinus 등이 이와 같은 잘못에 빠졌다. 한편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의 하나이다. 중세 초기부터 보편(普遍)과 개체(個體)의 관계에 대해 실념론(實念論, Realism)과 유명론(Nominalism)의 대결에서 나온 용어이다.

(3)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교리

동방교회에서는 다메섹의 요한의 저서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나,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었다는 종속(subordination)의 요소를 보존했다.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대작, <삼위일체에 관하여>(De Trinitate)에서 또한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종속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했다.

2) 종교개혁 이후시대

종교개혁 이후시대(the Post-Reformation Period)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잘못된 의미를 포함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²³³⁾

Hegel은 “성부는 그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성자는 그 자신을 구체화(객관화)하신 하나님이며, 성령은 그 자신에게로 복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Schleiermacher는 삼위를 하나님의 3가지의 다른 면으로 생각했다.

즉 성부는 만물의 기초적인 유일성이신 하나님, 성자는 사람 안에 있는 의식적인 인격에 이르는 하나님, 성령은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Socinians(소시너스파)는 Arians(아리안파)의 노선을 따랐으나, 그리스도를 하나의 사람으로,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했다.

Unitarians(유니테리안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교사라 부르며, 성령을 내재적인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선구자였다.

Emil Brunner와 Karl Barth는 신정통주의자들로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흥미를 약화시켜 신학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한다.

특히 Barth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자(성부)이며, 계시(성자)이며, 계시하는 것(성령)이 되신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며, 계시이시며, 계시의 내용이다. 즉 하나님과 계시는 동일시되는 것이다.²³⁴⁾

이상의 여러 견해들은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

삼위일체 교리는 이성이나 경험만의 근거위에서 알려진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이다.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은 철학적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사실들을 반영한 것이다.”²³⁵⁾

233) Louis Berkhof, p. 83. 신격의 유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종속교리를 부활시켜, 성부가 다른 위격들보다 순서(order), 위엄, 능력 면에서 더 탁월하다고 주장한 자들은 Arminian인 Episcopius, Curcellaeus, Limborgh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주장한 Samuel Clarke(영국), Kahnis(루터파 신학자) 등이 있다.

234) Ibid., p. 83-84. quot. Karl Barth,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 344.

235) Delitzsch, “Old Testament History of Redemption,” p. 178. quot. 박홍룡, p. 193.

1) 구약성경의 증거

삼위일체 계시는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계시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의 견해들이 있어왔다.

첫째는, 어떤 교부들과 후기 신학자들이 계시의 역사적 성격, 즉 계시의 점진성(the progressive Character)을 무시하고, 삼위일체 계시가 구약성경에 완전히 계시된 것처럼 가르쳤다.

이와는 반대로, 삼위일체 계시가 구약성경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²³⁶⁾ 비록 삼위일체적인 실재를 어렵듯이 알려준다 해도, 구약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가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가르치는 최초의 책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단지 몇 개의 분리된 본문에서만 아니라, 구약전체의 유기적 계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삼위인격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삼위일체에 관한 증거들을 Herman Bavinck는 다음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²³⁷⁾

(1) 엘로힘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

Herman Bavinck는 말하기를, “엘로힘(אלהים; Elohim)이라는 이름은 복수형으로서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이름이 신성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드러난다. 엘로힘은 자신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창조하신다” 라고 지적한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능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²³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하나님과는 구별되어 그 후 지혜로 인격화되었다.²³⁹⁾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영원부터 소유하시고, 세우시고, 살펴보셨고, 그를 통해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그러나 창조와 보존의 사역은 말씀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도 수립되었다.²⁴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은 중보자이시며, 자신의 영을 통해 피조물에 내재하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만물의 기원과 지속적 생존이 삼중적 원인(a threefold cause)에서 비롯된 사실이 창조에 나타나 있음을 가르친다.

236) 후자는 Socinians, Arminians과 Semier, Herder, Doederlein, Bretschneider, Hofmann 등의 학자들이다.

237) Herman Bavinck, p. 255-63.

238) 창 1:3; 시 33:6,9; 147:18; 148:8; 욥 2:11

239) 욥 28:23-27; 잠 8:2ff; 비교 잠 3:19; 렘 10:12; 51:15

240) 창 1:2; 시 33:6; 104:33; 139:7; 욥 26:13; 27:3; 32:8; 33:4; 사 40:7,13; 59:19

(2) 여호와(야웨)와, 말씀과, 여호와와 사자

Herman Bavinck는, “구약성경에서 삼중적 원인은 특별계시의 영역, 재창조의 사역에서 더 나타난다. 여호와(יהוה; Yahweh)는 언약과 맹세의 하나님, 계시와 역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적한다.²⁴¹⁾ 따라서 구원 계시의 말씀의 전달자는 ‘여호와와 사자,’ 즉 ‘언약의 사자’이다. ‘여호와와 사자’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임재하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천사가 비록 ‘여호와’와는 구별되지만, 그의 이름, 능력, 구원, 복, 경배와 영광에 있어서 ‘여호와’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John Calvin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제하에 옳게 설명하기를, 그 천사가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⁴²⁾ 그 천사는 식물을 먹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한다(삿 13:16). 이 사실은 그가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점을 입증한다(삿 13:20). 그리고 Calvin은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의 물음에,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삿 13:18)라는 천사의 대답이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⁴³⁾ 이 주제는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지를 얻는다.²⁴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와 사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시듯이,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역에서 모든 생명과 구원, 모든 은사들과 능력의 원리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용기, 육체적 힘, 기술과 재능, 통치력, 지성과 지혜, 거룩함과 갱신, 예언과 예고 등의 원리가 되신다.²⁴⁵⁾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방식으로 메시아에게 머무시고, 그 후에 모든 육체 위에 부어져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²⁴⁶⁾

이와 같이 구약성경 전체 계시의 모든 경륜을 포함하는 삼중적 신적 원리(threefold divine principle)가 하나님의 삼위인격의 요소들을 잘 보여주며, 삼위일체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241) Herman Bavinck, p. 256.

242) 삿 6:11,12,20,21,22; 7:5,9 참조

243) John Calvin, *Institutes*, vol. 1, chp. 13, art. 10, p. 132-33.

244) 욥 33:23; 시 34:7; 35:5; 잠 8:22ff; 30:4; 사 9:6; 호 12:4,5; 미 5:6; 스펀 1:8-14; 3:1ff; 12:8; 말 3:1; 요 8:56,58; 비교 요 1:1-5; 고전 10:4-9, 또한 행 7:30,35,38; 갈 3:19; 히 2:2 등도 이러한 해석과 부합한다.

245) 삿 3:1; 6:34; 14:6; 출 28:3; 민 11:17; 욥 32:8; yl 51:12; als 11:25;

246) 사 11:2; 욥 2:28,29; 겔 36:26,27

2) 신약성경의 증거

구약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the Trinity) 개념들은 신약성경에서 더욱 발전하여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여호와와 아들과 성령

‘여호와’ 라는 명칭이 구약에서 택한 백성들의 구속주와 구세주로 설명²⁴⁷⁾되는 반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명칭이 신약에서 그 기능으로 쓰인다.²⁴⁸⁾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는 분²⁴⁹⁾으로 설명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을 교회에 거주하시는 분²⁵⁰⁾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약성경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동시에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²⁵¹⁾

(2)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성경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삼위가 서로 다른 인격들로 묘사된다는 점이며, 동시에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첫째, 성부(the Father)께서는 성자(the Son)에게 말씀하신다.²⁵²⁾

둘째, 성자는 성부와 교제하신다.²⁵³⁾

셋째,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²⁵⁴⁾

넷째, 삼위는 1,2,3인칭 대명사로 서로 말씀하신다.²⁵⁵⁾

다섯째, 삼위는 서로 사랑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²⁵⁶⁾

여섯째,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신다.²⁵⁷⁾

일곱째, 성부는 성자를,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신다.²⁵⁸⁾

247) 욥 19:25; 시 19:14; 78:35; 106:21; 사 41:14; 43:3,11,14; 47:4; 49:7,26; 60:16; 렘 14:3; 50:14; 호 13:3

248) 마 1:21; 눅 1:76-79; 2:17; 요 4:42; 항 5:3; 갈 3: 13; 4:5; 빌 3:30; 딤후 2:13,14

249) 시 74:2; 135:21; 사 8:18; 57:15; 겔 43: 7-9; 욥 3:17,21; 숙 2:10,11

250) 행 2:4; 롬 8:9,11; 고전 3:16; 갈 4:6; 엡 2:22; 약 4:5

251) 1)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요 3:16; 갈 4:4; 히 1:6; 요일 4:9를, 2)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계시는 요 14:26; 15:26; 16:7; 갈 4:6을 볼 것

252) 막 1:11; 눅 3:22

253) 요 11:41; 12:27,28

254) 롬 8:26

255) 마 17:5; 요 17:1; 16:13,28

256) 요 3:35; 15:10; 16:14

257) 요 17:5; 14:16

258) 마 10:40; 요 17:18 14:26; 16:7

(3) 삼위 인격이 동시에 언급된 증거들

(a) 그리스도에 관한 수태고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천사가 예고할 때, 삼위 인격이 동시에 언급되었다. 즉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259)

(b) 그리스도의 세례의 현장

성자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²⁶⁰⁾

(c)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론 및 기도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실 때, 성부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²⁶¹⁾

(d) 삼위의 인격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대 사명(Great Commission)을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62)라는 말씀으로 삼위의 인격을 명료하게 언급하신다.

(e) 동시에 언급되는 삼위의 세 인격

사도들을 통해 삼위의 세 인격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³⁾

위의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the Doctrine of the Trinity)를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며,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three persons in the Godhead)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

교회 신앙의 중요한 대요(大要; epitome)를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니라” 264)

259) 눅 1:35, 이에 대한 병행구절은 마 1:18-23을 볼 것

260) 마 3:16,17

261) 요 14-17장, 특히 여기서 삼위 인격이 명확히 언급된 구절은 요 15:26이다.

262) 마 28:19

263) 고전 12:4-6; 고후 13:13; 벧전 1:2

Herman Bavinck가 말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를 침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반드시 대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⁶⁵⁾

첫째로, ‘본질’ (essence)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위격’ (person)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셋째로, ‘본질’ 과 ‘위격’ 그리고 ‘위격들’ (persons)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본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Aristotle은 ‘ουσια’ (usia)를 ‘실체’ (substantie), 즉 “마치 개별적인 사람과 말(horse)처럼 언어로 설명될 실체도 아니고, 그 실체 안에 무엇이 존재 하지도 않는다” 라고 정의했다. 이 단어는 신학에서도 사용하여 삼위와 단일본질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 사용된 의미가 변화하여 ‘사물의 존재’²⁶⁶⁾ (το τι ἦν ἕωαί)를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ουσια’ (usia)는 ‘φύσις’ (fisis; ‘생성되다’에서 유래)²⁶⁷⁾와 동의어가 되었고, 다른 몇 개의 단어들²⁶⁸⁾과 함께 신성의 존재(ὑπαρξις), 실존 (subsistentia), 신성의 존재 양식들, 실존양식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단일본질, 일반적 신성에 대한 명칭이 되었고, 삼위 모두에게 공통된 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이 신적 본질은 오직 하나이고, 단순하며, 모든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모든 속성들을 소유한다. 또한 신적 본성은 위격들 안에 있으며, 각 위격 안에서 전체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위격들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위격들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며, 본질에 있어서 잔일하며, 동일한 존재이다.

위격들(three persons)은 시간, 장소, 그 무엇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위격 모두는 동일한 신적 본성을 소유한다. 단 하나의 동일한 신성이 삼위 모두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는 한 분의 영원하신 존재, 존 한 분의 전능하신 존재, 한 분의 전지하신 존재, 즉 하나의 지성, 하나의 의지, 하나의 능력을 지닌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264) 소요리문답 문 6의 문답이며,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uest. 6.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Ans. 6.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I John 5:7; Matt. 28:19).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장 3항;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공}

“신격(神格)의 통일체에 하나의 실체(實體),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三位)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마 28:9, 고후 13:4, 마 3:16, 17, 요 1:14, 18, 요 17:24, 갈 4:6, 요 15:26). 이에 관한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 II, art. III)

265) Herman Bavinck, pp. 298-301.

266) 사물의 존재는 한 사물의 존재, 본성, 본질의 개념을 포함한다.

267) 이 단어는 벵후 1:4의 지지를 얻었다.

268) natura(본성; ‘태어나다’에서 유래), substantia, essentia 등을 가리킨다.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²⁶⁹⁾

1)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본질

하나님은 본질 및 구조적으로 하나이시다(ousia essentia).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항목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인 유일성의 진리를 말해준다. 이는 하나님의 단수성(singularity)과 단순성(simplicity)을 포함한다. 여기에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신적 본체(essence)는 숫자적으로 하나이시며, 품질 적으로도 유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 질 수 없다. 이 설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성경구절들에 기초하고 있다.²⁷⁰⁾

2) 삼위(세 인격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개별적인 실체들(individual subsistences; 삼위(三位); 세 인격들; three Persons)),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²⁷¹⁾

“인격”(person)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구별된 개체(an individual), 즉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개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각 인격은 서로 구분되고 부별된 객체이며, 그 안에 인간적 본성이 개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격(神格; Godhead)에서는 하나님 안에 3개의 개체(삼위; 三位)가 서로 연합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적 본질 안에 인격적인 자아구별(self-distinctions)이다. 이것은 특수한 존재(또는 실체)의 세 양식이다. 그리고 3인격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Calvin이 이에 대해 타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인격이란 의미는 신적 본질(Divine essence) 안에 있는 존재(subsistence)인데, 그 존재는 다른 둘과 연관되면서도 공유될 수 없는 특성들(incommunicable properties)에 의해서 서로 구별된다.”²⁷²⁾ 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의할 점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삼위(3 인격들)가 서로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점이다.²⁷³⁾

3) 삼위의 통일성(유일성)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삼위(인격들) 안에 동등하게 있다. 따라서 삼위(세 인격들)는 그 본질에 있어서 통일성(유일성)을 갖고 계신다.

269) Louis Berkhof, pp. 87-

270) 신 4:35; 왕상 8:60; 고전 8:6; 딤후 2:5과, 출 15:11; 신 6:4; 속 14:9 등을 참고할 것.

271) A. A. Hodge는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신적 본체에 있어서 삼위(인격)의 특수한 존재양식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정의할 수 없으며, 특별계시의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무한한 신비이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구별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속하는 비공유적속성들만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 A. A. Hodge, *Outline of Theology*, p. 166.

272) Calvin, *Inst.* I, XIII, 6

273) 마 3:16; 4:1; 요 1:18; 3:16; 5:20-22; 14:26; 15:26; 16:13:15

신적 본성이 인적 본성과 구별되는 것은, 그 본성이 전적으로(불가분; 不可分) 하나 이상의 위(인격) 안에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 가운데 있는 세 개의 개체적인 인격들은 본성적 또는 본질적으로 특유한(specific) 통일성, 즉 같은 종류의 본성 또는 본질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신적 안에 있는 인격들은 본성의 숫자적(numerical) 통일성을 갖고 계신다.

인적 본성이나 본질은 각 사람이 개체적인 부분을 가진 한 개의 종류(s species)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유한 통일성(유일성)이 있다. 그러나 신적 본성이나 본질은 구분될 수 없으므로, 신적 인격들 안에서 동일하다.

신적 본성은 숫자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하므로, 삼위(인격들)안에 있는 본질의 통일성(유일성)은 수적인 통일성(유일성)이다. 그러므로 신적 본성은 세 인격들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신적(Godhead)의 위격들은 서로 종속됨이 없이 그 위엄이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며, 이해가 불가능한 신적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중적 실체에서만 그 자체를 충분히 드러낸다.

4) 순서대로 표시되는 삼위의 실체와 역사

(a) 삼위의 내적 존재의 순서

본체론적 삼위일체(ontological Trinity)에는 명확한 순서가 있는데, 성부는 첫째요, 성자는 둘째요, 성령은 셋째이다. 이 순서는 기원적인 유래(origin; derivation)에 있어서의 논리적 순서이며, 어느 위격이 시간이나 본질적 위엄에 있어서 더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부는 다른 위격에게서 발생되거나(generated) 발출되지(ceed)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부터 발출하신다. 이 발생과 발출이 그 논리적 순서 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신적 본질의 소유와 지위 면에서 종속의 개념이란 전혀 없다.

(b) 삼위의 외적 사역의 순서

본질적인 삼위일체에 있는 순서는 보다 더 특별하게 각 위에 귀속되는 외향적 사역(opera ad extra; outgoing works)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외향적 사역은 피조물을 목표로 한다.

성경은 이 순서를 소위 구별적 전치사들(praepositiones distinctionales), 즉 ‘εκ’ (ek; -으로부터) ‘δια’ (dia; -을 통해서) ‘εν’ (en; -안에)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 전치사들은 만물들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분명하게 사용된다.

5) 삼위의 인격적 속성들

이 속성들은 내향적 사역(opera ad intra)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역들이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사역들이며, 피조물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역들은 인격적 사역들이라 불리며, 삼위(세 인격들)가 함께 행하지 않으며, 이 사역들은 비공유적이다(incommunicable).

즉 발생(generation)은 오직 성부만의 행동이시며, 아버지와의 부자관계(filiation)는 독자적으로 오직 성자에게만 속한 것이며, 발출(procession)은 오직 성령에게만 돌려질 수 있다.

그러나 내향적 사역들(opera ad intra)이라 불리는 이 사역들은 삼위일체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나 결과들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느 한 인격의 독립적인 사역들이 아니라, 언제나 신적 존재 전체의 사역들이다.

한 편 어떤 외향적 사역들(opera ad extra)은 삼위가 함께 연대적으로(jointly) 행하기도 한다. 즉 창조(creation)는 본래적으로 성부에게, 구속(redemption)은 성자에게, 성화(聖化; sanctification)는 성령에게 돌려진다.

6)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

역사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라고 고백한다.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신비이다.

첫째는, 과거에는 감춰졌으나, 지금은 계시된 진리인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신비이다.

둘째는, 이해할 수 없고 알기 쉽게 만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신비이다.

삼위일체는 나타나는 어떤 관계들이나 양식에 있어서는 알기 쉽지만, 그 본질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신학적이 아닌, 사색적인 방법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잘못된 개념들로 발전되는 기현상들²⁷⁴⁾을 낳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신적 본질의 통일성(유일성)을 부정하고, 신적 본질 안에 있는 인격적 구별의 실재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실제적인 어려움은 신적 안에 있는 위격들(인격들)의 신적 본질이나, 서로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교회가 제거할 수 없는 난관이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직 용어의 적절한 정의로 균형을 유지하고, 위험한 오류들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방어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분이시다.(유일한 불가분적 본체)
- (2) 신적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적 구별이 있으시다.
- (3) 전 본체가 삼위 각자에게 동등으로 속한다,

274)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신론적(tritheistic) 또는 일신삼현론적(modlaistic) 개념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4) 삼위는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의 일정한 순서가 있다.

(5)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 않는다.

(6) 삼위는 인격적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즉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신다.

6. 삼위의 개별적 설명

1) 성부(삼위일체의 제1위)

(1) 하나님께 적용된 ‘아버지’ 라는 명칭

삼위일체 중 첫 번째 위격은 성부이시며,²⁷⁵⁾ 그의 위격적 속성은 성부되심(paternitas; paternity), 즉 아버지 되심이다.²⁷⁶⁾

[성부되심(아버지 되심)] 안에는 두 번째 위격(제2위)과의 적극적인 관계가 담겨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더 고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보편적인 명칭이요 품위 있는 명칭이지만, 신약성경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의 여호와라는 명칭과 같이 하나님 위격의 속성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아버지이시다. 인간에 있어서 아버지 됨은 일시적이며, 죽음에서 그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끝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성자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다.

그리고 성부의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 때문에,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생적이며, 창조되지 않으시고, 시작이 없으신 분, 스스로 기원이 되시며, 자기 실체의 원인, 자신의 기초원리라 불리고, 더욱이 성자와 성령 또는 신성 전체의 원리, 원인, 뿌리, 원천, 기원, 머리 등으로 불린다.²⁷⁷⁾ 그리고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고 구속을 설계하는 사역, 창조와 섭리, 삼위를 대표하는 사역들은 모두 성부에게 돌려진다.

(2) 성경에 사용된 ‘아버지’ 라는 명칭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은 다음의 경우들에 적용된다.²⁷⁸⁾

275) 고전 8:6

276) Herman Bavinck, p. 306. 성부의 속성을 말함에 있어서 ‘태어나지 않으심’(ἀρρενησία: nonbegottenness)이라는 단어가 채택되었는데, 이 단어는 아리우스와의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편, 삼위 모두는 피조물과 대조적으로 ‘피조되지 않은’이라는 ‘ἀγεννητος’ (agenetos)라고 불렀다.

277) Herman Bavinck, pp. 306-08

278) Louis Berkhof, pp. 90-91.

첫째로,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은 모든 피조물들의 기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된다.²⁷⁹⁾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특별하게 제1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하게 창조의 사역을 성부(아버지)께 돌린다.

둘째로, 아버지라는 명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백성 이스라엘과 가지신 신정적(神政的)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용된다.²⁸⁰⁾

셋째로, 신약성경에서의 아버지라는 명칭은 윤리적으로 모든 영적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²⁸¹⁾

넷째로, 아버지라는 명칭은 삼위일체의 제1위가 제2위와 관계될 때 제1위에 적용된다.

제1위는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제2위의 아버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부격(父格; fatherhood) 때문이다.²⁸²⁾

2) 성자(삼위일체의 제2위)

삼위일체 내의 두 번째 위격의 특별한 속성은 아들 되심(filiatio; filiation or generation)이다.²⁸³⁾ 성자는 성경에서 성부와 자신과의 관계, 성자의 메시아 직분, 성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신다.²⁸⁴⁾

(1)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명칭

첫째로, 성자는 성육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다.²⁸⁵⁾

둘째로, 성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의 ‘독생자’로 불린다.²⁸⁶⁾

셋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다.²⁸⁷⁾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의식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²⁸⁸⁾

다섯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른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지식을 갖고 계심을 주장하신다.²⁸⁹⁾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참람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²⁹⁰⁾

279) 고전 8:6; 엡 3:15; 히 12:9; 약 1:17

280) 신 32:6; 사 63:16; 64:8; 렘 3:4; 말 1:6; 2:10

281) 마 5:45; 6:6-15; 롬 8:16; 요일 3:1

282) 요 1:14,18; 5:17-26; 8:54; 14:12,13

283) 롬 9:5

284) 그 이름들은 말씀, 지혜, 로고스, 아들, 맏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 형상, 실체, 흔적 등이다.

285) 요 1:14,18; 갈 4:4

286) 요 1:14,18; 3:16,18; 요일 4:9; cf. 삼하 7:14; 욥 2:1; 시 2:7; 눅 3:38; 요 1:12

287) 요 5:18-25; 히 1장

288) 마 6:9; 7:21; 요 20:17

289) 마 11:27

290) 마 26:63; 요 5:18; 10:36

(2) 메시아 직분의 의미에서의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²⁹¹⁾ 이 메시아로서 아들 되심 (Sonship)은 본래적 자격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격을 반영한다.

(3) 성자의 인격성

성자의 인격성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첫째로, 성경이 성부와 성자를 같이 배열하는 것은 두 편의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보여준다.

둘째로, ‘독생자’와 ‘말아들’의 명칭은 발생과 출생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며,²⁹²⁾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강조하며, 성자가 모든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성경의 ‘로고스’가 성자에게 적용될 때, 이것은 성부와의 밀접한 관계, 즉 언어와 말씀하신 분의 관계를 나타낸다. 성경은 로고스를 인격적으로 나타내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한다.²⁹³⁾

넷째로, 성경은 성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한다.²⁹⁴⁾ 성자가 인격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면, 그 분도 또한 인격이시다.

(4) 성자의 영원하신 발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시며(발생; generation; filiation),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데(spiration) 참여하신다.

성자의 발생에 관한 교리는 삼위일체의 제1위와 제2위가 서로 부자의 관계를 가지신다는 성경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다. ‘성부’와 ‘성자’라는 명칭은 성부에 의해 성자가 생성하심을 암시하며, 성자는 계속하여 ‘독생자’ (the only-begotten)라 불린다.²⁹⁵⁾

(5) 성자의 발생이 주는 의미

성자의 발생(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음을 참조하도록 하자.²⁹⁶⁾

291) 마 8:29; 26:63; 27:40; 요 1:49; 11:27

292) 말아들은 골 1:15; 히 1:6에서 발견된다.

293) 요 1:1-14; 요일 1:1-3

294) 고후 4:4; 골 1:15; 히 1:3

295) 요 1:14,18; 3:16,18; 히 11:17; 요일 4:9

296) Herman Bavinck, p. 308-10.

(a) 동일본질이신 성자를 낳으신 성부의 영원한 영적 행동

성자의 발생은 “성부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 성부와 동일본질이신 성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성자는 영원하도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²⁹⁷⁾

성자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육체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신적(神的)이다. 그러므로 구별(distinctio)과 구분(distributio)은 되지만, 변화(diversitas)되거나 분할(divisio)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불가분리의 속성을 갖고 계시므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자의 발생(나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비교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다. 성경이 성자를 로고스(말씀)라고 일컬었을 때 이것을 잘 지적해준다.

사람의 정신이 언어로 객관화 되듯이, 하나님은 고로스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알리신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말들은 소리들이며, 감각적이고 물질적이다. 그러나 성부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직 유일한 로고스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시며, 성부 자신의 생명을 로고스에게 주신다.²⁹⁸⁾

(b) 성자의 영원한 발생

교회는 성자의 발생을 영원한 사실로 고백하였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성부의 영원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떠나면 과거에 한번 발생하여 완성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생이 무시간적(timeless) 행동, 즉 영원불변하며, 영원히 언제나 완성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현재 행동이다. 이 영원성은 성자의 선재성(pre-existence)과 성부와의 동등하심(equality)을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²⁹⁹⁾

그러므로 성자의 발생(생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성자(Son)의 생성은 삼위일체 중의 제1위가,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2위의 실재적 근거가 되시며,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division), 격리나(alienation), 변화(change)됨이 없이 신적 본질 전체(the whole divine essence)를 소유하도록 하시는 제1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필연적인 행동이다.”³⁰⁰⁾

(c) 성자의 낳으심에 대한 교회의 고백

그러므로 교회는 성자의 발생(낳으심)의 영원한 특성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고백한다. 성부와 성자의 명칭이 형이상학적인 영적 의미의 명칭이라면, 성경이 풍부하게 가르치듯이, 성자의 발생(낳

297) 롬 9:5

298)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요 5:26).

299) 미 5:2; 요 1:14,18; 3:16; 5:17,18,30,36; 행 13:33; 여 17:5; 골 1:16; 히 1:3

300) Louis Berkhof, p. 94.

으심) 또한 영원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만일 성자가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 역시 영원한 성부가 아니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낳으심)을 부인하는 것은 성자의 신성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성부의 신성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신적인 발생하심(낳으심)은 참된 의미에서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 속에 단 한 번 발생하고(낳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며, 영원히 완성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성부는 발생(낳으심) 없이 존재하지 않으셨고, 발생(낳으심)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신다. 성부가 아들을 낳으셨고, 그를 영원히 낳으신다. 하나님의 낳으심은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everlasting)은 하나님의 발생하심(낳으심; generation)이다.”³⁰¹⁾ 이것이 곧 교회가 참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다.

(d) 성자의 신성

역사적으로, Tertullian 이후 삼위일체 교리를 정교화하고 완성한 신학자들은 Athanasius(296-373), Cappadocians(갑바도기아 신학자들), 그리고 Augustine 이었다. 특히 Athanasius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신성(deity), 그리고 삼위일체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한다는 점을 그 때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 그는 이 진리를 변호하는데 온 인생을 바쳤다.³⁰²⁾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³⁰³⁾

(a) 성자의 신성에 대한 선언³⁰⁴⁾

(b) 성자에게 적용된 신적 명칭들³⁰⁵⁾

(c) 성자의 신적인 속성들³⁰⁶⁾

(d) 성자의 신적인 사역들³⁰⁷⁾

301) Herman Bavinck, p. 310. quot. Athanasius, *Apologia contra Arianos*, I, 14,20; IV, 12, Augustine, *De Trinitate*, VI, 1.

302) Athanasius의 투쟁은 철학적 문제가 아닌, 기독교 자체, 하나님의 계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 삼위일체는 교회의 핵심진리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부인하는 유대교와,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이방종교와 원리적으로 구분된다. Herman Bavinck, pp. 281-82. quot. Athanasius, *Epistolae ad Serapionem*, I, 28.

303) Louis Berkhof, p. 94. quot. Liddon, *The Divinity of our Lord*, Warfield, *The Lord of Glory*, Wm C. Robinson, *Our Lord* 참조. 한편 역사적으로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어왔다. 즉 초대교회시대의 Ebionites(에비온파), Alogi(알로기파), dynamic Monachians(동력적 단일신론파), 종교개혁시대의 Socinians(소니너스파), 또한 Schleiermacher, Ritschl,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 현대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성자 신성의 부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304) 요 1:1; 20:28; 롬 9:5; 빌 2:6; 딤후 2:13; 요일 5:20

305) 사 9:6; 40:3; 렘 23:5,6; 딤후전 3:16; 욥 2:32

306) 영원하신 존재(사 9:6; 요 1:1,2; 계 1:8; 22:13), 편재하심(마 18:20; 28:20; 요 3:13, 전지하심(요 2:24,25; 21:17; 계 2:23), 전능하심(사 9:6; 빌 3:21; 계 1:8), 불변하심(히 1:10-12; 13:8), 성부에게 속해 있는 속성(골 2:9)

307) 창조(요 1:3,10; 골 1:16; 히 1:2,10), 섭리(눅 10:22; 요 3:35; 17:2; 엡 1:22; 골 1:17; 히 1:3), 사죄(마 9:2-7; 막 2:7-10; 골 3:13), 부활과 심판(마 25:31,32; 요 5:19-29; 행 10:42; 17:31; 빌 3:21; 딤후 4:1) 종말에 새롭게 하심(빌 3:21; 히 1:10-12; 계 2 1:5)

(e) 성자의 신적인 존귀하심³⁰⁸⁾

(e) 성자의 지위

본질적(본체적) 삼위일체(essential or ontological Trinity)에서의 존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경륜적(실리적) 삼위일체에 반영되어 성자는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³⁰⁹⁾

첫째로, 외향적 사역(opera ad extra)에 있어서: 만물은 성부에게서(out of the Father) 나고, 성자를 통해서(through the Son) 난다.³¹⁰⁾ 성부는 만물의 절대적 원인(absolute Cause)이 되시며, 성자는 만물의 중보적 원인이 되신다. 이 원리는 만물이 성자를 통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자연계에 적용된다.³¹¹⁾

둘째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이³¹²⁾ 구속 사역에 적용된다.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성자는 자기 백성의 보증(surety)이 되시고, 성부의 구속사역을 스스로 취하여 실행하시되,³¹³⁾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셨다.³¹⁴⁾

3) 성령(삼위일체의 제3위)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의 명칭은 하나님의 영(Spirit)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³¹⁵⁾

(1) 명칭의 어원(語源)과 적용

‘영’ (靈, Spirit)의 히브리 어원은 ‘רוח’ (ruach; 루아흐)이며, 헬라어 어원은 ‘πνεύμα α’ (pneuma)이다. 이 원어는 라틴어 ‘spiritus’의 뜻과 같이 “숨을 쉬다”를 의미하는 어근으로부터 왔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호흡’ (breath),³¹⁶⁾ ‘바람’ (wind)³¹⁷⁾으로 번역된다.

구약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수식어 없이, 단지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라고 표현되며,³¹⁸⁾ 신약성경에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2) 성령의 인격성

308) 요 5:22,23; 14:1; 고전 15:19; 고후 13:13; 히 1:6; 마 28:19

309) Louis Berkhof, p. 95.

310) 고전 8:6

311) 요 1:3,19; 히 1:2,3

312) 요 1:9

313) 시 40:7,8

314) 엠 1:3-14

315) 행 5:3,4, 한편 요한복음 4:24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라는 이 명칭은 특별히 제3위에게 적용되고 있다

316) 창 2:7; 6:17; 겔 37:5,6

317) 창 8:1; 왕상 19:11; 요 3:8

318) 구약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시 51:11; 사 6:10,11에서 사용된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어왔다.³¹⁹⁾ 그러나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은 철학이 아닌 기독교 자체의 핵심인 교회의 구원적 신앙에서 나왔다. 즉 교회가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성경에 따른 구원의 객관적 원리들뿐만 아니라, 주관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필연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 고백은 성자의 신성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중요성을 지니며, 기독교 자체가 이 고백과 깊이 관계된다.

성령께서 모든 구원, 즉 중생, 신앙, 회개, 성화 등의 주관적 원리가 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는 결코 불가능하다.³²⁰⁾

성경은 성령의 인격성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첫째로, 성령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칭호들

남성 대명사인 $\epsilon\kappa\epsilon\iota\nu\omicron\varsigma$ (ekeinos)³²¹⁾가 성령을 가리키는 곳에 사용되었다.³²²⁾ ‘ $\pi\alpha\rho\acute{\alpha}\kappa\lambda\eta\tau\omicron\varsigma$ ’ (parakletos; 보혜사; 위로자)도 성령에 적용되고 있는데,³²³⁾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로, 성령에 돌려지는 인격의 특징들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인격적 특성들은 지식과,³²⁴⁾ 의지와,³²⁵⁾ 감정³²⁶⁾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인격적 행동들로서는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으키신다.³²⁷⁾ 이런 일들은 인격을 가져야만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이다.

셋째로, 다른 인격들과의 관계성

성령은 그리스도와³²⁸⁾ 사도들,³²⁹⁾ 성부와 성자와 함께³³⁰⁾ 기록되어 있다.

넷째로, 성령 자신의 능력과의 구별

성령을 단지 하나의 능력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성령이 능력뿐이라면 ‘성령’ 대신 ‘능력’ 이나, ‘감화’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³³¹⁾

319) 초대교회의 Monarchians(단일신론파), Arians(아리우스파), Pneumatomachians(성령파), 종교개혁시대의 Socinians(소시니안파), 후대의 Schleiermacher, Ritschl, Unitarians(일위신론파), 오늘날 Modernists(현대주의자들), Sabellians(사벨리안파) 등이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해 왔다.

320) Herman Bavinck, p. 310.

321) 성령을 나타내는 ‘ $\pi\nu\epsilon\nu\mu\alpha$ ’(pnuema) 는 중성명사이다.

322) 요 16:4, 엡 1:14

323) 요 14:26; 15:26; 16:7; 요일 2:1

324) 요 14:26; 15:26; 롬 8:16

325) 행 16:7; 고전 12:11

326) 사 63:10; 엡 4:30

327) 창 1:2, 6:3; 눅 12:12; 요 14:26; 15:26; 15:26; 16:8; 행 8:29; 13:2; 롬 8:11; 고전 2:10,11

328) 요 16:14

329) 행 15:28

330) 마 28:19; 고후 13:13; 벧전 1:1,2; 유 20,21

성령은 다른 위격들(제1위와 제2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고전 2:10,11 참조). 이유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격적 특성들로는 첫째, 성령은 지식, 의지, 감정을 소유하시며, 둘째, 성령은 인격적인 행동, 즉 창조, 그리스도의 탄생, 계시와 성경의 영감, 친히 간구하심, 중생과 성화, 은사 부여,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일을 하신다.

(3) 성령의 신성(神性)

성령의 신성(deity)은 성자의 신성에 대한 증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알 수 있다.

- (a) 성령에게 돌려지는 신적 명칭들³³²⁾
- (b) 성령에게 돌려지는 신적 완전성³³³⁾
- (c) 성령에 의해 수행된 신적 사역들³³⁴⁾
- (d) 성령에게 돌려지는 신적 존귀성³³⁵⁾

(4) 성령의 사역

특별히 성령께 돌려지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경륜; general economy)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의 특수적 섭리(경륜; special economy)에서도 나타난다. 성령의 특별한 임무란 피조물에 직접 동작하셔서 사물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의 사역은 모든 분야에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을 완성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자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을 뒤따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을 뒤따른다.

(a) 자연계에서의 성령의 사역

(ㄱ) 생명의 발생(생성)

존재(being)는 성부에게서 나오며, 사상(thought)은 성자로 말미암고, 생명(life)은 성령에 의해 중개되어 전달된다.³³⁶⁾ 이런 관점에서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서 최종적인 접촉(finishing touch)을 행하신다.

331) 성령이 자신의 능력과 구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들: 눅 1:35; 4:14; 행 10:38; 롬 15:13; 고전 2:4

332) 출 17:7; 행 5:3,4; 고전 3:16; 딤후 3:16

333) 편재하심(시 139:7-10), 전지하심(사 40:13,14; cf. 롬 11:34; 고전 2:10,11), 전능하심(고전 12:11; 롬 15:19), 영원하심(히 9:14 ?)이다.

334) 창조하심(창 1:2; 욥 26:13; 33:34), 섭리하심(시 104:30), 중생시키심(요 3:5,6; 딤후 3:5), 죽은 자를 부활시키심(롬 8:11),

335) 마 28:19; 롬 9:1; 고후 13:13

336) 창 1:3; 욥 26:13; 시 33:6 ?; 시 104:30

(ㄴ) 일반적 영감

성령은 사람들의 직무, 즉 과학과 예술 등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시키시고, 자격을 부여하신다.³³⁷⁾

(b) 구속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ㄱ)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위한 준비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를 준비하셨고, 죄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³³⁸⁾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³³⁹⁾ 성령의 능력 주시는 은사를 무한히 받으셨다.³⁴⁰⁾

(ㄴ) 성경의 영감

성령께서는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계시,³⁴¹⁾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속사역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신다.

(ㄷ) 교회의 설립과 인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를 중생과 성화에 의해 설립하셔서 증가시키시며, 교회 안에 생명의 원리로서 내주하신다.³⁴²⁾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교회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속주에 대한 지식을 더욱 증진시키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신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해 준비하도록 인도하신다.³⁴³⁾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어느 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이시요, 최고의 생명이신 영원하신 존재이시요, 전적으로 생명의 충만함이 되시는 분이시다.³⁴⁴⁾

337) 출 28:3; 31:2,3,6; 35:35; 삼상 11:6; 16:13,14

338) 눅 1:35; 히 10:5-7, 히브리서 기자가 70인경을 따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기록한 것을 참조할 것

339) 눅 3:22

340) 요 3:24

341) 고전 2:13; 벧후 1:21

342) 엡 1:22,23; 2:22; 고전 3:16; 12:4,55

343) 요 14:26; 15:26; 16:13,14; 행 5:32; 히 10:15; 요일 2:27

[제6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신다. 크게 나누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보존, 다스림은 모두 그의 사역(work)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완전하며, 신실하며, 진실하고, 자비롭고, 공의로우며, 크고, 엄위하고, 놀라우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즐지도 아니하시며, 피곤하시지도 않으신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야 하고, 항상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다.³⁴⁵⁾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정(만물에 대한 일반적 계획), 예정(인간과 천사에 대한 계획, 선택과 유기 포함), 창조(우주만물, 인간, 천사 포함, 작정의 실행), 섭리(모든 피조물에 대한 보존, 협력, 다스림, 즉 작정의 실현) 등을 포함한다.

I. 하나님의 작정

바른 신학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authoritatively) 결정하시고, 그의 예정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will)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는 에베소서 1:11의 “모든 일을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divine decrees)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⁴⁶⁾

1. 하나님의 작정의 정의

하나님의 작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³⁴⁷⁾ 즉 장차 발생할 모든 사건을 미리 정하신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말한다.

344) Herman Bavinck, p. 337.

345) Ibid., pp. 338.

346) Louis Berkhof, p. 100.

347) 소요리문답 제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엡 1:11, 행 4:27~28, 시 33:11, 엡 2:10, 롬 9:22~23, 11:33, 행 2:23)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Q. 7. What are the decrees of God? A.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th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2. 작정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들

1) 구약성경의 용어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지성적(intellectual) 요소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³⁴⁸⁾ יָצָא(ya' ats; 계획하다, 충고하다)에서 유래한 עֲשָׂה(etsah;)와³⁴⁹⁾ יָסַד(yasad; 함께 숙고하다, Niphal)에서 유래한 סוּד(sod)와 זָמַם(zamam; 묵상하다, 마음에 지니다, 의도하다)에서 유래한 מִזְמִמָּה(mezimma)가³⁵⁰⁾ 있다.

그 외에도 의도적인 뜻을 강조하는 용어들로서, חָפֵץ(chaphets; 경향, 의지, 희열, 사 53:10)와 רָצוֹן(ratson; 즐거움, 희열, 주권적 의지, 사 51:19, 사 49:8, '기쁘게 하다, 즐거워 하다'를 의미하는 רָצָה(racha)에서 왔음) 등이 있다.

2) 신약성경의 용어들

β ο υ λ η (boule): 이 단어는 일반적 작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과 더불어 숙고 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리킨다.³⁵¹⁾

θ ε λ η μ α (thelema):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적인 면을 강조한다.

ε δ δ ο κ ι α (eudokia): 이 단어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강조한다.³⁵²⁾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 모든 사물에 대한 작정(엡 1:11), 둘째, 특별한 사물들의 작정(행 17:24-26), 셋째, 구속사역의 작정(고전 2:7) 등이 있으며, 구속사역은 성도들의 구원(엡 1:4), 그리스도 왕국의 실현(시 2:6-9),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사역(계 5:1, 7, 9, 10) 등이 포함된다.

3. 신적 작정의 특성

앞에서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속성들은 내재적이며 영원한 사역들이다. 이 사역들은 하나님의 존재 밖에 있는 피조물들과 관계되는 사역들(외적 사역들)과는 구분된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들을 작정이라 부르며, 이 작정은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들과, 창조 및 재창조의 외적 사역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한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

348) Ibid., p. 101.

349) 욥 38:2; 사 14:26, 46:11

350) 렘 4:28; 51:12; 잠 30:32

351) 행 2:23; 4:28; 히 6:17

352) 마 11:26; 눅 2:14; 엡 1:5,9

1) 하나님 절대주권의 작정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기초한다.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시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신의 외부의 우주 가운데 실현시키실 필요가 없다.

2)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에서 나오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존재 밖에서 실현되도록 정해진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현존하는 충만한 지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를 세상에 모두 다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는 온 세상의 길이와 넓이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하게 풍성하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실 가운데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3) 실현성 있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개념에 포함된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현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존재로서 우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세상 창조와 보존은 필연적이다.

성경적 유신론(theism)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과 우주를 연관시키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아울러 피조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것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1:3,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cause)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다는 점이다.

4) 신적 지혜에 기초한 작정

작정을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인 ‘뜻’ (counsel)이라는 단어는 깊이 고려하고 (deliberate) 숙의하는(consultation) 것을 가리킨다.³⁵³⁾ Berkhof는 이 용어가 신격의 삼위(세 인격) 사이의 상호교제를 암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의 지혜는:

첫째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실현되는 데 표시된 지혜로부터 온다.³⁵⁴⁾

셋째로, 주님 뜻의 지혜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³⁵⁵⁾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므로, 유한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지혜로운 통찰력과 지식으로 구체화하셨다.

353) 엡 3:10,11

354) 시 104:24; 잠 3:19; 렘 10:12; 51:15

355) 시 33:11; 잠 19:21

5) 영원불변한 작정

첫째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영원하다.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는 순간적인 시간들의 연속(succession of moments)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은 창조나 칭의와 같이 시간 안에서 완료되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적 행동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되지만, 작정 그 자체는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행동으로 남아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영원하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현된 사건들은 연대적 순서가 있지만,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런 연대적 순서가 없다.

둘째로, 사람의 계획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계획에 관한 이해 불충분이나, 수향능력의 부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런 오류나 결핍이 없다. 하나님은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으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작정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속성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이다.³⁵⁶⁾

6) 유효한 작정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적용하여 작정 안에 포함된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 것도 그의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다. A. A. Hodge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정은 어떤 사건의 성질과 완전히 일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미래가 될 것이다.”³⁵⁷⁾

7)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작정 자체의 본질적 부분(part and parcel)이 아닌 어떤 것에 의존되지 않는다. 작정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은 서로 의존적이지만, 계획안에 있는 것들은 작정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수단들이 요구되거나, 어떤 조건에 의존될 수 있지만, 이 수단들이나 조건들은 작정 안에서 결정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작정을 수행할 수단들을 결정하심이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지는 않으셨다. 작정의 절대적 특성은 영원성과 불변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8) 보편적이거나 포괄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이 정신적 영역, 물리적 영역, 선, 악 어느 것이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³⁵⁸⁾

356) 욥 23:13,14; 시 33:11; 사 46:10; 눅 22:22; 행 2:23

357) 시 33:11; 잠 19:21; 사 46:10. 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p. 203.

358) 엡 1:11

그것들은, 첫째로, 사람들의 선한 행동들,³⁵⁹⁾ 둘째로 사악한 행동들,³⁶⁰⁾ 셋째로, 우발적인 사건들,³⁶¹⁾ 넷째로, 목적과 수단들,³⁶²⁾ 다섯째로, 사람의 생명의 기간과³⁶³⁾ 거주지³⁶⁴⁾ 등이다.

9) 죄에 관한 허용적인 작정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permissive)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에 의해 사람의 최악된 행동들을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하게 하셨다. 그러나 유한한 사람의 의지에 직접 행동하여 최악된 행동을 하게 하시려고 결정하시지는 않으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에 거슬러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의지하고 행동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이 작정에 있어서, 첫째로, 사람의 최악 된 자기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시며, 둘째로, 최악 된 자기결정의 결과를 통제하시고, 관찰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다.³⁶⁵⁾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최악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결과이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한다. 하나님은 범죄를 미리 아시고 허용하기로 작정하신다.

둘째로, 죄에 대하여 허용적이지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³⁶⁶⁾ 그리고 허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자기 계시에 유익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된다.³⁶⁷⁾

359) 엡 2:10

360) 잠 16:4; 행 2:23; 4:7,28

361) 창 45:8; 50:20; 잠 16:33

362) 시 119:89-91; 살후 2:13; 엡 1:4

363) 욥 14:5; 시 39:4

364) 행 17:26

365) 시 78:29; 106:15; 행 14:16; 17:30

366) 이것은 시 92:15; 전 7:29; 약 1:13; 요일 1:5과 모든 죄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그 모든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367) Herman Bavinck, pp. 338-39. Louis Berkhof, pp. 102-05.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개혁주의 신학만이 올바르게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즉 Lutheran (루터파) 신학은 이 교리를 다른 목적, 즉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신학적이 아닌 구원론적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Pelagians (펠라기우스파)와 Socinians (소시니안파)는 비성경적이라하여 거부한다. Semi-Pelagians (반펠라기우스파)와 Arminians (알미니안파)는 호감을 갖지 않는다. 그 외에 이를 전혀 무시하거나, 반대할 때만 언급하거나,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제한된 작정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것들이다. 이 반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람을 자기 결정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유의 행위자 (free agent)로 규정하며,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지성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자유행위와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 행동을 작정하셨지만 자유자들은 자유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한다(창 50:9,20; 령 2:23; 4:27,28)

둘째로, 인간적 노력을 위한 모든 동기들을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만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대로 된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 필요가 없으며, 구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견해가 나태와 불순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

II.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decree)과 예정(predestination)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차이점은 작정이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반면, 예정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데 있다. ‘예정’은 ‘작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남은 사람들을 향하신 의로운 유기(reprobation), 즉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뜻; counsel)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행동으로서 성격상 성부의 사역이다.

1. 하나님의 예정 교리의 역사적 조명

1) 예정 교리와 Augustine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Augustine 시대부터였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암시는 하였으나, 명료한 개념을 갖지는 못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의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prescience)로 간주했고, 하나님이 이 예지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잘못 생각했다.³⁶⁸⁾

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들의 행동규칙이 아니며, 신적 작정의 내용은 그것이 실현됨을 통해서, 또는 실현 뒤에 알려진다. 율법이나 복음에 구체화된 행동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을 사람이 수납할 의무들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작정은 사람의 노력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격려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 성취와 상급을 소망하며 확고한 믿음과 용기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작정에 기초하여 지정된 수단들을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격려한다(엡 2:10; 빌 2:13).

셋째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난은 참된 주장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실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죄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시 92:15; 전 7:29; 약 1:13; 요일 1:5).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행동을 유지시키시며, 생활환경을 조정하시며, 사람의 자유행동들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된 행동들을 확실하게 규정하시지만, 악한 욕망과 그 선택을 사람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죄에 관한 작정은 유효한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이다.

넷째로, 작정교리는宿命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납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宿命론(fatalism; 운명론)은 동양종교에서 선호하는 이론이며, 그의 의미는 “사건들이 맹목적 즉 비합리적인 우주과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환언하면,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미리 결정되어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이론이다.宿命론에는 (1) 유물론적宿命론(모든 사물을 물질과 운동의 결과로 보는 이론), (2) 필연론적宿命론(모든 사물이 원인들의 연결로 함께 필연적으로 결속된다고 보며, 사람의 자유를 부인하는 이론), (3) 범신론적宿命론(모든 사물을 맹목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이론)들로 나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에는 유물론적宿命론이 주장하는 물질과 운동의 결과를 포함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필연론적宿命론은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포용함을 가리키는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 거부된다. 그리고 범신론적宿命론은 만사가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지식에 의해 계획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사물이 준비되었다는 작정교리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ugustine도 처음엔 이 견해에 기울였으나,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을 고찰하고, 예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들을 예지하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Augustine은 유기된 사람을 예정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중예정을 가르쳤다. 그는 구원과 정죄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의 차이점도 인정하였다. 즉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하신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정죄와 수단들을 예정하시지 않으셨다. 생명(영생)으로의 예정은 순전히 주권적인 반면, 영원한 죽음으로의 예정은 재판적이며(judicial), 사람의 죄를 고려하신다는 점을 설명했다.³⁶⁹⁾

Augustine의 견해는 Pelagius(360-418, 영국의 금욕적 도덕주의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Pelagianism(펠라기우스주의)³⁷⁰⁾을 추종했다.

Augustine은 펠라기우스 논쟁(the Pelagian controversy) 오래전부터 예정 교리(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를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로마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립했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십필리키아누스의 다양한 질문들(397년에 씀)에서 이미 제시했고, 권고와 은혜(427), 성도들의 예정과 견인의 은사(428 or 429)에서 이 교리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켰다.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는 에베소 공의회(the Council of Ephesus, 431)에서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³⁷¹⁾와 함께 이단으로 정죄되었다(condemned).³⁷²⁾

368) 예지론자인 Pelagius가 초대교회 교부들을 호도한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다. Wiggers는 그의 저서에서, “Pelagius의 구원관이나 정죄에 관한 예정은 예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절대적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건적 예정을 인정하였다”라고 지적한다. Wiggers, *Augustinism and Pelagianism*, p. 252. quot. in Ibid.

369) 참조, Dijk, Om't Eeuwig Welehalen, p. 40; Polman, *De Praedestinatieleer van Augustinus*. p. 158.

370) Herman Bavinck, pp. 346-47, Pelagius의 출발의 전제(proposition; assumption)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creatures) 그 본성에 비추어 반드시 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본성은 사악한 본성으로 결코 변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이루는 자유의지이다. 이 의지를 통해 사람은 영광스럽고 상실될 수 없는, 선악을 행할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나, 원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비록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는 선을 행할 가능성과 능력인 의지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악의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상실될 수 없는 고귀한 본성이다. 죄는 항상 자유로운 의지의 행동이므로, 인간의 한 성향이나 한 상태가 될 수 없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본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의 결과로부터, 그는 다음의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로, 아담의 타락이 그의 후손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창조되었던 동일한 순수한 도덕적 상태에서 태어났고, 원죄(the Original Sin)는 없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에 의하면, 죽음이란 죄악의 형벌의 결과가 아니고, 보편적이며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죄는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에서 떠나 자유롭게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런 견해에 있어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먼저 사람에게 자연적 능력을 주셨고, 더 나아가 공로에 따라, 즉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도덕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공하신다.

셋째로, 이런 관점에서 예정은, 오직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과 동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형벌의 예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은혜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정은 전적으로 사람의 선행에 대한 예지에 달려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원죄를 부인하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 등과 같은 교리적 요소들을 무시한 Pelagius의 일련의 개념들은 기독교와 조화될 수 없는 이단적 주장이었다.

2) 예정 교리와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은 바울과 Augustine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어서, 로마교의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항하여 진리를 천명할 힘을 발견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에서 일치했다.

John Calvin은 어거스틴주의의 절대 이중예정(the Augustinian doctrine of an absolute double predestination)을 굳게 견지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Albert Pighius³⁷³)에 대항하여 예정 교리를 변호하기를, 죄가 세상에 들어온데 대한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permissive decree)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유기의 작정(decree of reprobation)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책임 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을 강조했다.

모든 신앙고백서들은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두드러지게 일치하고 있다.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Arminians)의 부조리한 공격을 받은 결과 완성된 돌트 신경(Canons of Dort)³⁷⁴)은 예정교리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알미니안 형태의 교회는 절대적 예정교리를 조건적 예정 교리로 바꾸어 버렸다.

3) 예정 교리와 현대주의자들

종교개혁 이후, Schleiermacher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전혀 다른 형식을 받아 들여만 했는데, 기독교는 근현대 주의자들에 의해 절대존의 감정으로 인식되었다. 이 감정은 모든 인간적 결심과 행동을 미리 결정하는 자연 질서의 변하지 않는 법칙들과, 제2원인들과 함께, 인과관계(causality)에 의존하는 사람의 의식(consciousn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정을 자연 또는 우주적 인과관계(the universal causal connection)에 의한 예정과 일치시켰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잘못된 위조적인(spurious) 신학의 소산물이며, 근본적인 종교적 개념의 허구(fundamental falsification)에 불과하다.

합리주의자(rationalist)는 이러한 거짓된 이론에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거짓된 이론 자체가 확실한 합리주의(rationalism)³⁷⁵) 사상이며, 동시에 ‘예정’의 참된 기독교

371) Nestorius가 주장한 견해로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여 단성론을 주장했다.

372) Herman Bavinck, p. 349.

373) Albert Pighius(1490-1542)는 네델란드인으로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수학자(mathematician), 천문학자(astronomer)였다.

374) 돌트 총회(Council of Dort)는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의 도전에 따른 교리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개혁교회의 공의회(1618-1619; 국내외인 105명 참석)였다. 알미니우스(Arminius)와 알미니안 주의자들(Arminians)이 예지에 입각한 믿음, 보편적 속죄, 부분적 타락, 거부가 가능한 조건적 선택 등 비성경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돌트 총회에서는 다섯 조항, 즉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등 성경적 교리를 포함한 돌트 신경(canon of Dort)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돌트 신경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자세한 성경적 설명 또한 포함되어 있다.

375) 이성을 제일주의로 삼은 사상, 이성주의.

적 개념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이기(a complete abandonment) 때문이다.” 376)

자유주의(Liberalism) 신학은 예정교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 교리는 그들에 의해 거부되거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beyond recognition) 변화되어 있다.³⁷⁷⁾

이제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죄인으로서 본성에 따라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거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창조 안에서 예정된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선택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유기자(버림을 받은 자)로 남게 된다.

“선택의 근거는 믿음(신앙)이다. 유기자의 근거는 신앙의 결핍(없음; want)이다.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신앙(faith)과 불신앙은 하나님 안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신비의 문 곁에 서있다.(We stand at the gate of mystery.)” 378)

2. 하나님의 예정의 성경적 용어들

1) יָדָא(yada), γινώσκειν(ginoskein), προγινώσκειν(proginoskein), πρόγνωσις(prognosis)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יָדָא(yada)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로써,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무엇을 인식하다” 또는 “애정과 관심과 선택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³⁷⁹⁾

신약성경의 προγινώσκειν(proginoskein)과 πρόγνωσις(prognosis)는 יָדָא(yada)의 뜻에 따라, 단순히 앞의 것을 미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호의를 갖고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선택적 지식을 나타낸다.³⁸⁰⁾

2) בָּאָר(bacar), ἐκλεγέσθαι(eklegesthai), ἐκλογή(ekloge)

이 단어들은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요소를 강조한다.

376) Otto, *The Idea of the Holy*, p. 90, quot in Louis Berkhof, pp. 110-11.

377) 예를 들면, G.B. Foster는 예정 교리를 결정론(determinism)으로 낙인 찍었고, Macintosh는 예정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예정을 왜곡하여 설명한다. Karl Barth는 Augustine이나 Calvin의 본래의 성경적 예정교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해석을 하고 있다. 그는 “예정은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없는(unknown and unknowable) 의지(will)의 결정에 의해 일정의 수를 선택하고, 그 밖에는 정죄를 위해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로마서 주해(Roemaerbrief, p. 332)}라고 말함으로써,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Camfield, *계시와 성령(바르트 신학논문)*, p. 92} 그 외의 다른 이들은 예정을 어떤 직분이나, 특권적 예정으로 축소하여 버린다.

378) Mc Connachie, *The Significance of Karl Barth*, pp. 240f. quot in Berkhof, p. 111.

379) 창 18:19; 암 3:2; 호 3:2, 13:5

380) 행 2:23(비교 4:28); 롬 8:29; 11:2; 벧전 1:2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정한 수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에 두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단어는 특권(소명)과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의 뜻을 담고 있으며, 선행적이며 영원한 선택에 대한 명확한 뜻을 담고 있다.³⁸¹⁾

3) προορίζεῖν (proorizein), προορίσμος (proorismos)

이 단어들은 항상 절대적 예정을 말한다. 무엇으로 예정되었는가, 즉 선택의 목적을 지정해 준다. 이 단어는 성경에 비추어 그 목적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양자 중의 하나를 분명히 언급한다.³⁸²⁾ 또한 그 목적은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어떤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³⁸³⁾

4) προτίθεσθαι (protithenai), πρόθεσις (prothesis)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확고한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다. 또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³⁸⁴⁾

3. 하나님의 예정의 주체와 대상

1) 예정의 주체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부분에서 뜻과 의지가 같으신 삼위의 일치적인(concurrent) 행동이다.³⁸⁵⁾ 다만 구원의 경륜에 입각하여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드리고 같이, 예정의 주권적 행동은 특별히 성부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이다.³⁸⁶⁾

2) 예정의 대상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포함한다. 이성적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인류가 예정의 본격적인 대상으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³⁸⁷⁾

381) 롬 9:11; 11:5; 엡 1:4; 살후 2:13

382) 행 4:28; 엡 1:5

383) 행 4:28; 롬 8:29; 고전 2:7; 엡 1:5,11

384) 롬 8:29; 9:11; 엡 1:9,11; 딤후 1:9

385) 롬 9:13,18,21; 11:7; 뵤전 2:8

386) 택한 백성을 성부가 성자에게 주셨고(요 17:6,9),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며”(롬 8:29),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엡 1:3,5),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뵤전 1:2)

387) Louis Berkhof, pp. 112-13.

(a)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 모두가 포함된다.³⁸⁸⁾ 타락한 모든 인류는 선악에 상관없이 모두 예정의 대상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버림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예정의 대상이다. 사랑과 긍휼을 입어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되고, 또는 “미워하고” “강박하게” 하여 천하게 쓸 그릇으로 버림받았다.³⁸⁹⁾

(b) 선하고 악한 모든 천사들

성경은 예정이 타락한 인류를 선택과 유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거룩한 천사들과,³⁹⁰⁾ 최초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상실한 악한 천사들을³⁹¹⁾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선택된 천사들을 언급함으로써,³⁹²⁾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위에서 인용된 성경구절들이 가리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천사들의 예정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한 어떤 이유로 어떤 천사들에게는 창조에 따라 부여된 은혜에 추가하여 견인(인내; perseverance)의 특별은혜를 내리신다. 반면에 다른 천사들에게는 그것을 내리시지 않기로 예정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정의 관점에 합당할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예정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들의 예정은 타락한 후에 선택되었으며(infralapsarian), 천사들의 예정은 타락 전에 선택된 것으로(supralapsarian)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일정한 숫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 전에 어떤 천사들에게 특별견인의 은혜를 내리셔서 타락을 예방하시기로 하셨다.

둘째로, 천사들은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받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중보자(Mediator)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head) 그리스도 안에서, 환언하면, 봉사적인 관계 안에 서도록 선택되었다.

(c)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분으로 가르친다.³⁹³⁾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예정의 대상은 되실 수 없으나, 중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예정을 받으셨다.

첫째로, 성자를 향하신 성부의 특별한 사랑을 평범한 사랑과는 구별되게 영원부터 베푸셨다.³⁹⁴⁾

388) 행 4:28; 롬 8:29,30; 9:11-13; 엡 1:5-11

389) 롬 9:13,18,21

390) 막 8:38; 눅 9:26

391) 벵후 2:4; 유 6

392) 딤편 5:21

393) 눅 9:35; 사 42:1

394) 벵전 1:20; 2:4

둘째로, 중보자로서의 성자는 그의 품격(quality)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대상이었다.³⁹⁵⁾

셋째로, 중보자로서의 성자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입으셨다.³⁹⁶⁾

넷째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그 영광을 얻는 모든 수단들이 성자를 위해 제정되었고(ordained), 그리스도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수 있게 되었다.³⁹⁷⁾

4. 예정의 두 가지 요소

예정은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를 포함한다. 이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final end)와 최종적인 운명에 이르기까지의 예정을 내용으로 한다.³⁹⁸⁾

예정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한 부분인 선택은 죄인들의 구원(salvation)을 위한 계획이며, 다른 한 부분인 유기는 죄인들의 영벌(eternal punishment)을 향한 준비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과, 유기된 사람들의 영벌의 이유와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유와 근거는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³⁹⁹⁾ 그러나 유기되어 영벌을 받는 사람들의 영벌의 이유와 근거는 그 자신들에게 있다.⁴⁰⁰⁾

1) 선택

(1) 선택의 정의 및 성경적 개념

먼저 선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의 예견된 가지적 공로 없이 사람들의 일정한 수를 택하여 특별은혜와 영원한 구원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이다. 이것을 줄이면, “선택은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심(purpose)”이다.

선택의 성경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특별한 은혜(privilege)와 특별한 봉사를 위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⁴⁰¹⁾

395) 뵤전 2:4

396) 고후 4:4; 골 1:15; 히 1:13; 롬 8:29

397) 눅 22:29

39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제3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게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다.”

399) 롬 9:16

400) 요 3:18,19 Calvin, *Institute*, v. III, chap. 3. 참조, quot. 박형룡, p. 283.

둘째로, 어떤 직무나, 어떤 특별한 종사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들의 선택⁴⁰²⁾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개인들의 선택⁴⁰³⁾

(2) 선택의 목적

선택의 목적은 가까운 목적과 최종적 목적으로 나뉜다.

(a) 가까운 목적은 선택을 받은 사람의 구원에 있다. 이는 성경이 명시하여 가르치고 있다.⁴⁰⁴⁾ 민족적 선택, 직무적 선택의 목적은 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구원론적 의미에서 개인의 선택을 깊이 관찰하면, 선택의 가까운 목적이란 개인의 구원밖에 다른 것은 없다.

(b)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⁴⁰⁵⁾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따라서 선택의 원인과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다.⁴⁰⁶⁾

(3) 선택의 특성

(a)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선택

성경은 선택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⁴⁰⁷⁾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 되었으며,⁴⁰⁸⁾ “그 기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니”⁴⁰⁹⁾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⁴¹⁰⁾라고 가르침으로써,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기뻐하심의 결과임을 증거한다.

John Calvin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구별 없이 아무에게나 구원의 희망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신다는 비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 영원한 선택의 교리를 잘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자비의 샘물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⁴¹¹⁾

Calvin의 요점은, 선택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일이라는 점이다.

401) 신 4:37; 7:6-8; 10:15; 호 13:5

402) 출 3:(모세); 신 18:5(제사장들); 삼상 10:24; 시 78:70(왕들); 렘 1:5(선지자); 여 6:70; 행 9:15(사도들)

403) 마 22:14; 롬 11:5; 고전 1:27,28; 엡 1:4; 살전 1:4; 벧전 1:2; 벧후 1:10

404) 롬 11:7-11; 살후 2:13

405) 엡 1:6,12,14

406) Herman Bavinck, p. 390.

407) 롬 9:11

408) 롬 9:15

409) 엡 1:9

410) 엡 1:11

411) Calvin, *Inst.* v. III, 21 chap., verse 1.

Calvin은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룩하신 뜻에 따라 구원에 적합한 사람”을 작정 하셨으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⁴¹²⁾

(b) 불변적인 선택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efficiency)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의해 선택을 실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받은 개인들이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의 주관적 활동에 의해 이 결과를 얻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견고하다.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에 의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에 의해 보증하신다.⁴¹³⁾ 또한 선택은 알미니안주의자들(Arminians)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예견된 믿음이나 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기뻐하심에 따르기 때문에, 선택은 무조건적이다.⁴¹⁴⁾

(c) 영원하며 불가항력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든지, 특권이나 봉사를 위하든지, 미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든지, 시산속의 선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⁴¹⁵⁾

에베소서 1:4, 5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의 ‘창세전’이라는 속어는 어떤 일이 영원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택(election)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대항할 수는 있으나, 결코 소멸시키거나 좌절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억제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감화하셔서(inspired), 사람이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다.⁴¹⁶⁾ 이것을 유효한 은혜(effectiv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라 일컫는다.⁴¹⁷⁾

412) Ibid., verse 7.

413) 롬 8:29,30; 11:29; 딤후 2:19

414) 롬 9:11; 행 13:48; 딤후 1:9; 벧전 1:2

415) 롬 8:29,30; 엡 1:4,5

416) 시 110:3; 빌 2:13

417)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제10장 <유효 소명에 관하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만을, 그가 정(定)하시고 열납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1).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2), 또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3),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이 선(善)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4)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효적으로 이끄시되(5),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욕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게 하신다(6).

(1) 롬 11:7, 롬 8:30, 살후 2:13, 14, 롬 8:2, 딤후 1:9, 10, (2) 행 26:18, 고전 2:10, 12, (3) 겔 36:26, (4) 겔 11:19, 겔 36:27, 빌 2:13, 4:13, 신 30:6, (5) 요 6:44, 45, (6) 요 6:37

2. 이 유효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 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 선견(先見)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7).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8), 이 소명에 응답하며 또 이것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9)

(1) 딤후 1:9, 달 3:4, 5, 롬 9:11, 엡 2:4 5, 8, 9, (8) 고전 2:14, 롬 8:7, 엡 2:5, (9) 요 6:37, 겔 36:27, 요 2:25

(d)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 시간 안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선택에는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속 (redemption)이 있을 뿐이다.⁴¹⁸⁾

2) 유기

성경적인 교리인 유기(遺棄; reprobation)는 어려운 교리에 해당되며,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수난을 겪어왔다.⁴¹⁹⁾ 예정 교리를 확립한 Augustine은 선택의 교리와 함께 유기 교리도 가르쳤다. John Calvin이 이 교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것은 그가 이것을 ‘두려운 작정’ (decretum horrible)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⁴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교리를 중요한 성경적 진리로 간주한다.

(1) 유기 교리의 증명

(a) 성경적 증거

유기라는 교리가 두려움을 포함한 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첫째로, 악을 위해 예정된 사람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며,”⁴²¹⁾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는 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 때문이다.⁴²²⁾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방탕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며,⁴²³⁾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⁴²⁴⁾ 또한 “떨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으며,⁴²⁵⁾ 이교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⁴²⁶⁾

418) 엡 1:4,9; 딤후 1:9; 롬 3:25; 벰전 1:19,20

419) Roman Catholic, Lutheran 학파, Arminians, Methodists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적 교리를 거부한다. 또한 Karl Barth나 Emil Brunner 등은 이 교리를 교묘한 방식으로 왜곡하여 가르쳤다.

420) John Calvin, *Institutes.*, III, 23, 7.

421) 잠 16:4

422) 벰전 2:8

423) 유 4

424) 계 13:8

425) 롬 9:22,23

426) 롬 1:38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고로 기뻐할만한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있다.⁴²⁷⁾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둘째로,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며,⁴²⁸⁾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⁴²⁹⁾

그리스도의 선언의 말씀이 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⁴³⁰⁾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⁴³¹⁾라고 말씀하셨다.

셋째로, 악한 마음이 강박하여 회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구약의 예들은, 헤스본 왕 시혼(신 2:30), 가나안 족속들(수 2:30), 흠니와 비느하스(삼상 2:25), 애굽 왕 바로(출 9:16; 롬 9:7).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지는 것은 그들의 본래 악한 마음과 충동에 버려두심으로써 그들의 심정이 더 완고하고 강화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기 전 기도하실 때, 오직 성부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려두심을 보여주셨다.⁴³²⁾ 최종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것이다. 즉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⁴³³⁾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기의 영원한 예정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장면이다.

(b) 논리적 정당성

‘선택,’ ‘선택받은 자’ 라는 단어에는 ‘유기,’ ‘선택받지 못한 자’ 라는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포함한다. 어떤 사람들이 선택될 때, 남은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전자가 누리는 특권에 후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Mozely는 말하기를, 타락한 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의 멸망의 무더기” (one mass of perdition)였는데, “얼마는 구출하고 기타는 그들이 있는 곳에 버려두기를, 얼마는 영광에 올리려고 자력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고, 나머지는 영벌에 내버려두려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을 주권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라고 지적했다.⁴³⁴⁾

427) 눅 10:20; 빌 4:3

428) 살후 2:11,12

429) 요 12:39, 40, 참고 마 13:14,15; 막 4:12; 눅 8:10; 요 12:40; 행 28:27; 롬 11:8-10;

430) 요 9:39

431) 마 13:11

432) 요 17:9

433) 마 25:41

434) Mozley, The Augustinian Doctrine of Predestination, p. 297, quot 박형룡 pp. 293-94.

(c) 원죄와 유기

유기의 작정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와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본다 (Total Depravity). 그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운 형벌에 내버려두시기 않고, 자격 없는 인류의 일부분에게 주권적으로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 반면에 인류의 다른 부분에게는 단순히 간과하셔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전부는 그를 버려두어 그의 가는 길을 허용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며, 단순히 그 성질을 변함없이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것뿐이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며, 결국 형벌로 가고 만다. 잃어진 사람들이 잃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⁴³⁵⁾

(2) 유기 교리의 설명

유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⁴³⁶⁾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지나가시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형벌하시기로 하신 그의 영원한 작정”이다.

(a) 유기의 두 가지 요소

유기에는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purpose)가 들어있다.

첫째로, 간과(看過; preterition)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중생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비추시는 데서 그대로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간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행동이다.

둘째는, 정죄(定罪; condemnation or precondemnation)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와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wrath)아래 두는 것이다. 간과는 순전히 수동적이며, 단순히 지나가시는 행동이다. 간과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선택하신 충분한 이유 때문에 간과하셨으며, 사람에게 의해 알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며, 다만, 정죄의 이유는 곧 죄 때문이다. 정죄는 유효하며 적극적이다. 간과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다.

(b)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혜

셋째로,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간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다.⁴³⁷⁾ 유기된 사람(reprobate)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선택 때문에 자연적 은사들을 제한

435) 요 5:40

436) Louis Berkhof, P. 116.

437) Ibid., p. 117. 이 은혜는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요, 죄인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이다.

하지지는 않는다. 이 땅에서 유기된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삶의 자연적 축복들을 누리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을 유기된 사람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중생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령자(recipient)가 되는 것이다.

5. 선택설(타락전 선택설)과 후택설(타락후 선택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는 작정이 세계를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한 작정보다 먼저 온다고 믿는 것이 타락 전 선택설(supralapsarianism)이다. 반면에, 그 후에 온다고 믿는 것이 타락 후선택설(infralapsarianism)이다.

이 두 개의 상반된 견해는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미 창조되고 타락한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되고 타락하기로 확정될 대상으로 보느냐의 문제를 가져온다.

1) 두 견해의 순서상의 차이점

(1) 선택설의 순서

이 논증은 보다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고, 유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보지만, 공의의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위한 작정(하나님의 의중에 존재) -> 선택자/유기자를 창조하기로 작정 -> 계획의 완성을 위해 인간에게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 ->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른 사람들은 간과/정죄하기로 작정하심

(2) 후선택설의 순서

이 견해는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 논증은 논리적이며, 역사적 순서와 조화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 견해는 보다 역사적이며, 도르트 공의회(the Canons of Dort)에서 개혁신교회가 공식적으로 수락하였고, 칼빈주의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에 해당되는 교리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인간 창조 작정 ->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 -> 일정한 숫자를 선택하시고 유기자들을 간과/정죄 받도록 작정 -> 택자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로 작정하심

2) 두 견해의 차이점

두 견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³⁸⁾

(1) 소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

첫째로, 하나님 작정의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타락을 예지(foreseen)의 기초위에 두는 것은 큰 차이점을 만들지만,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간과(preterition)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will)의 행동임을 말한다.

셋째로, 죄에 대한 작정이 허용적이라는 견해의 강조점은 다르나, 근본적 차이점은 없다.

넷째로, 타락 전 선택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가운데 정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이이며, 확실하게 사람의 죄를 고려해 넣는다고 가르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적극적인 면

(a) 예정의 범위

(ㄱ) 전택설: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예정의 작정에 포함시킨다. 이에 의하면, 사람은 예정에서 창조되되, 이미 타락된 자로 창조된다.

(ㄴ) 후택설: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으로 언급한다. 이에 의하면, 사람은 예정에 의해 창조되되, 타락된 자로 나타나지 않고 창조된다.

(b) 작정의 논리적 순서

첫째로, 전택설이 제시하는 순서:

(ㄱ)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이성적 피조물들의 멸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확장시키려는 작정

(ㄴ) 이와 같이 선택되고 유기된 자들을 창조하려는 작정

(ㄷ) 선택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고, 유기된 자들을 정죄하려는 작정

둘째로, 후택설이 제시하는 순서

(ㄱ) 사람을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하시려는 작정

(ㄴ) 사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기 결정에 의한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

(ㄷ) 이 죄인의 무리로부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작정

(ㄹ) 나머지들은 그들이 범죄하는 자기 결정에 남겨두고, 그들을 자신들의 죄에 해당하는 의로우신 형벌에 처하게 하시려는 작정

438) Louis Berkhof, pp. 118-19.

(c) 예정의 인격적 요소와 피택자들

첫째로, 전택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시려는 작정에까지도 선택받은 자들을 주목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인격적 요소가 나타났다고 강조한다.

둘째로, 후택설은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시려는 작정 후에까지 이 인격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작정들 가운데 피택자들은 전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주목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성경적 근거와 논증

(1) 전택설

(a) 이 견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특히 죄와 관계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구절을 근거로 삼는다.⁴³⁹⁾ 이 견해에서는 특히 토기장이의 비유가 강조된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일반적 주권을 강조하며, 특히 창조 시에 질그릇들의 성질(nature)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b) 전택설이 받아들이는 작정들의 순서는 후택설의 것보다 더 이상적이며, 더 논리적이며 통일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택설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한다. 또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인정하며, 타락을 허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기뻐하심(good pleasure)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c) 천사들에 대한 예정은 전택설의 입장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분한 이유로, 어떤 천사들에게는 견인(인내; perseverance)의 은혜를 주셔서 영광의 길로 확증하시고, 다른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연결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2) 후택설

(a) 이 견해는 특히 선택의 대상들이 죄의 상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는다.⁴⁴⁰⁾

이 구절들은 사람의 타락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예정보다 더 앞서 있음을 말해준다.

(b) 이 견해에 따른 작정의 순서는 전택설에 제시된 것보다 철학적이지 못한 반면, 더 자연적이다. 또한 작정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경에 계시된 인과적이며 역사적인 순서(a causal order)와 조화된다.

439) 시 115:3; 잠 16:4; 사 10:15; 45:9; 렘 18:6; 마 11:25,26; 20:15; 롬 9:17, 19-21

440) 마 11:25,26; 요 15:19; 롬 8:28,30; 9:15,16; 엡 1:4-12; 딤후 1:9

(c) 개혁주의 교회의 공적인 교리서, 즉 표준적 신앙고백서들은 언제나 후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⁴¹⁾ 그러나 전택설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전택설이 개혁주의 신학과 중대하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⁴⁴²⁾

4) 두 견해에 대한 평가

두 견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⁴⁴³⁾

(a) 전, 후택설 모두가 절대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신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의 이상적이고, 목적론적인 순서에,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순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두 견해들은 서로 제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b) 두 견해 모두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택설은 선택과 유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들에, 후택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강조하는 구절들에 그 근거를 둔다.

(c) 두 견해들은 각각 장점들을 갖고 있다. 전택설은 하나님을 정당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하신 기뻐하심을 고려하고 있으며, 후택설은 보다 더 부드럽고 온화하며, 실제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

(d) 두 견해는 필연적으로 모순된 점도 안고 있다. 전택설은 죄를 진행(progression)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창조의 혼란(disturbance)로 이해해야 하며, 이 견해는 또한 죄에 대한 허용적인 작정도 언급한다. 후택설은 결국 죄를 확실하게 하는 허용적인 작정에 의존해야만 한다.

441) 돌트신경(the Canon of Dort)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은 모두 후택설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돌트대회(the Synod of Dort: 1618-1619)와 웨스트민스터 공의회(the Westminster Ass. 1643-1649)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5대 교리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견해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파)
인간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부인 (자유의지 잔존)
예정	무조건적 선택(예정) Unconditional Election	예지예정
속죄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만인 속죄
은총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있는 은혜
구원	성도의 견인(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Saints	궁극적 구원 부인

442) 돌트대회(the Synod of Dort)와 웨스트민스터 공의회(the Westminster Assembly)의 저명한 지위의 회원들(두 회의의 의장들)은 전택설 지지자들이었다. 아울러 1908년 개혁교회회가 채택한 utrecht(Utrecht)의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전택설의 견해를 개혁교회들의 교리로 나타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443) Louis Berkhof, pp. 124-25.

(e) 두 견해에서 각각 참된 진리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선택설의 경우, 하나님의 작정은 한 개의 단위(unit)에 해당됨을 알게 해 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궁극적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활동에 즉시 적용되었다.

후택설의 경우, 하나님의 작정들에는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또한 창조와 타락은 단지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없으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죄는 진행적 요소로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안의 혼란의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5) 예정의 결론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장(章)을 마감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정은 결국 선택에 이르게 되는데, 예정은 선택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고 충만한 현실에 이른다. 모든 작정들과 같이, 선택 역시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다.

동시에 유기 또한 잊혀서도 안 된다. 유기라는 어두운 배경에서만 선택이 가장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선택은 언제나 유기를 토대로 하고, 유기와 나란히 공존한다. 이성적 피조물들의 영원한 생사회복이 걸린 이 최고의 영역인 예정에서 햇빛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나오고, 빛이 흑암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⁴⁴⁴⁾

둘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행동

2차적인 원인이 아닌,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탐구가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 피조물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왜 피조물들 사이에 본성, 성질, 성별, 종류, 권세, 지성, 부요함, 영광 등의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왜 어떤 천사들은 영원한 영광에, 다른 천사들은 타락과 멸망으로 예정되었는가? 왜 그리스도가 취하신 사람의 본성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었는가? 왜 어떤 아이는 일찍 죽어도 언약의 자손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다른 아이는 언약 밖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죽는가?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가?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따라 시행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과 유기는 궁극적 원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는 유기는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인 작정들은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절대적인 행동들이다. 그리고 유기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와 불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⁴⁴⁵⁾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예지된 믿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이 믿음의 기초가 되며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이 확고하게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는 것이다.

444) Herman Bavinck, pp. 401-02.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법칙은 어디서나 유효하다.

445) 잠 16:4; 마 11:25,26; 롬 9:11-22; 벰전 2:8; 계 13:8

III. 창조

1. 창조 개관

하나님의 신적 작정(decree)과 예정(predestination)이 있는 이후에는 그 경륜을 시행하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시행은 창조의 역사로 시작된다.

창조(creation)는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처음이자 토대가 된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삶과 윤리적 생활의 근본이 된다.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창조주(creator)와 피조물(creature)의 관계로 이해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된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독립적 존재에 대한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absolute cause)이 되신다.⁴⁴⁶⁾

2. 성경적 증거 및 용어 설명

(1) 성경적 증거

창조 교리는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며, 믿음으로 이해된다.⁴⁴⁷⁾ 과학과 이성은 변화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을 증명하지 못하며, 영원성에 반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데 반해, 성경은 그 기원을 증거한다. 따라서 창조교리의 증명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⁴⁴⁸⁾ 어떤 물질이나 원리도 하나님을 거슬러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으며,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⁴⁴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무한한 소유주가 되신다.⁴⁵⁰⁾

446)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 ed. John Bolt &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p.407.

447) Ibid., p. 408. 참고로 창조에 관한 성경적 설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 1, 2장: '태초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된 것과, 신적 명령을 원인으로 묘사했고, 이 기록이 후대의 모든 성경에 포함되었다. (2) 요 1:3: 창조가 선언되어 있다. (3) 골 1:15-17: 창세전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한다. (4) 창조와 관련된 신적 속성들을 찬양하는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a) 전능하신 하나님: 사 40:26, 28, (b) 초월적 하나님을 가리킴: 시 90:2; 행 17:24, (c) 창조사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함: 사 40:12-14, (d)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의 견지에서 창조를 고찰함: 사 43:7; 롬 1:25, (e)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송영함: 느 9:6; 사 42:5, 45:18; 계 4:11; 10:6

448) 창 1:2,3; 시 33:6; 104:29,30; 148:5; 욥 26:13; 33:4; 사 40:13; 48:13; 스후 12:1; 요 1:3; 골 1:16; 히 1:2 등

449) 창 1:3; 시 33:9; 롬 4:17

450) 창 14:9,22; 시 24:1,2; 89:11; 95:4,5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자신이 기뻐하심으로 보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⁴⁵¹⁾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⁴⁵²⁾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다.⁴⁵³⁾ 세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계시하며,⁴⁵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⁴⁵⁵⁾

이와 같이 성경에서 모든 것위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창조교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준다.⁴⁵⁶⁾ 창조 교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위엄, 지혜, 사랑을 드러내므로,⁴⁵⁷⁾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게 하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준다.⁴⁵⁸⁾

(2) 용어 설명

(a) 히브리어 בָּרָא (bara) 및 헬라이어 κτίζεῖν (ktizein): 이 단어들은 항상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성경은 이 용어들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첫째로, 제2차적인 창조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 즉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사용된다.⁴⁵⁹⁾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상의 지도 아래 생성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⁴⁶⁰⁾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בָּרָא (bara)는 원래 의미는 “쪼개다,” “자르다,” “나누다” 이다.

2차적으로 “형성하다,” “창조하다” 를 의미한다. 여기서 파생되어, “산출하다,” “생성하다,” “증생하다” 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언제나 인간적인 소산물이 아닌 신적인 소산물에만 사용되는 특성을 가졌다. 동시에 물질을 목적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⁴⁶¹⁾

(b) 히브리어 עָשָׂה (asah) 및 헬라이어 ποιεῖν (poiein), יָצַר (yatsar) 및 헬라이어 πλασσω (plasso): 전자는 ‘만들다’ 의 뜻이며, 후자는 ‘형성하다 또는 짓다’ 의 뜻이다.

전자와 후자 모두가 본래적인 창조와 부차적인 창조 또는 섭리의 사역의 의미로 사용된다.⁴⁶²⁾ 또한 עָשָׂה (asah)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향하다,” “만들다” 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하다, 만드다, 제조하다, 형성하다” 를 의미한다.

451) 사 14:24,27; 46:10; 55:10,11; 시 115:3; 135:6

452) 롬 11:36; 고전 8:6; 히 11:3

453) 시 33:6; 계 4:11

454) 잠 8:22f; 욥 28:23f; 티 104:1; 136:5f; 렘 10:12

455) 사 43:16f; 잠 16:4; 롬 11:36; 고전 8:6

456) 출 20:11; 신 10:12-14; 왕하 19:15; 느 9:6

457) 시 19편; 욥 37장; 사 40장

458) 시 33:6f; 65:5ff; 89:11; 121:2; 134:3; 사 37:16; 40:28f; 42:5 등

459) 창 1:21,27; 5:1; 사 45:7,12; 54:16; 암 4:13; 고전 11:9; 계 10:6

460) 시 104:30; 사 45:7,8; 65:18; 딤후 4:4

461) Louis Berkhof, p. 132. 이 단어가 섭리의 사역에도 사용된다(사 45:7; 렘 31:32; 암 4:13)

462) 전자는 본래적(창 2:4; 행 17:24), 부차적(창 1:7,16; 시 89:47), 섭리(시 74:17), 후자는 보낼적(시 90:2), 부차적(창 2:7,19; 숙 12:1), 섭리(신 32:18; 사 43:1,7) 등이다.

יָצַר(yatsar)는 독특하게 “이미 있는 재료로부터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며,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낼 때 쓰인다. 참고로 재료는 가장 고운 흙가루였다.

3. 창조 교리의 역사성

교회는 처음부터 무(無)로부터의(ex nihilo) 창조, 또는 하나님의 자유의 행동으로서의 창조 교리를 가르쳤고, 이 교리는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⁴⁶³⁾ Augustine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르친 사람들보다 더욱 세밀하게 다루었다. 그는 창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있었고, 따라서 그의 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시간 안에, 또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자유행동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창조 교리를 분명히 주장했다. 또한 창조의 날들을 문자적인(literal) 6일로 간주했다.⁴⁶⁴⁾

4. 창조의 개념

1) 창조의 정의

창조를 엄격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⁴⁶⁵⁾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에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가지적 또는 불가시적인 우주를 생성하시고, 자신과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시되,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적 행동이다.

이 정의는 창세기 1장1절에 설명되어, 일반적으로 본래적(primary) 또는 즉각적인 창조(immediate creation)로 알려진 것에만 적용된다.⁴⁶⁶⁾

창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⁴⁶⁷⁾

2) 창조의 개념

(1)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

463) Louis Berkhof, p. 126. 이와 같이 창조교리를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은 Justin Martyr, Irenaeus, Tertullian, Clement of Alexandria, Origen 등이다.

464) Ibid.

465) Ibid., p. 129.

466) 성경은 또한 해, 달, 별, 동물, 사람의 창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신 경우에도 “창조”라는 단어를 확실히 쓰고 있다. 한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즉 무로부터의 직접적(즉시적) 창조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제2원인들과 연합하여 일하는 간접적 창조가 있다(C. Hodge, *Sys. Theo.* Vol. I, pp. 556-57)

467) Louis Berkhof, pp. 129-38.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창시자이심을 가르친다.⁴⁶⁸⁾

성부는 창조의 사역의 전면에서 계시며,⁴⁶⁹⁾ 이 사역은 또한 성부와 성자의 사역으로 인정되고,⁴⁷⁰⁾ 성령 또한 창조사역에 참여하셨다.⁴⁷¹⁾ 우주 만물은 곧 성부로부터(out of), 성자를 통해(through), 성령 안에(in)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being)는 성부로부터 나오며, 사상이과 이념은 성자로부터,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점을 가르친다. 즉 우주의 기원은 이미 있는 물질에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와 말씀으로 직접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창조관은 절대적 필연성이 아닌 특수한 의미의 상대적 필연성을 인정한다.⁴⁷²⁾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필연성이기 때문에 절대적 의미의 필연성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⁴⁷³⁾ 자족하시되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⁴⁷⁴⁾

(3) 하나님의 시간적 행동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다.⁴⁷⁵⁾ 일상생활의 평범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태초’ (בְּרֵשִׁית; bereshith; in the beginning)라는 단어를 절대적 의미로 취하면 모든 시간의 일들, 심지어 시간 그 자체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창조하셨다. 창조가 하나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존재의 어떤 부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Augustine은 “세상은 시간 속에서(in tempore)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cum tempore) 만들어졌다” 라고 올바르게 선언했다.⁴⁷⁶⁾ 성경의 맨 첫머리의 중요성은 세계의 시작이 있었다고 가르치는데 있다.⁴⁷⁷⁾ 창조는 시간적인 존재로 귀착되어 시간으로 끝난다.

468) 창 1:1; 사 40:12; 44:24; 45:12

469) 고전 8:6

470) 요 1:3; 고전 8:6

471) 창 1:2; 욥 26:13; 33:4

472) 절대적 필연성은 유출에 대한 옛 이론들과, 그것을 복사한 현대의 범신론적(Pantheistic)이론들은 자연히 세계를 신적 진화의 과정에서의 한 순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계를 신(神)의 필연적 행동으로 본다(Spinoza, Hegel).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473) 엡 1:11; 계 4:11

474) 욥 22:2,3; 행 17:25

475) 창 1:1

476) Herman Bavinck, p. 429.

(4) 무(無)에서 만들어내는 행동

창조사역은 근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없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이다. ‘창조하다’ 라는 단어에는 엄밀하게 무에서 무엇인가를 산출하는 것, 기존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상 부적당한 어떤 기존자료에서부터 무엇을 산출하여 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⁷⁷⁾ 세상은 원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의지가 세상의 존재의 원인이었다.⁴⁷⁹⁾

(ㄱ) 성경적 근거

(a)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은 창조사역의 시초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재료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조였다.⁴⁸⁰⁾

(b) 히브리서 11:3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창조가 믿음으로만 이해 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말씀은 믿음에 의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즉 신적인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게 됨을 말씀한다. 이 구절은 세계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준다.

(c) 로마서 4:7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을 갖게 될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으며,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함을 알게 해 준다.

(5)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

(a)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성

창조 교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이며, 본질적인 존재의 고유함에서도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구별됨을 가르친다. 창조 교리는 하나님이 자존, 자족, 무한, 영원하신 반면, 창조된 세계는 의존해야 하고, 유한하며, 시간적임을 말해준다.⁴⁸¹⁾

477) 창 1:1; 마 19:4,8; 막 10:6; 요 1:1,2; 히 1:10; 시 90:2; 102:25

478)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체를 흙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그 좋은 예다.

479) 창조의 성경적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은 시 33:9; 148:5; 히 11:3에서 발견된다.

480) 따라서 John Calvin은 창세기 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 즉 단순한 신적 명령에 의해서 만물들을 부르신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1장에 기록된 창조 사역에서만 창조라는 용어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481) 이 교리는 우주를 하나님의 존재형식으로 간주하고, 절대자의 현현(the phenomenal appearance), 또는 세계의 내적 법칙으로 여기는 모든 범신론적 이론들과 유출이론으로부터 진리를 방어하는 방어벽이다.

하나님은 세계와 절대적으로 독립하시고, 세계 위에서 영원히 완전함을 즐거워하시며, 영광스럽고, 경외적이며, 기적을 행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이다.⁴⁸²⁾

(b)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

하나님은 세계를 자신과 구별되게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세계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높이신 초월적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각처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각처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다.⁴⁸³⁾

5.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대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함이다. 특별히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인간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1) 하나님의 선언적 영광을 위함이며,⁴⁸⁴⁾ (2) 인간에게 복을 주심과 아울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⁴⁸⁵⁾

1) 하나님의 선언적 영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창조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자신, 좀더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의 본래적인 탁월성(inherent excellency)의 외부적인 나타나심(external manifestation)에서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받으시는 영광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피조물들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최고의 목적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단독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시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런 완전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manifested).⁴⁸⁶⁾ 그러므로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the supreme end of God),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종속적인 목적으로서 피조물들의 행복과 구원,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포함한다.⁴⁸⁷⁾

Louis Berkhof, p. 134.

482) 사 42:5; 행 17:24; 시 102:27; 말 3:6; 약 1:17; 시 90:2; 102:25-27; 103:15-17; 사 2:21; 22:17 등

483) 시 104: 30; 139:7-10; 렘 23:24; 행 17:28; 고전 3:16; 6:19

484) 창 1:31; 고전 10:31

485) 창 1:26-28

486) Louis Berkhof, p. 136-37.

487) 사 43:7; 60:21; 61:3; 겔 36:21; 눅 2:14; 롬 9:17; 고전 15:28; 엡 1:5; 골 1:16; 사 40:15; 욥 23:13

6. 창조 교리에 관한 여러 이론들

성경에 명시된 창조 교리를 반대하는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물질이 다 같이 영원하며, 이데아와 물질세계가 상존한다는 이원론(Plato, Aristotle, 영지주의자, 마니교), 하나님과 세계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세계는 하나님의 현상적 현현이라고 범신론적으로 주장하는 유출론, 물질이 영원하며 생명기원이 자연발생적이라는 진화론, 우주가 존재의 전체이며 영원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우주 영원론 등이다.

한편 장로교의 한 분파에서 주장하는 유신진화론(James Orr, A.H. Strong 주장)이 있는 바, 이 이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결합한 것이며,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믿으나,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종(種; species) 사이의 진화의 흔적이 없으며, 인간의 영적, 정신적인 면을 설명하지 못한다.

7. 영적 세계-하늘

1) 천사들의 존재와 특성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천지는 곧 하늘과 땅을 의미하며, 하늘의 창조는 곧 영적 세계의 창조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천사들로 되어 있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일관되게 천사의 존재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했다. 천사들은 지성과, 도덕적 성격을 소유하고 인격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488)

천사는 결혼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으며, 육체가 없으며,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선하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빛의 천사로 표현되고 다른 얼마는 원시상태에서 타락하여 악한 천사로 표현된다.

성경은 천사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천사들은 자주 하늘, 하나님의 만군(무리의 뜻)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이유이다. 489) 성경적인 모든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강력한 군대(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사들의 완전한 수가 태초에 창조되었다. 490)

2) 천사들의 등급

성경에서의 ‘천사’ 라는 명칭은 성질상의 명칭(nomen naturae)이 아닌, 직무상의 명칭

488) 천사들은 사랑하고 기뻐하며, 원하고, 다투며, 예배드리며, 말하며, 오고가기도 한다.

489) 신 33:2; 시 68:17, 막 5:9,15; 마 26:53; 계 5:11

490) Louis Berkhof, pp. 145-46.

(nomen officii)이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사람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 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⁴⁹¹⁾

(ㄱ) 그룹천사(Cherubim): 성경에 자주 언급된다. 낙원의 입구를 지키며, 속죄소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룹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⁴⁹²⁾

(ㄴ) 스랍천사(Seraphim): 이사야 6:2,3,6에 기록된 천사이다. 그들은 그룹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며, 찬양하며, 명령을 준행하기로 항상 준비하고 있다. 스랍은 화목의 목적을 이루어,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한다.⁴⁹³⁾

(ㄷ)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⁴⁹⁴⁾은 인간에게 신적 계시를 전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직무였다. 미가엘⁴⁹⁵⁾은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으로 불렸고, 계시록 12:7에서는 천사들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악한 영적 세계의 권세에 대하여 여호와와의 전투를 담당하는 전사이다.

(ㄹ) 정사, 권세, 보좌, 주관: 이 명칭들 역시 천사들을 부르는데 사용되었다. 이 명칭들은 천사들의 종류가 아니라, 특별히 그들의 등급과 권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⁴⁹⁶⁾

3) 천사들의 사역

천사들의 사역은 통상적인 봉사와 비상시의 봉사, 영원한 봉사로 나뉜다.

(ㄱ) 통상적인 봉사

- (1)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⁴⁹⁷⁾
- (2) 교회에 임재한다.⁴⁹⁸⁾
- (3)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한다.⁴⁹⁹⁾
- (4)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⁵⁰⁰⁾
- (5) 성도들을 지킨다.⁵⁰¹⁾
- (6) 작은 자를 보호한다.⁵⁰²⁾
- (7)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⁵⁰³⁾

491) 학 1:13; 말 2:7; 3:1; 욥1:14; 상상 11:3

492) 창 3:24; 출 25:18; 시 80:1; 사 37:16; 히 9:5

493) 사 6:2,6에만 언급된다.

494) 단 8:16; 9:21; 눅 1:19, 26 등 여러 구절에서 언급된다.

495) 단 10:13,21; 유 9; 계 12:7

496) 엡 1:21; 3:10; 골 1:16; 2:10; 벧전 3:22

497) 욥 38:7; 사 6장; 시 103:20; 148:2; 계 5:11

498) 고전 11:10; 딤후 5:21; 엡 3:10; 벧전 1:12

499) 눅 15:10

500) 눅 16:22

501) 시 34:7; 91:11

502) 마 18:10

(ㄴ) 비상시의 봉사

- (1)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중계한다.
- (2)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전달한다.
- (3)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집행한다.

(ㄷ) 영원한 봉사

- (1) 영원히 하나님께 봉사한다.

4) 악한 천사들

(1) 기원과 타락

성경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음을 말씀한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며, 악한 천사들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이 자신들의 원래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창조된 신분에서부터 타락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⁵⁰⁴⁾

그들의 타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타락 시기: 악한 천사들은 창조 이 후 사람이 타락하기 전 타락했다.
- (2) 타락 원인: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 반역, 대항, 최고 권위의 야망, 지상 통치권
- (3) 타락 후 활동: 하나님과 그 사업에 반항, 성도들 유혹, 천사에게 반항, 사단과의 협력, 도덕적 문란, 이단교리, 영적 방해공작, 질병 유발 등이다.
- (4) 그들의 최후: 불 못에 던져져 영원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⁵⁰⁵⁾

(2) 우두머리

사탄이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인정된 우두머리(recognized head)로 나타난다.⁵⁰⁶⁾ 사탄은 천사들 가운데 강력한 군주(prince) 중의 하나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자들 가운데 지도자가 된 것 같다.

‘사탄’ (Satan)이라는 명칭은 ‘대적자’ (the Adversary), 즉 하나님의 대적자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사탄은 창조물의 최고인(master piece) 아담을 공격하고, 파괴했으므로 ‘*Ἀπολλύων*’ (Apollyon; the Destroyer; 파괴자)라고 부르며, 교회에서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διδάβωλος*’ (Diabolos; the Accuser; 고소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하여 고소한다.⁵⁰⁷⁾

503) 히 1:14

504) 벧후 2:4; 유 6

505) 계 20:7-10; 마 25:41

506) 마 25:45; 9:34; 엠 2:2

507) 계 12:10

성경은 그를 죄의 창시자(the originator of sin)로 설명하고 있다.⁵⁰⁸⁾

사탄은 성경에서 자주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사탄이 악한 세계, 즉 오직 윤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악한 세계를 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온 세계를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사탄은 초인적(super-human)이지만, 신적인(divine) 존재는 아니다. 능력을 가졌으나, 전능(omnipotent)하지는 못하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제한을 받으며,⁵⁰⁹⁾ 결국 무저갱(the bottomless pit)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다.⁵¹⁰⁾ 한 편 악한 천사들 또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전념한다.

악한 천사들은 결국 잃어버린바 되고, 소망이 없는 영들이다. 그들은 John Calvin이 말한 대로, 비록 일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죄사슬을 끌고 다니는 존재들이다.⁵¹¹⁾

8. 물질적 세계-땅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천지는 곧 하늘과 땅을 의미하며, 땅의 창조는 곧 물질적 세계의 창조를 가리킨다.

1) 창조의 기록과 신학

물질적 세계는 영적 세계와 나란히 존재한다. 천사들의 실재와 존재는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므로 이성과 학문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물질적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 관찰될 수 있으므로 신학, 철학, 종교, 학문에서 논의될 수 있다.

신학이 피조물과 관계하는 것은 오직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며,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피조물들을 다루는 것마다 신학이며 신학으로 머물게 된다.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 사역에 대한 특별계시의 지도를 받으며 모든 것을 추적하여, 하나님과 연관시켜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⁵¹²⁾

그러므로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의 자기계시(self-revelation)의 시작이며, 만물이 하나님과 갖는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⁵¹³⁾

508) Louis Berkhof, p. 149. ckd 3:1,4; dy 8:44; 고후 11:3; 요일 3:8; 계12:9:2 0 : 2、 0

509) 마 12:29; 계 20:2

510) 계 20:10

511) 벵후 2:4; 유 6

512) Herman Bavinck, p. 474.

513) Louis Berkhof, p. 150.

2) 창조의 기록에 관한 기원

성경의 창조의 기록과 바벨론 창조 설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바벨론의 설화는 바벨론 도시에 국한하여 여러 신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⁵¹⁴⁾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적 개념들에서 발견된다.

바벨론 설화의 신들은 다신적(多神的; polytheistic)이다. 그들의 신들(gods)은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어두운 계획을 꾸미며, 서로 음모한다. 특히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인 말둑(Marduk)은 사악한 세력을 이기고, 오랜 투쟁을 거친 후에야 성공한다. 이에 반하여 성경의 창세기에서 우리는 가장 숭고한 유일신론(monotheism)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단일한 말씀으로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신다는 것 알게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필요하다.

(a) 창조의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b) 과학과 철학은 동일하게 무(無)로부터의 창조개념을 반대한다.

(c) 우리는 오직 믿음에 따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하 11:3).

그러므로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또는 초기 족장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일 이 계시가 모세 이전에 있었다면, 대대로 이어오다가 성령의 인도 하에 성경의 첫 권에 기록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⁵¹⁵⁾

3) 6일의 천지창조

6일의 천지창조(Hexaemeron)는 기독교 신학이 특별한 사랑과 호감으로 취급해 왔다. 이에 대한 참고 문헌 또한 풍부하다. 우주가 무에서부터 순식간에 만들어진 후, 존재하고 있는 혼돈(the existing chaos)은 점진적으로 6일 동안에 우주, 즉 거주할 수 있는 세계로 변화되었다.

(1) ‘날’에 대한 문자적 해석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적인 날(^{יום}; yom)로 이해하는 것이 언제나 지배적인 견해이며, 이 용어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다음의 여러 관찰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⁵¹⁶⁾

(1) 날(^{יום}; yom)은 본래의 의미로 자연적인 날(24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며, 이 단어가 문맥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주석상의 규칙이다.

514) Ibid.

515) Ibid., p. 151.

516) Ibid., p. 153.

(2) 창세기의 저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들을 첨가하여 문자적인 해석(24시간 개념)에 절대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날은 수천 년의 세월에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3)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도록 명령받았다(출 20:9-11).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6일 동안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구별된 안식일은 분명히 문자적인 날이었고, 다른 날들도 동일하였다.

4) 각 날들의 사역

(1)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되었고, 빛과 어두움의 구분으로 낮과 밤이 구성되었다. 하나님은 즉시 빛과 어두움의 교대에 관한 법칙을 제정하셨고, 빛을 낮,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각 날의 사역의 관한 기사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라는 말들로 끝난다. 날들은 저녁에서 저녁으로 계산되지 않고 아침에서 아침으로 계산되었다.

(2) 둘째 날

둘째 날의 사역 또한 구분의 사역이었다.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에 의해 성립되었다. 여기서 히브리어 רָקִיעַ(raquia)는 우리말의 창공/대공(expanse)을 의미한다.

(3) 셋째 날

이 날의 구별은 육지로부터 바다로, 그리고 식물계가 성립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a) “땅은 풀을 내라” 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의 원리를 땅에 심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식물이 생기도록 하신 것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점이다.⁵¹⁷⁾

(b) “땅이 출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라는 말씀(12절)은 식물들의 서로 다른 종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각 식물은 그 종류대로 씨를 맺으며, 그 종류만을 번식할 수 있었다.

(4) 넷째 날

해, 달, 별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쓰이도록 발광체로 창조되었다.

(a) 낮과 밤을 구분하며

(b) 기본 위치를 나타내며, 기후의 변화를 예시하고, 중요한 미래 사건들과 장차 올 심판의 징조

517) 창 2:9

를 나타내며

- (c) 계절들의 변화와 연한의 계속, 절기들의 순환을 위하여
- (d) 비추는 빛으로 땅의 유기적 생명들의 발육을 위해 창조되었다.

(5) 다섯 째 날

이 날에는 새와 물고기, 즉 공중과 물에 사는 생물들로서, 기관과 구조가 비슷한 생물들이 창조되었다. 또한 그들의 활동 영역은 육지와 달리 유동적이며 불완전한 활동성이 요구되는 물과 공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6) 여섯 째 날

이날의 창조 사역은 절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의 명령에 의해 생겨나게 하시되,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사람의 창조는 먼저 있는 엄숙한 의논, 즉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는 의논에 의해 다른 창조들과 구별되고 있다. 앞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출현을 위한 준비였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이며, 창조의 왕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형(archetype)이시오 사람은 복사(ectype)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 형상이 원형과 여러모로 같다는 개념을 갖는다. 사람은 그의 내적인 모든 존재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7)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완성된 사역을 즐거워하시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깊이 칭찬하고 감탄하시며 즐거움으로 바라보시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신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하였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광스런 완전성들이 반영된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9. 창조 교리와 진화론

진화론(the Theory of Evolution)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 1) 진화론은 창조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진화론은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물질과 세력은 무로부터 진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적 진화론은 창조의 기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진화론적인 가설은 식물이 자연적 발전의 과정을 거쳐 무기질의 세계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이다.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적인 세력들이 어떤 종류로부터 다른 종류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같은 종류의 번식을 위해 씨를 내게 하셨다고 설명한다.

2) 자연적 진화론은 입증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진화론자들이 단지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진화론자들의 진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진화의 원리를 고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화론적 작용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전에는 다윈(Darwin)이 모든 열쇠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열쇠가 폐기되었다.

진화론의 가설은 사람의 심리적인 면을 설명할 수 없으며, 사람의 신체가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도 실패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했다.

3) 유신적 진화론은 비성경적이다

유신적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 교리와 진화론을 조화시키려고 추구하는데서 나왔다. 이 이론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 즉 자연적 발전의 과정에 의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큰 거부감 없이 자유스럽게 교회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론이 가르치는 것들은, 세계가 산출되는 기간을 수만 년으로 잡으며, 각종 동식물의 창조를 부인하며, 사람은 육체적인 면에서 동물의 자손이며, 타락은 없었으며, 타락의 행위들을 범하지 하지 않으며, 기적을 부인하며, 회심, 중생, 성화를 단순한 자연적 심리적인 변화로 가르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성령의 유효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이론이다.

IV. 섭리

1. 섭리의 정의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으나, 섭리의 교리는 성경적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 ‘*πρόνοια*’ (pronoia)와 상응하는 라틴어 ‘*providentia*’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원래 예지(prescience; 또는 예견; foresight)을 의미했는데, 다른 뜻으로 변화되어,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섭리’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다스리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규정 및 모든 피조물들의 보존과 다스림을 의미한다. 즉 작성된 일들에 대한 효과적인 다스림(administration)이다

그러므로 작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신적 보존(Divine preservation), 신적 협력(Divine concurrence), 신적 다스림(Divine government)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섭리의 구분

일반적으로 섭리는 일반섭리와 특별섭리를 구별하고 있다.

일반섭리는 우주 전체를 관할하심을 나타내며, 특별섭리는 전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각 부분을 돌보시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두 종류의 섭리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섭리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계에서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특별섭리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관련된다. 특별섭리는 기도의 응답, 고통에서의 구출, 은혜와 도우심이 위급한 상황에 임하는 모든 경우에서의 특별한 연합(combination)을 의미한다.

3. 섭리의 대상과 특성

1)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과 지배를 가르치고 있다. 즉, (1) 우주전체, (2) 물리적 세계, (3) 맹수의 세계, (4) 국가의 사건들, (5) 인간의 출생과 종말, (6) 우발적 사건들, (7) 의인의 보호, (8)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공급, (9) 기도의 응답, (10) 악인의 적발과 형벌 등이다.

2) 하나님 섭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성: 섭리의 범위가 보편적이다. (2) 주밀성: 하나님은 세밀하게 섭리하신다. (3) 주권성: 인간 및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관하신다. (4) 허용성: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4. 섭리의 3요소

1) 신적 보존

(1) 신적 보존의 정의

먼저 신적 보존(Divine preservation)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물들을 자신이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으로써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2) 신적 보존의 성격

(a) 구별과 의존

신적 보존은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후원하시는 그의 지속적인 사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 질서대로 유지시키신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이며 독립적이며, 하나님의 독점적 특성인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⁵¹⁸⁾

(b) 신적 권능의 계속적 활용

모든 피조물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서 발휘된 그 것과 똑 같이 적극적이다. 만물을 그 존재와 행동에서 유지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한 성격은 하나의 신비이다. 그러나 섭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피조물들의 성질(nature)에 순응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2) 신적 협력

(1) 신적 협력의 정의

“신적 협력(Divine Concurrence)이란 이미 제정된 작용의 법칙들을 따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모든 피조물의 종속적 능력과 더불어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협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끼리도 상호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세력이나 인간 의지와 같은 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결코 독립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적 협력의 성경적 증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의 존재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행동이나 작용에도 관계하는 것을 가르친다.

518) 신 33:12,25-28; 삼상 2:9; 느 9:6; 시 107:9; 127:1; 145:14; 마 10:29; 행 17:28; 골 1:17; 히 1:3 이 성경구절들은 많은 성경구절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구절들 가운데 얼마는 다음과 같다. 창 28:15; 출 14:29; 신 1:30,31; 욥 1:10; 시 31:20; 사 40:11; 렘 30:7,8; 겔 34:11; 단 12:1; 슥 2:5; 눅 21:18; 고전 10:13; 고후 20:15; 벧전 3:12; 계 3:10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통제된다는 일반적인 진리가 성경에 드러난다. 즉 요셉은 형제들 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한다.⁵¹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말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다.⁵²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⁵²¹⁾ 또한 잠언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친다.⁵²²⁾ 그 외에도, 에스라 6:22, 신명기 8:18, 사무엘하 16:11, 이사야 10:5; 열왕기상 22:20-23 등에서 하나님의 신적 협력을 접할 수 있다.

(4) 신적 협력의 특성

(a) 선제적이며 선결적인 신적 협력

선제적이며 선결적(previous and pre-determining)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자연계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의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 방법은 일반적 방식으로 그의 이성적 피조물들(rational creatures)에게 힘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행동들을 일으키도록 활기를 불어 넣으시는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⁵²³⁾

(b) 동시적인 신적 협력

피조물(creature)의 활동이 시작된 후로 만일 그것이 계속되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유효한(effective) 의지(will)와 함께 해야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서 독립되어 일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는 것이다.⁵²⁴⁾

그러나 이 신적인 협력의 활동은 매순간, 어떤 면에서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음이 없이 사람의 행동과 함께 한다. 행동은 사람의 자유행동, 즉 자신이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남는다. 사람은 행동의 주체이다.⁵²⁵⁾

(c) 직접적인 신적 협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신적 협력에 있어서는 다르다.

519) 창 45:5

520) 출 4:11,12

521) 수 11:6

522) 잠 21:2

523) 고전 12:6; 엡 1:11; 신 8:18; 빌 2:13;

524) 행 17:28

525) Herman Bavinck는 이 진리를 나무를 태우는 사실을 예증으로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단지 나무로 하여금 타게 하시지만, 타는 일은 하나님에게 돌려질 수 없으며, 주체인 나무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들을 불로 파괴하실 때, 이것은 수단을 사용하신 신적 다스림의 행동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불이 덜어지게 하시고, 태우게 하시며, 파괴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협력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의 행동을 결정하셔서 그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신다.

(5) 신적 협력과 죄

이 섭리의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⁵²⁶⁾

(a) 사람의 죄악된 행동은 신적인 관할 하에 있으나, 신적인 허용에 의해(permissive) 일어난다. 따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효하게 범죄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b)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죄악된 행동을 억제하신다.

(c)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을 제어하시고, 선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신적 협력은 사람에게 활기를 북돋아 주며, 특별한 행동으로 그를 유효하게 결정하신다. 반면에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를 관할하시며 통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죄와의 관계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3) 신적 통치(다스림)

신적 통치(다스림; Divine government): 하나님의 통치란, 만물이 그 존재의 목적에 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신구약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며, 그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가르친다. 신적 통치의 범위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편적이어서⁵²⁷⁾ 태초부터의 모든 사역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시는 다스림이다.

(1) 신적 통치의 정의와 특성

(a) 정의와 목적

신적 통치는, “하나님께서 신적 목적의 성취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 목적론적으로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행동”이다. 신적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들을 하나님 이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526) 창 45:5; 50:19,20; 출 10:1,20; 1삼 16:10,11; 사 10:5-7; 행 2:23; 4:27,28

527) 시 22:28,29; 103:17-19; 단 4:34,35; 딤후 6:15

(b) 특성

(ㄱ) 우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오늘날 잘못된 개념 중의 하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낡은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신약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대치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progressive) 개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신적 주권의 개념이 신적 사랑의 개념을 대신하여 자리 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격(Fathership)을 가르치지 않으시며, 신약 또한 하나님의 왕직(Kingship)을 가르치고 있다.⁵²⁸⁾ 하나님은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다.

(ㄴ) 피조물들의 성격에 부합하는 통치

하나님은 물질세계에서 자연법칙들을 제정하시고, 그 법칙들을 방편으로 물질적 우주를 다스리신다. 간접적으로는 정신세계에서 마음의 특성과 법칙으로,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직접 작용을 통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도덕적 감화를 사용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인격적 작용에 의해 지성과, 의지, 마음에 직접 역사하신다.

5. 이적과 비상섭리

1) 이적의 특성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섭리(통상섭리; *providentia ordinaria*)와 비상섭리(*providentia extraordinaria*)로 구분된다.

일반섭리란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 섭리에서 하나님은 엄밀하게 자연의 법칙들을 다라 제2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특별섭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섭리이며, 이 섭리에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매개 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적이다.

McPerson에 의해 내려진 이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적(miracle)이란 일반적인 생산수단에 의하지 않고, 즉 일반적인 방법의 제2원인(자연의 세력/인간의 활동)의 매개 없이, 제1원인(하나님)에 의해 직접 되어진 결과”이다.⁵²⁹⁾

528) Louis Berkhof, p. 175. ak 11:25; god 17:24; 딤페전 1:17; 6:15; 19:6

529) Mc Person, *Chr. Dogm.*, p. 183, cf. Hodge, *Outline of Theology*, p.275, quot., Berkhof, p.

Westminster Confession은 5:3에서, “하나님은 통상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나 기쁘심에 따라 그것들 없이, 그것들 위에, 그것들에 대항하여 일하시기를 자유로 하신다” 라는 신조를 설명한다.

Charles Hodge는 이어서, “이적은 외면세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능력 혹은 단순한 결의에 의해서 가져온 사건이라 정의될 수 있다”⁵³⁰⁾라고 정의했다.

이적의 특이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권능을 행사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이적의 행동에서 특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수행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 환원하면, 이적이 자연의 법칙들을 따라 작용하는 제2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이적의 가능성

이적들은 성경의 페이지들에 예외적인 사건들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연에는 어떤 획일성(uniformity)이 존재한다. 물질세계에는 제2원인들의 작용을 관장하는 법칙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자연에서 역사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기존 질서를 떠나실 수 없다든지, 하나님의 특정한 의지에 의해 비상적인(extraordinary)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비상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내신다. 이것은 이적이 자연을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적이 실행될 때, 자연의 법칙들은 침해되거나, 파괴되거나 하지 않으며, 단지 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의 나타나심(현현)에 의해 어떤 특수한 점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다.⁵³¹⁾

3) 성경상의 이적의 목적

성경상의 이적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놀라움이나 능력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죄를 파멸시키고,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성경에서의 축자적 특별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적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다. 이적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과, 교회의 설립시대와 같은 특별한 시대와 관계되어 있다. 물질적 우주에서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상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이적들이 따를 것이며, 자연이 갱신되는 새하늘과 새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설립에서 비롯될 것이다.

176.

530)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p. 618

531) Berkhof, p. 177.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적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주이시며 섭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권능으로 언제라도 비상 섭리를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⁵³²⁾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자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돌보시며,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난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끝-

United Bible University & Seminary
2022 가을학기 <조직신학 II (신론)>

532) Ibid.